

중 학교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교사용 지도서



통일교육원



# 차례

## 제 I 장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 3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 12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30

## 제 II 장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 45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59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 68
4. 북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 78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어떨까? / 88
6.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떨까? / 96
7.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떨까? / 111
8.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 131
9.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어떨까? / 148

## 제 III 장 하나됨을 위하여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 165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 174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197

## 부 록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 211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216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 218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 222

# 제 I 장

## 남북이 함께 만드는 세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 1.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 1. 남북 분단의 현실

#### 가. 단원의 개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은 커다란 민족 역량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분단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족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단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우리 민족 분단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이러한 분단의 현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족 분단의 원인을 민족 내부 세력의 분열과 당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찾아보고, 민족 분단과 남북한의 갈등을 살펴보고, 민족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역사적 교훈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다. 1972년에 이루어진 「7·4 남북 공동성명」, 19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발효,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남북한 교류협력 등 민족 분단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나. 학습 목표

- (1) 남북 분단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3) 남북 분단의 현실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들을 말하도록 한다.</li> </ul>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쉬리'와 'JSA'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학생들이 찾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리' 수족관 장면에서 어항들이 부숴질 때 땅바닥에 나뉘는 물고기들</li> <li>- '쉬리' 두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li> <li>- 'JSA' 공동경비구역은 분단의 상징</li> <li>- 'JSA' 돌아오지 않는 다리</li> </ul> </li> <li>○ 비무장지대(DMZ)를 조사하여 발표한다.</li> <li>○ 민족의 교류 협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문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교류일지</li> <li>- 남북 경제교류의 현황</li> </ul> </li> <li>○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로 서로의 정치적 실체 인정</li> <li>-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li> </ul> </li> <li>○ 분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글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디오 활용</li> <li>· 학습지①</li> <li>· 인터넷활용</li> <li>· 학습지②</li> <li>· NIE, 인터넷 활용</li> <li>· 학습지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영화 속의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li> <li>· <a href="http://www.korealink.co.kr/event/dmz/body4.htm">http://www.korealink.co.kr/event/dmz/body4.htm</a></li> <li>· <a href="http://nk.chosun.com">http://nk.chosun.com</a></li> <li>· <a href="http://www.tongil.net">http://www.tongil.net</a></li> <li>· <a href="http://nk.join.com">http://nk.join.com</a></li> <li>·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의 과정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연대별로 정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워포인트 활용</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학년 \_\_반 \_\_번 이름 : \_\_\_\_\_

민족 분단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 ‘쉬리’와 ‘JSA’를 보고,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찾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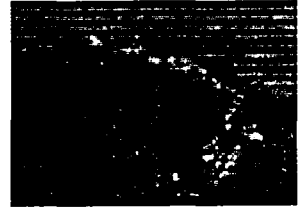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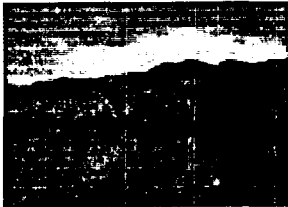
	분단을 표현한 장면	분단의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유
쉬리	예) 남북의 요원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수족관 장면	남북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쏘며 싸우는 것은 직접적인 남북 분단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총에 맞은 수족관이 깨어지고 그 속에 평화롭게 살던 물고기들이 바닥에 펄떡이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메이던 우리 민족을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JSA		

학습지②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비무장지대이다.

<http://www.korealink.co.kr/event/dmz/body4.htm>의 사이트에 나타난 비무장지대의 사진들을 자세히 본 후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1. 민족의 갈라진 허리인 철책을 본 느낌은 어떤가?

---

---

---

2. 내가 만약 아래의 병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

---

---

---



---

---

---

---

마. 참고자료

참고자료 ① 이산가족 교류 일지

1953. 12. 11 ~ 1954. 3. 1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실향민간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키로 한 이후 첫 접촉

1955. 11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안위와 행방의 조사 ▲생존자에 관한 소식통보, 생존자와 가족간의 통신 ▲원거주지로의 귀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57년 1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 방문을 거부하고 남북적십자 회담, 편지 교환 등을 역제외.

1957. 11

북한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문의한 7천34명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대한적십자회는 북측이 문의한 1만4천32명중 1만4천12명의 명단을 각각 통보.

1971. 8. 12

이산가족찾기 판문점 첫 회담

1972. 8 ~ 73. 7

1차 평양회담 시작으로 7차례 본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1973. 8. 28

김대중 납치사건 등 이유로 북, 일방적 대화 중단

1982. 8. 12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 '이산가족의 날' 제정

1983. 2. 9

500만 이산가족 대표 4,500여명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결성·발족

1985. 5

제8차 적십자 본회담 및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예술공연단 교환합의

1985. 9. 20 ~ 23

고향방문단 등 151명 교환방문

1989. 5. 31

북, 제2차 고향방문단 등 교환제의

1990. 11

북의 혁명가극 공연 주장으로 교환 무산

1992. 5

제7차 고위급 본회담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합의

1993. 3. 19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방북 허용 및 입북

1998. 2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촉구

1998. 4. 11 ~ 17

베이징 남북당국 대표회담.

南,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비료지원 병행 요구

北, 비료 선지원 요구로 무산

1998. 12. 14

국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결의문' 북측에 전달

2000.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2000. 4. 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2000. 6. 13 ~ 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문제 포함된 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6. 30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서 이산가족 방문단 동시 교환기로 합의.

2000. 8. 15 ~ 18

제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2000. 11. 30 ~ 12. 2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2001. 1. 29 ~ 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여관)

제3차 이산가족방문 명단 교환(판문점)

2001. 2. 26 ~ 28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조선일보 2001. 1. 27

#### 참고자료 ②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은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일컫는다. 이산 1세대는 이산가족 중 1953년 7월 27일(휴전)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 지역에서 남(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하고 실향민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남한 주민을 말한다.

통일부가 2001년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약 767만명 정도이다. 이 가운데 분단을 직접 경험한 이산 1세대는 123만여명이며, 60대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69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이 6만3,717명이며, 70~79세의 고령자는 20만1,131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1970년까지 가호적 신고자 5백46만3,000명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추정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산가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의 역사는 1971년 8월 12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적십자사 손성필 위원장은 이틀 후 이 같은 제의를 수락, 72년 8월 29일 서울에서 1차 회담이 열렸다. 거듭된 회담끝에 85년 5월 열린 제8차 본 회담에서 같은 해 8월 15일 이산가족 상호 방문에 합의, 9월 20일 각각 1백51명으로 구성된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다.

남한의 고향방문단 31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 41명과, 북한대표단 30명은 남한 가족 51명과 분단 후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지학순 카톨릭주교와 누이동생의 상봉 장면은 전국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남북 적십자회담은 결국 85년 12월 10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두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성사 막판에 번번이 북측의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무산됐다. 89년 11월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선 양측이 각각 571명 규모의 제2차 고향방문단을 교환키로 합의했으나 90년 북한이 돌연 ‘혁명가극’ 공연을 들고 나오면서 무산됐다.

또 92년 5월 7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에 합의했으나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이인모씨 송환, 핵사찰 문제 거론 중지 등을 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문민정부는 이인모씨를 1993년 3월 조건없이 송환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98년 취임사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과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 창구가 열릴 것에 대비,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14만 5,000여명의 인적 사항과 재북가족 사항, 헤어진 사연 등을 수록해두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또 실향민이 북쪽 가족을 찾아 나설 경우 생사확인작업에 대해서는 80만원, 상봉 때는 180만원의 교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 경제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서는 교류경비의 2배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방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선일보 2001. 1. 27.

참고자료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1조 - 4조)
-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5조 - 7조)
- 제3장 비방·중상 중지 (8조 - 14조)
-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15조 - 17조)
-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18조 - 20조)
-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21조 - 24조)
- 제7장 이행기구 (25조 - 26조)
- 제8장 수정 및 발효 (27조 - 28조)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무력불사용 (1조 - 3조)
-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4조 - 8조)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9조 - 11조)
-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12조 - 15조)
- 제5장 협의·이행기구 (16조 - 17조)
- 제6장 수정 및 발효 (18조 - 19조)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경제교류·협력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1조 13개항, 2조 2개항, 3조 8개항, 4조 5개항, 5조 2개항, 6조, 7조, 8조)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9조 4개항, 10조 8개항, 11조 2개항, 12조, 13조, 14조)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15조 5개항, 16조, 17조, 18조)

제4장 수정·발효 (19조, 20조)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정무원 총리 연형묵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아래의 부분 참조>

<http://www.unikorea.go.kr/kor/data/agree/agreement.php>

## 2. 다른 분단국들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 가. 단원의 개관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 과정과 교류 협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우편, 통행, 통신, 방송, 언론, 경제 등 각 부문별로 꾸준히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 과정을 살펴보고, 서독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통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동서독의 통일 과정과 통일된 독일의 민족 발전을 위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민족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국민들이 합의해야 하는가를 학생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



인정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정부간에 서로 다가가려는 노력들을 다루었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사회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이러한 중국과 대만 정부의 노력이 우리의 남북 관계에 주는 시사점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통일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민족의 과제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 (1)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을 말할 수 있다.
- (2) 중국과 대만의 실용주의적 교류 과정이 우리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 (3)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른 분단국들의 노력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학년 \_\_반 \_\_번 이름 : \_\_\_\_\_

독일의 통일과정을 만화로 그려보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여 보자.

우리 민족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	
○○생각	

**학습지②**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결혼과 통일의 과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이 표를 참고로 하여 하나의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느낀 점을 써 보자.

	결 혼	통 일	비 고
1	소개 또는 만남	만남과 대화의 필요성	
2	서로에 대한 끌림과 관심	동포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	
3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	함께 만들어 가는 민족의 역사	
4	연애하는 동안 다투기도 한다.	민족의 갈등과 분단의 아픔	
5	정이 들고, 결혼을 결심	통일에 대한 열망	
6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논의 필요	
7	집 장만과 혼수 문제 등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고려	
8	결혼은 사랑의 목표이자 종착점	남만주의적 통일론	
9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상의 통일론	
10	결혼한 후에도 작은 다툼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	
11	성숙한 사랑과 2세의 탄생	상호존중과 민족공동체의 밝은 미래	
느낀 점			

**학습지③**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과정을 비교하여 표를 작성한다.

	독 일	베 트 남	예 멘
민족 분단의 과정			
민족 갈등의 원인			
통일주도세력			

	독 일	베 트 남	예 멘
동일의 원동력 또는 원인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 마. 참고자료

### 참고자료 ① 독일 통일의 복합적 원인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서독정부는 아데나워 초대 총리이후 ‘자석이론’ 또는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 정책에 입각하여 서독의 국력 증강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주력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보면 서독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막강한 경제력에 토대를 둔 대동독 지원이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1969년 10월 집권한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서독정부가 동서독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화해를 추진했던 점이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개방’(글라스노스트)과 ‘개혁’(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독일 통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가 작용한 결과였다. 당시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을 따르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계속 개혁을 요구했다. 1989년 10월 동독 제2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지도층 교체로 주민의 소요를 무마하려던 동독 정권은 지도자를 호네커에서 크렌츠와 모드로우로 바꾸었다. 결국 동독에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섰고, 1990년 3월에는 역사적인 자유총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수상은 수반으로 하는 동독의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통일조약을 체결하

였다. 통일조약과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15개 지구가 분단전의 5개 주로 개편되어 서독연방에 편입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48-149.

### 참고자료 ② 동방정책

동방정책이란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의 연립정부가 출범한 후 서독의 대동독 및 통일정책을 말한다. 또한 이 정책은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정책과 소련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의 변화, 유럽에서의 세력 균형, 독일민족의 통일 의지에 따라 통일정책을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동방정책은 한편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통일은 '역사의 과제'로 남겨두고, 비교적 실현이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동방정책의 정책기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일 내 두 개의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이 아니라 국내법상의 승인이다.
- 양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하여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 독일에 대한 4대 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존중한다.
-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다.
- 경제 문화부문에서 상호 협력한다.
- 폴란드와 소련에 대해 무력사용 포기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 '할슈타인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선에 관한 국경협상’을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동방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통일을 위한 노력은 ‘지루하고 끝이 없는 대화’이므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의 평화는 동유럽 국가들,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이들과의 진정한 평화 없이는 독일의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질서’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독이 유럽의 긴장완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진제와 4대 강국의 묵인 하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현실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채택된 동방정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산가족의 재결합, 경제·기술협력과 군축,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류로 민족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공존과 긴장완화 정책으로 유럽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동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서 동방정책의 공존과 긴장완화라는 명분 하에 ‘분단의 고정화’ 또는 ‘공존의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평가되었다.

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1994

### 참고자료 ③ 통일 독일의 해결 과제

통일 이후 10년 동안 동독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 또한 냉혹한 것이었다. 과거 불법행위 청산과 희생자의 복권, 화폐·경제 통합, 재산권 문제, 붕괴된 동독 경제의 재건과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편 등 적잖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 서독화폐와 동독의 화폐·임금과의 1:1 교환조치는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으며, 동독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생산성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주

의식 완전고용은 명분뿐이었으며, 모든 기업과 행정기관에 막대한 잠재실업 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서독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여건에서도 통일독일 정부가 동독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독일경제는 통일 후 수년동안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거시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급격한 경제구조 변혁의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실업률 및 경상수지 적자는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동독지역의 잠재실업인구는 직업활동 인구의 1/4에 달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서독지역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전체의 무역수지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 이후에는 1990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상수지는 통일전인 1990년까지는 매년 상당폭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통일후인 1991년부터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전체수출에서 동독지역의 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6% 정도이며, 아직도 많은 신생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독지역 경제의 서독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비교적 낮은 동독지역 경제의 자본총량, 시장 개척에 요구되는 동독기업의 낮은 가격전략, 능력있는 하청기업과 대기업간 경제적 연계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독지역 경제는 주목할 만한 성과와 재건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동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50-151.

#### 참고자료 ④ 중국의 대만 정책과 대만의 중국 정책

중국의 대만 정책은 1993년 8월 발표한 통일백서 에 잘 나타나 있듯이 중국이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의 대만 통일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첫째, 중국은 하나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되 특별행정구역에 한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일정기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을 주창해 왔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회복시에 이 원칙을 적용한바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자치권과 함께 군대 유지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둘째, 중국은 1981년 이후 통상(通商)·통우(通郵)·통항(通航)으로 표현되는 3통(三通)과 친척방문 및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로 대표되는 4류(四流)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兩岸)간 교류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교류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용을 천명함과 동시에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선언한 이래 중국은 3통원칙과 민간교류 확대를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며 대만을 '하나의 중국'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체화해 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1997년 홍콩반환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나의 중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대만에 군사·행정권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 하되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일국양제를 대만측에 제안하였다.

한편, 대만은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항하여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1988년에는 중국의 일국양제 주장에 맞서 '일국 양부제론(一國兩府制論)'을 주장,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중국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이 모두 지역정부로서 대등하다면서 대만정부의 정치적 실체 인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1991년 3월 중국과 교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민주·자유·균부(均富)'의 통일중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통일강령」을 확정했다. 여기에서 대만은 통일추진단계를 실체인정→교류접촉→통일협상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입장은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를 간접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갈등은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인정 우선'이라는 입장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159-160.

**참고자료 ⑤** 중국과 대만의 경제·사회 교류 현황

중국과 대만은 경제 및 사회교류 면에서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민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1988-99년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연인원 1,750만 명에 달하며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5만 명이며, 교류 항목은 5,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 분야의 교류도 그에 못지 않게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만 경제인들이 중국대륙에 실제로 투자한 액수는 200억 달러이며 투자계약액을 합하면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두번째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대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212.3억 달러, 수입 45.2억 달러로 167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3만개 이상의 대만 기업체가 진출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대만 경제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49년 이후 단절되었던 중국과 대만간 직항 바닷길이 비록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2001년 1월부터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廈門市)와 대만의 진먼따오(金門島) 사이에 직항로가 개통됨에 따라 소3통(小三通)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로써 양안(兩岸)간 직접교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차원에서 3통(三通)의 전면적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과 대만간에는 직통 국제전화 가능하고 우편물과 이삿짐도 자유롭게 오고 가며 국적선과 국적기를 제외한 선박과 여객기도 형식적으로 홍콩에 기착한 뒤 드나드는 실정이다. 3통의 공식화는 중국과 대만정부의 정치적 타결에 달려 있다. 중국은 3통을 '국내 이동'으로 취급하려 하지만 대만은 지금도 '양국간 이동'으로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3통의 실현은 경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하면서도 정치분야에서 아직 냉각상태를 보이는 양안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 162.

**참고자료 ⑥** 중국과 대만의 경제·사회적 교류 증가의 영향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약화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둘째, 양안간의 갈등이 '체제간의 갈등'에서 '권력집단간의 갈등'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이미 정치적 적대관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과 대만 양측이 모두 경제적 보완성을 통해 공동발전할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경제·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기능주의적인 통일의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치논리 위주의 통일논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중국과 대만 주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성(省)으로 보고 정치적 통일논의를 서두르려고 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의 민주화 이전에는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 162.

**참고자료 ⑦** 베트남의 통일 과정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공산당 중심의 베트남 독립동맹은 제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1945년 9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영국군과 중국군이 남·북 베트남에 주둔하게 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복귀를 시도함에 따라 1946년말을 기해 프랑스와 베트남간에 전면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8년간을 끌어온 제1차 베트남 전쟁은 1954년 제

네바 협정으로 종료되었으나,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이미 북쪽에는 베트남 독립동맹(월맹) 주도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이 세워졌으나, 분할 이후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 7월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수립되었다.

분단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주민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쉬지 않았다. 또한 남베트남 내부에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노동당원들을 남파시키는 한편,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을 결성하기도 했다. 북베트남의 지시를 받는 베트콩의 게릴라전술 때문에 남베트남 지역은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힘든 전장으로 변하였다.

한편 남베트남 당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해 왔지만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체제유지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73년 남·북베트남 정부와 베트콩을 모체로 한 월남 임시혁명정부(민족해방전선) 대표자들과 함께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군은 철수했고 남베트남 지역에서 베트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행위가 이어졌으며 1974년 북베트남이 '구정 대공세'를 시작으로 한 전면전에서 승리한 결과,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었고, 1년 후에는 남·북베트남이 통일되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52-154.

#### 참고자료 ⑧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정책

베트남 통일 이후 무려 90여만 명에 달하는 남베트남 주민들이 통일조국을 버리고 자유를 위해 탈출함으로써 이른바 '보트피플'(boat people) 집단이 발생했던 것이다. 베트남에서 보트피플의 탈출 물결이 끊어진 것은 베트남 당국이 강력한 사상교육의 시행을 중단하고 1986년 이후 '도이모이(개혁)정책' 이라는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추

구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이모이 정책’을 선택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대폭 삭감, 금융개혁,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을 단행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베트남 정부는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시장경제의 도입을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한 결과, 1995년 7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2000.8)함으로써 적대관계를 청산하는가 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 협력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55-156.

#### 참고자료 ⑨ 예멘의 통일 과정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북예멘이 각기 시차를 두고 독립했기 때문에 분단되었다. 북예멘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터키가 철수함으로써 독립하였으나, 남예멘은 1967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독립되었다. 더욱이 독립당시 북예멘에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예멘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남북예멘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통합하려는 다툼을 쉬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예멘 사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의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예멘은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

다. 이와 같이 무력충돌 - 평화협정 - 통일원칙 합의 과정을 반복하던 가운데 1989년 남북예멘은 정상회담을 갖고 마침내 통일헌법안을 승인했다. 그 이후 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통일에 성공하였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 156.

#### 참고자료 ⑩ 예멘 재통합의 교훈

남북예멘이 합의 통일에 성공한 이후에도 무력충돌을 겪었던 이유는 남북예멘의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감을 지니고 있었고, 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통일 후 4년만에 내전이 벌어진 예멘 사례에서 우리는 민족통합이 뒷받침되지 못한 국가결합의 위험성과 함께 통일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통합과정의 복잡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이 통일을 위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다진 다음 통일에 임하였다면, 또는 통일협상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진행하였다면 다시 분열되었다가 무력으로 재통일되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예멘공화국이 1997년 4월 예멘사회당이 불참한 가운데 2차 총선을 실시하여 살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국민회의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최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57-158.

#### 참고자료 ⑪ 분단국 통일의 교훈

분단국의 통일과 교류·협력 사례는 우리에게 적잖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은 막아야 한다. 오랫동안 전쟁을 한 뒤 통일에 이른 베트남은 통일된 이후에도 국토의 황폐화와 생산 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

둘째, 경제협력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는 중국·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은 우리에게도 좋은 접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준비를 해나가는데 있어 주도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멘의 통일과정은 양국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통합했을 때 조직은 비대해지고 명령·통제 계통이 불명확해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또한 통일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줄속으로 흐르게 되거나 중국에는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지도층뿐만 아니라 주민간에도 신뢰가 쌓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로 건설해 나가며,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추진정책 등에 대해 국민적 신뢰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1, pp. 162-164.

###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변화고 있을까?

#### 가. 단원의 개관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북한의 평양에서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마치 한꺼번에 한을 풀려는 듯, 분단 50여년 동안 이루지 못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어난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2000년 8월 15일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한이 그 동안의 응어리를 풀고 서로를 믿고 화해·협력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6번에 걸쳐 열릴 정도로 남북당국자간 접촉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남북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실무자회담이 열리고, 경의선 연결공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등도 열렸다.

셋째, 경제교류 협력과 문화예술교류도 활발해졌다.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 나. 학습 목표

-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활발한 접촉을 지적할 수 있다.
-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디오를 간단하게 보여 주고,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li> </ul>	비디오나 동영상이 활용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의식 변화를 발표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li> <li>- 통일의 필요성, 가능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등</li> </ul> </li> <li>○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대립 관계의 마감</li> <li>-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도</li> <li>-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li> </ul> </li> <li>○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들의 만남</li> <li>- 남북 당국자간의 잦은 만남</li> <li>- 남북한 경제협력</li> <li>-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동시 입장</li> <li>- 경의선 복원</li> </ul> </li> <li>○ 남북정상 회담의 대표적인 결실인 경의선 복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의선 복원의 정치적 의의</li> <li>- 경의선 복원의 경제적 의의</li> </ul> </li> </ul>	학습지① 참고자료①     학습지②          학습지③ 참고자료② 참고자료③	학생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이익 증가, 남북 긴장 완화, 통일을 앞당김</li> </ul> </li> </ul>		학생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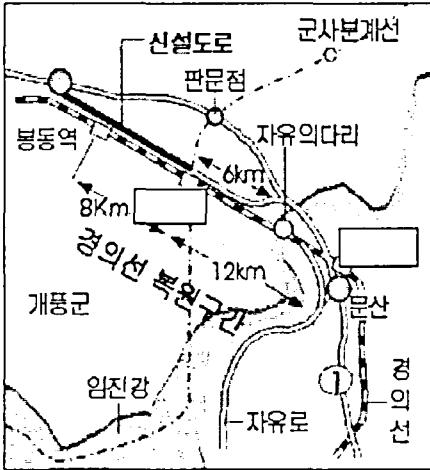
라. 학습지

학습지①	반    번    이름
------	--------------

다음 글을 읽고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p>“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만 있어주오”</p> <p>17일 평양 고려호텔 오찬장에서 평양 방문단 최○○(79)씨가 50년 만에 만난 부인 송○○(75)씨에게 밥을 떠먹여 주며 이 말만을 되풀이 했다. 치매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곁에서 세끼 식사를 챙겨주고 약도 지어주고 싶지만 이젠 늙고 병든 아내를 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송씨는 말이 없었다. 처음 남편을 만난 15일 단체상봉 때도 자리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p> <p>“어머니 일 못하게 해야 돼. 음식도 정확히 세끼 맞춰 드리고 목욕도 자주 시켜드려라. 아이 보는 건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괜히 몸만 상하고 잘못하면 며느리한테 욕먹고 그러니 ..” 최씨는 아들 ○○○(55)씨에게 거듭 아내의 병간호를 당부했다.</p> <p>최씨가 아내와 아들, 딸과 생이별을 한 것은 51년 1.4 후퇴길이었다. 남쪽에서 이미 재혼한 자신을 기다리며 평생을 홀로 살아온 아내가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자 최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p> <p>“차라리 재혼해서 살지. 이 정도일 줄은 차마 ..”</p> <p>최씨는 “마지막 날이라도 아내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 나를 알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며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p> <p>평양/공동취재단(한겨레신문, 2000. 8. 18)</p>	

학습지②

반 번 이름



1. 다음의 그림은 경의선 철도 복원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입니다. 현재는 국토 분단으로 서울~문산(汶山) 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남한은 우리나라 철도 개설 101주년 기념일인 2000년 9월 18일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빈칸에 끊어진 경의선의 두 역 이름을 적어 봅시다.

2. 경의선 철도의 복원은 한민족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면 나에게 좋은 점, 북한에 좋은 점, 그리고 남한에 좋은 점을 예상하여 각각 적어 봅시다.

구분	좋은 점
나에게	
북한에	
남한에	
중립·러시아에	

## 마. 참고자료

### 참고자료①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 정상과 지도부는 2박 3일 동안의 만남과 공동선언문을 통해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는 한편,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정상들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였다. 물론 이 합의의 실천과정에는 적잖은 굴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의 변화는 탈냉전,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 권 붕괴, 남북간 역량격차 심화 등 구조적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민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가 남북 당사자라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으며,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기존의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고 양 정상이 직접 합의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셋째, 남북 지도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인간적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였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남북 지도자들은 많은 행사를 함께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인사들이 우리측 인사들과 격의 없이 접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과거 중국 등 사회주의 우방국가들에게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양 지도부 사이의 인간적 신뢰구축 노력은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정상은 장시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적대적 쌍방이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이다. 이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식,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산가족이나 경제협력에서 핵, 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 등 예민한 현안과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고와 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함으로써 남북간에 상생(相生)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은 그 동안 동북아정세의 불안정 요인이었던 대결상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일부, 2001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pp. 56-58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더 많은 자료는 남북회담사료([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② 경의선에 관한 동영상

사이버 통일 교육센터(<http://uniedu.go.kr>)의 '경의선 : 알고나면 더 신나요([http://uniedu.go.kr/kids/index\\_h8.htm](http://uniedu.go.kr/kids/index_h8.htm))' 참고

참고자료③ 경의선 복원에 관한 신문기사

<경의선 철도 복원되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6개항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북대표들이 합의한 6개항은 장관급 회담의 운영원칙,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8.15 남북화해 주간 행사실시, 조총련동포 고향방문, 경의선 철도 연결,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일자 확정으로 구성돼 있다. 6개항 합의 중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경의선 철도 연결이다.

\*\*\* 물류비 절감 등 實益 상당

전쟁과 분단으로 끊어진 경의선 철도 20km를 이음으로써 남과 북은 다중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 물류적 차원에서 경의선을 복원함으로써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중국대륙횡단 철도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이 폐쇄된 공간상에서는 부산에서 유럽의 중추항만인 로테르담까지 해운거리가 2만6천6백km이나 경의선을 복원하여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철도거리가 1만2천2백km로 64%나 단축되며,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해상 수송료 1천9백달러를 철도수송료 1천4백달러로 36%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경의선 복원으로, 북한은 통행료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지하자원을 남한에 반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의 제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은 물류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부산이 중국·러시아는 물론 유럽으로 가는 환적화물 수송의 기점이 됨으로써 일본의 고배를 제치고 동아시아 제일의 중추항만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경의선의 연결은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무역·금융기업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바다와 대륙이 한반도를 중추로 해서 부



채살처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천2백km는 7억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6조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분단은 이러한 중추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왔다. 바로 이 점에서 경의선 연결은 중추국가 실현에 대한 장애물의 제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의선 연결로 '주체경제의 섬'으로 남아있던 북한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이 동아시아 시장경제에 연결됨으로써 한반도경제권이라는 민족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이라는 두개의 지역경제권이 완성되며 한국은 그 두 경제권의 중추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복원은 단순한 철도의 연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일본·미국·대만의 사람과 물자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북한 지역을 통과해 중국과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가게 될 때 사실상 휴전선의 장벽이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크게 줄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 \*\*\* 휴전선 장벽 허무는 효과

복원된 경의선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어 나르는 기차가 될 것이다. 냉전시대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초지로서 동아시아의 불화와 반목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한국과 북한이 경의선 연결로 동아시아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중추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20km에 지나지 않는 끊어진 경의선을 연결함으로써 남과 북은 물류·경제·정치적으로 엄청난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경의선의 연결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남북협력 프로젝트일 뿐 아니라 주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줄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식을 갖게 해 줄 평화철도 프로젝트다. / 임혁백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

중앙일보, 2000. 08. 01

<세계화 앞당길 경의선 복원>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로 남북당국은 경의선 복원에 합의했고 그 기공식이 곧 있을 예정이다.

경의선 복원은 단순히 남북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지역, 특히 한국 중국 일본간에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돼온 무역과 투자교류가 급류를 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3번째 교역상대국이고 일본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거니와 교역이 급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3개국간에 존재하는 경제구조의 보완성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중국은 한국에서 각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중간재와 공장설비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경의선 복원과 그에 뒤따를 경원선 복원은 그 동안 동북아경제통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북한과 극동시베리아를 동북아경제권으로 흡수하고 동북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극동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어업자원, 북한의 노동력,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 남한의 범용제품 생산기술, 일본의 자본과 고도기술이 어우러지고, 최근 남한과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인터넷 열풍이 가세하면 동북아는 공업생산의 세계기지로 변모함은 물론 지식정보기술에서도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주변환경의 변화는 21세기 한반도의 발전비전을 재정립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낳는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중국-일본간 대립과 불신의 해소에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한반도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규모면에서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중 하나다. 이 같은 경제규모 외에도 그 역동성 때문에 동북아지역은 세계 다른 국가들 및 기업들에 21세기 주요 시장으로서 그리고 경협파트너로서 매력적이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국의 동북아지역 내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물류부문이

다. 세계간선항로상에 자리잡고 있는 부산, 광양항이 제대로 개발될 경우 이들 항구는 동북아지역의 중심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25% 이상이 아시아 역내항로에서 취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의 기항 및 화물취급관련 서비스에 따른 수입은 항만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21세기 성장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공산업의 경우에도 새로이 건설되는 인천공항이 동북아지역 항공교통의 허브(Hub)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항공물동량이 향후 10년간 연 7%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북아 중심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간 철도가 복원되고 북한내 철로가 보완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간 육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류중심지 외에도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세계 우수한 기업의 거점이 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제 한 국가의 부의 수준은 그 국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번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세계적 우수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동북아지역내 세계적 우수기업의 거점이 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내의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외국인선사, 항공사 및 외국인 항공승객이 선호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국제적 인력양성과 외국인 친화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 국가가 단순히 인구나 면적면에서 대국을 지향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를 지닌 국가가 최상의 기업 및 인력을 유치하여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세계일보, 2000. 08. 25

**참고자료④ 남북경제협력 현황**

**단순 교역**

남북간의 단순교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년 IMF의 영향으로 감소되었으나 1999년 이후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현재 교역 참여 업체는 581개 기업이고 교역 품목은 525가지 정도이다.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이 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반출 품목은 다양하다.

1999년 북한의 대외 교역 총액은 19억 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그 중 남한과의 교역이 약 1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 중 중국, 일본에 이은 3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북한과의 교역 수지는 계속하여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위탁 가공 교역**

위탁가공형태의 교역은 현재 대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1999년 현재 전체 교역의 약 30%, 거래성 교역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 간 위탁 가공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경험에서 현재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위험으로 대북한 선점효과도 낼 수 있다.

품목 구성을 보면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1999년 현재 반출의 69.7%, 반입의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 전기 분야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수익성을 살펴보면 섬유류 분야에서 장기간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기업만이 대체로 손익 분기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

**투자협력**

현재 경수로 관련 4개 사업, 사업 중단 3개 사업(백산 실업, 두레마을, 아자커뮤니케이션), 사업완료 1개 사업을 제외한 총 투자규모는 1억 3000만 달러 정도이다. 대북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2001년 12월 현재 협력 사업자 79개사, 협력 사업 48가지가 각각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 사업 승인 중 실제로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은 1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진출한 기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과 태창의 '금강산 샘물 개발 사업'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시작한 대우 남포 공장은 사업이 2000년 3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참고로 2000년 3월 현재 북한에 투자한 업체 중 이익을 내는 기업은 없다고 한다.

NK조선 경제/경협부분(<http://nk.chosun.com/economy/>)

#### 참고자료⑤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 제 Ⅲ 장

#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4. 북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은 어떨까?
6.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떨까?
7.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떨까?
8.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
9.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어떨까?





## II. 북한 사람들의 삶

### 1. 북한은 어떤 곳인가?

#### 가. 단원의 개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내려면 북한과 통일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지혜와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포애는 서로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원은 북한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원으로서 북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 지형적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와는 달리 이념과 정치,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체제유지를 위해 117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총 360여 종의 광물자원이 확인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이를 토대로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다.

본 단원을 지도함에 있어 교사는 본 단원은 북한 이해의 첫 걸음임에 유의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가치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일반현황을 안다.
- (2) 북한관련 기초 지식을 활용, 북한소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 (3) 북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려는 자세를 지닌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북한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한다.</li> </ul>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해당하는 ×퀴즈를 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정식명칭 및 국가, 국기, 나라꽃</li> <li>- 북한의 행정구역 및 자연환경</li> <li>- 북한의 정치, 경제 제도</li> </ul> </li> <li>○ 조사해온 북한의 일반 현황에 관한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북한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꾸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일반현황 및 최근 소식</li> <li>-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 표현</li> <li>- 희망자순으로 발표</li> </ul> </li> <li>○ 북한 답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북한에 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사지 지도에 표시하기</li> <li>- 꼭 보고싶은 유물,유적 또는 명승지 기록하기</li> <li>- 자신의 답사계획서를 발표하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①</li> <li>학습지②</li> <li>홈페이지 예시자료</li> <li>노래(꽃다지2집)테입</li> <li>학습지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사회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다룬다.</li> <li>학습지를 B4로 확대해서 사용</li> </ul>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북한의 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학번	이름
------	----	----

제 목	북한에 대한 나의 기초지식은?
학 습 안 내	☞ 다음의 질문지에 ○ 또는 ×를 기록해봅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의 공식명칭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    )</li> <li>2. 북한의 국화(國花)는 진달래꽃이다. (    )</li> <li>3. 북한을 이끄는 당의 공식명칭은 '공산당'이다. (    )</li> <li>4.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넓다. (    )</li> <li>5. 북한의 행정구역은 여덟 개의 도로 되어있다. (    )</li> <li>6. 북한의 국기(國旗)는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別旗)'이다. (    )</li> <li>7.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수준이다. (    )</li> <li>8. 북한은 흑연을 비롯해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li> <li>9. 북한의 국가(國歌)은 '조선인민가'이다. (    )</li> <li>10. 북한의 국보1호는 '평양성'이다. (    )</li> <li>11. 북한에는 학원이 없다. (    )</li> <li>12. 북한에서는 라면을 '죽석국수'라고 부른다. (    )</li> <li>13. 북한에서는 치마입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    )</li> <li>14. 북한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    )</li> <li>15. 북한에서도 8. 15 광복절은 국경일이다. (    )</li> </ol> <p style="text-align: right;">총 점 :</p>	

학습지 ② - 1

학번		이름	
----	--	----	--

제 목	북한 소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학 습 안 내	☞ 북한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만들어봅시다.

학습지 ② - 2

학번  이름

제 목 과제 수행 안내

※ 홈페이지 예시 ※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과제 수행 유의 사항
1. 홈페이지 메인화면 크기는 학습지 이외에 A4-B4크기 까지 가능함.
  2. 홈페이지 상에 북한에 관한 일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해야 함.  
(북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북한은 대충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함)
  3. 북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야함.
  4. 텍스트만 아니라 이미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함.
  5. 필요한 이미지는 붙이거나 새롭게 그릴 수 있음.

학습지 ③ - 1

학번		이름	
----	--	----	--

제 목	<b>북한답사 휴가 계획</b>	
학 습 안 내	☞ 북한 일주계획을 수립해보자. 길을 빨간색으로 지명은 파란색으로	
순	꼭 가고싶은 곳	간단한 소개 및 설명
1		
2		
3		
4		
5		

학습지 ③ - 2

제 목	통일이 그리워
학 습 안 내	☞ 손뼉을 치며 같이 불러봅시다.
<p>손뼉아 기다리던 이번 휴가엔 어디를 다녀올까 가슴이 설레네                  커다란 지도를 방안 가득 펼쳐놓고 지리산이 어떨까 동해안은 또 어떨까                  그러다가 내 눈은 휴전선 너머                  낮설은 이름들의 도시를 만났네                  서울에서 제주만큼 북쪽으로 가보면                  그곳은 어디일까 갑산일까 남양일까                  언제쯤이 되어야 배낭을 메고                  서울에서 제주만큼 북으로 가볼까                  라라라라라라 통일 그리워</p> <p>여행길에 만나는 남과 북의 처녀총각                  한자리에 모여서 애기 꽃을 피울텐데                  옛말에 이르기를 남남북녀라 그말이 정말일까 남여북남일까                  백두산에 함께 올라 압록강물 처음볼때 편시리 눈물이 흘러 내리면 어찌나                  언제쯤이 되어야 배낭을 메고 서울에서 제주만큼 북으로 가볼까                  라라라라라라 통일이 그리워                  라라라라라라 통일이 그리워</p>	
	 <p>첨성대</p>  <p>남대문</p>  <p>공민</p>  <p>첨성대</p>  <p>선죽교</p>    

## 마. 참고 자료

### 참고자료① 북한의 지형 일반/지리

북한의 지세는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이로부터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이 펼쳐져 있고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산맥으로부터 발원한 여러 개의 큰 강들은 서해 및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평안북도의 묘향산과 함경남도의 함흥을 연결하는 선의 이북지방은 고산지대를 형성하여 백두산(2,750m), 관모봉(2,540m), 북수백산(2,521m), 남포태산(2,433m), 와갈봉, 차일봉, 두운봉, 백산, 운령, 대연지산, 낭림산 등 2,000m가 넘는 산만도 60여 개 정도이다.

이에 따라 고원지대가 발달되어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백무고원(백두 및 무산고원)과 개마고원을 비롯하여 장진고원, 낭림고원, 풍산고원 등 10여개의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령분지, 강계분지, 구성분지, 덕천분지, 이천분지 등 분지지형도 고루 발달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하천들은 이러한 고산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비교적 많아서 동력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

한편 북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압록강을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서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지대를 벗어나서는 완만한 경사와 곡류하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반면에 두만강, 남대천, 용흥강, 어랑천, 성천강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대체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하폭이 좁고 깊으며 거의 직류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평야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는 서해안에 비해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여 규모가 작다. 주요 평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중부 및 서남부의 대동강 유역에 발달한 평양평야(950km<sup>2</sup>)와 황해남도의 재령, 신천, 안악, 은천 등 재령강 유역에 발달한 재령평야(1,350km<sup>2</sup>), 황해남도 연안, 백천, 청단 지역의 연백평야(1,150km<sup>2</sup>), 평안남도의 안주, 문덕, 숙주, 평원 등 청천강 유역의 열두삼천리평야(750km<sup>2</sup>), 함경남도의 함주, 증평 등 성천강 유역의 함흥평야,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의 용천평야 등이 있다.

또한 북한에는 크고 작은 자연호수와 인공호수가 많이 있다. 자연호수로는 양강도의 친지(9.2km<sup>2</sup>)를 비롯하여 함경남도의 광포(9.0km<sup>2</sup>), 함경북도의 장연호(7.7km<sup>2</sup>) 및 만포호(8.6km<sup>2</sup>) 등 5km<sup>2</sup>이상의 호수만도 5개 정도에 이른다. 인공호수는 관개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과 수력발전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수풍호(298.2km<sup>2</sup>)를 비롯하여 운봉호(104.9km<sup>2</sup>), 장진호(46.1km<sup>2</sup>), 부전호(20.3km<sup>2</sup>), 서흥호 등 5km<sup>2</sup> 이상의 호수가 25개 정도 조성되어 있다.

통일부 편, 북한개요(2000), PP.38-40

**참고자료 ②** 북한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국화(國花)

**1. 북한의 국기** 북한의 공화국 국기는 남홍색공화국국기(藍紅色共和國國旗) 또는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別旗)라고 부르는데 이 기는 헌법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졌다. 1947년 11월 중순 김일성은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 결정에 따라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이 위원회 안에 미술가들을 배치시켜 국장과 국기를 만드는 일을 맡겼다.

홍람오각별기는 당시의 헌법 조문 제100조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황으로 가운데가 붉고 아래 우로 희고 푸른 세 빛의 기폭에다가 깃대 달린 편 붉은 쪽의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례는 1대2로 한다.

여기에서 붉은 색은 “전체 인민의 끓는 피로서 부강한 민주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상징하고 푸른 빛은 “계의 광대한 민주역량을 단결하여 화평을 확보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국기는 9월8일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헌법초안이 채택될 때 정식으로 채택, 공포되고 이튿날 9월9일 북한정권 수립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2. 북한의 국가** 북한 헌법 제165조에는 북한의 ‘국가’로 <애국가>가 규정되어 있다. 종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장·국기·수도만 규정되었는데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 새로 명시되었다. 북한 <애국가>는 북한의 상징깃발이 만들어지기 전인 1947년 6월에 이미 만들어졌으며 착수는 훨씬 이전이다.

김일성은 사랑받는 노래,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애국가> 창작방향을 지시함에 따라, 북한의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심의회에 올려진 여러개 가운데서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의 작품이 김일성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3. 북한의 국화**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상징하는 꽃이라면 진달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1939년 5월 어느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공하던 때 진달래가 이들 일행을 맞았으며 그때의 감격을 강조한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4월 10일 목란(木蘭)이라는 꽃을 국화로 지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목란은 본래 함박꽃나무 또는 산목련에 다름아니다. 목란의 학명도 함박꽃이나 산목련과 같은 *Magnolia Sieboldii* Koch이다.

꽃이름이 목란으로 된 것은 김일성에 의해서다. 김일성은 1964년 5월 황해도 정방산의 한 별장에서 이 꽃을 보고는 창덕학교에 다닐 때 이곳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본 일이 있다면서 항일투쟁을 하는 중에도 이 꽃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고국을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꽃을 함박꽃이라 하지말고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좋은 꽃 이름에 ‘란’자를 붙였듯이 이 꽃도 목란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꽃이름이 바뀐 것이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 참고자료 ③ 김일성 사망과 권력구조의 변화

김정일정권의 등장과 함께 북한 정치의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권력구조가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김정일식 통치체제’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권력구조 개편의 중점은 김일성 시대의 국가원수 격이었던 ‘국가주석’제의 폐지이다. 종전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이관시켜 국가기능의 분산·조정을 꾀했다. 과거 주석의 지휘를 받던 정무원은 내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독자적 행정단위로 되었고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김정일을 다시 추대한 것이다. 국방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개정 헌법상에는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김영남의 추대사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도록 한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 권력구조가 외형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국방위원장 3자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형식상의 권한과 책임만을 부여한 특이한 권력구조,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것이다.

통일부 편, 북한개요(2000), pp. 59-72

**참고자료 ④** 북한의 국보 제1호 평양성

남한의 국보 1호는 숭례문(崇禮門, 남대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보 1호는 무엇  
까요? 일부 신문기사나 자료에는 대동문(大同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  
재 북한의 국보 1호는 고구려시대에 쌓은 평양성(平壤城)입니다.

원래 북한의 국보 1호는 대동문(大同門)이었으나 1990년대 말 평양성으로 바뀌었  
습니다. 왜 북한이 90년대 들어 국보급 뿐만 아니라 보물급, 사적 등 문화재의 지정번  
호 평양성(<http://my.dreamwiz.com/ksks77>)를 바꾸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  
습니다.

평양 중구역(中區域)과 평천구역(平川區域)에 있는 고구려 후기의 도성인 평양성은  
원래 이름이 장안성(長安城)이었고 고구려의 최후를 묵묵히 지켜본 성입니다. 1천5백  
여년이나 된 오래된 성이죠.

고구려는 246년 위나라와 싸우면서 수도성인 환도성이 무너지자 이듬해 평양 대성  
산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성으  
로 천도(427년)한 후인 552~586년에는 새 도성(장안성·현재 평양 중구역, 평천구  
역)을 쌓고 다시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성이죠.

평양성 바깥성벽은 금수산의 모란봉을 북쪽 끝으로 하고 서남으로 을밀대, 만수대  
를 타고 보통강을 따라 뻗다가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동북으로 꺾여  
대동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대동문을 지나 다시 모란봉에 이릅니다.

성벽둘레는 16km, 총길이 23km, 성안의 총넓이  
는 11.85km<sup>2</sup>입니다. 성은 내성, 외성(외곽), 중성, 북  
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5개의 큰 문과 기타 작  
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성문으로  
는 대동문(내성 동문), 칠성문(내성 북문), 보통문  
(중성 서문), 전금문(북성 남문), 현무문(북성 서



문) 등이 있습니다. 내성의 성벽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성석편(城石片-성을 쌓았던 돌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를 통해 축성연대와 축성에 동원된 사람들, 공사의 담당 구간, 담당자의 이름과 관직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보물 1호는 평양종입니다. 평양종은 대동문 문루 안에 달려 있었는데 1714년의 화재로 깨진 것을 1726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종의 높이는 3.1m, 직경은 1.6m, 무게는 13.5톤입니다. 1890년대까지 평양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 주고 비상경보를 울리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북한의 국보 제10호까지는 다음과 같은데, 대부분 고구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분과 벽화들입니다.

국보 제2호 : 보통문

국보 제3호 : 강서대묘 (大墓)

국보 제4호 : 강서중묘 (中墓)

국보 제5호 : 강서소묘 (小墓)

국보 제6호 : 약수리 벽화고분 (大獵塚)

국보 제7호 : 연화총 (蓮花塚)

국보 제8호 : 태성리 제1호 고분

국보 제9호 : 태성리 제2호 고분

국보 제10호: 용강대총 (龍岡大塚)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www.enehighway.com>)

**참고자료 ⑤** 북한의 행정구역 및 인구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6도, 9시, 89군이었으나, 1952년 12월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구역 체계 중 면을 폐지하여 도(특별시, 직할시),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

의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고 군 지역을 재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단위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1946년 9월 평양시가 평안남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개편되면서 직할시로 된 이후) 5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99년 현재 9도, 1특별시, 2직할시, 25시, 38구역, 147군, 2구, 3311리, 896동, 251노동자구 8)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부자 및 가계우상화를 위한 지명 개칭과 한국의 행정구역수를 의식한 구역수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 동안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에야 비로소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 기간동안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994. 1. 3~1.15 기간 중 UNFPA의 도움을 받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인구를 2,121만 3,00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근의 자연재해 및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 발생, 영아사망률 증가를 감안한다면 1999년 현재 북한인구는 2,20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북한인구는 97년 현재 2천235만5천명이라 한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60년대는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부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에 와서는 1.40%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사회주의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북부내륙지방인 자강도·양강도에는 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성은 1960년대에서 1993년말 현재까지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38.3%에서 63.1%로, 농장원은 44.4%에서 23.5%로, 비생산직 사무원은 14.0%에서 13.4%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공장·기업

소 근로자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인구정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영아사망률이 증가하고 게다가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라 향후의 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다산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산아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산여성들과 유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에는 37년만에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실시하여 다산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민의 평균수명을 1998년 현재 74.5세로 선전하고 있으나, 식량난으로 인한 영아사망률 증가, 아사자 발생사실과 보건·의료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2.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가. 북한인식의 방향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동시에 남북이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는 아직까지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해 가면서 공존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인식에는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며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다. 탈냉전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인식은 정권담당자와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같은 동포로서 함께 발전해야 하는 이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집단 혹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남북화해시대에 있어 북한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 당국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 공존·공영을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직 남북간에는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문제를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북한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 또는 ‘북한적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매사에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 그 동안 우리는 통일 문제에서 이 상식을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었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다.
- (2)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편견을 반성하고 지적할 수 있다.
- (3)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북한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으로 ‘경계대상’과 ‘동일국가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 (4)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들을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왜 우리는 북한 정권담당자와 주민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과제로 낸 북한 마인드 맵을 발표한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한 북한 마인드 맵을 통해 우리의 눈에 비친 북한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면에 파란색, 부정적인 면에 빨간색을 칠해보게 한다.</li> <li>- 안보와 위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li> <li>-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같은 동포로서의 북한</li> <li>- 경계의 대상이면서 동반자로서의 북한</li> </ul> </li> <li>○ 북한 주민의 생각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사망시 애도하는 평양주민의 사진과 유명가수의 해체후 남한 청소년 팬들의 모습</li> </ul> </li> </ul>	<p>학습지①</p> <p>방송자료</p> <p>학습지②</p>	<p>이중적 입장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명한다.</p> <p>사실과 편견을 구분지어 설명한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적인 북한을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li> </ul>		

라. 학습지

<b>학습지①</b>		학번		이름	
제 목	<b>북한 마인드 맵</b>				
학 습 안 내	☞ 북한에 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마인드 맵으로 그려봅시다.				
					
학 습 안 내	☞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색깔을 달리하여 그 내용을 적어봅시다.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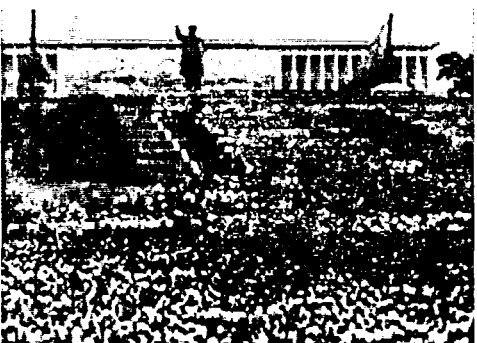

학습지 ②

학번  이름

제 목	<b>내가 가진 북한에 대한 편견</b>		
학 습 안 내	☞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림 A	그림 B	그림 A	그림 B
			
그림A와 그림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그림A와 그림B중 어느것이 더 긴가? →	
학 습 안 내	☞ 내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을 적어보자.		

학습지 ②

학번		이름	
----	--	----	--

제 목	<b>북한! 역지사지의 태도</b>		
학습 안내	☞ 아래의 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김일성 사망후 평양시민의 모습> 	<HOT 해체후 팬들의 모습> 	
	1. 그림의 제목을 정하여 보시오.  2.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모두 쓰시오.	1. 그림의 제목을 정하여 보시오.  2.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모두 쓰시오.	
	☞ 우리가 북한을 바라 볼 때 위 두그림의 비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마. 참고 자료

### 참고자료 북한이해의 두 가지 관점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

외재적 접근법이라 함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외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 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때에는 북한 내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외재적 접근법과 달리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방법론이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문제 이해의 관점으로서 기여한 바 크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관점으로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 보면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채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 인류학의 내관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내관적 접근법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류발전의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 예외적인 국가이지만 나름대로 자체 체제생존 논리하에 북한 특유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이데올로기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며 모든 사회부문을 개방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현상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 자료인데, 이들은 북한의 선전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체제 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성·주관성·개인적 정서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도록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객관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비교분석과 함께 정치논리에 입각한 흑백논리를 넘어서 보다 구체적인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교재는 북한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 군사, 교육, 문화·예술·언어, 사회, 주민생활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북한 이해의 종합적 길라잡이로 저술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시도하였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2000), pp.3-7

### 3.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떠한가?

#### 가. 단원의 개관

분단된 지난 반세기 동안 심각히 진행된 남·북간 이질화 현상은 통일 후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남북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생활을 소개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이해를 돕고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의복 생활을 소개한다.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 단순한 패션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패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양 등 대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다.

둘째, 북한의 식생활을 소개한다. 북한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많으나, 식량난을 겪으면서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을 해 먹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주식은 옥수수이고,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주택 사정을 소개한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되지만, 주택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문화적 우월성을 갖지 않도록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의 어려움을 경제난과 연관시켜 설명한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 사람들의 의복 생활 변천 과정을 안다.
- (2) 북한의 지역 특산 음식을 알고, 식량난 이후 식생활의 변화를 이해한다.
- (3) 북한의 주택 배정 방식과 주택 사정을 안다.
- (4) 남북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비교할 수 있다.



다. 교수 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li> </ul>	자유로운 발표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차림을 우리와 비교해 보고, 북한 패션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까지는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 한복이 일반적</li> <li>- 1979년 4월 김일성 주석의 교시 이후 점차 양복이나 양장 차림의 옷 등장</li> </ul> </li> <li>○ 북한의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을 소개하고,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 : 냉면, 창란젓, 명란젓, 명태순대, 명태식혜, 녹두묵채, 보쌈김치, 새우젓, 김치순두부, 금강산 송이버섯을 이용한 요리 등</li> <li>- 식량난을 겪으면서 주식, 부식이 부족하게 되어 지역 특산 음식을 요리해 먹기 어려움</li> <li>-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 최근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li> </ul> </li> <li>○ 북한 주민들의 주택 및 주거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중간 간부급 이상: 방 2-3칸짜리 아파트</li> <li>· 일반 주민: 방 1-2칸짜리 연립주택</li> <li>· 농민: 방 1-2칸짜리 농촌 단독주택</li> </ul> </li> </ul> </li> </ul>	학습지① 참고자료①  참고자료②  학습지②  참고자료③  참고자료④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경제난과 연관하여 설명하도록 문화이해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정 리	○ ○,× 퀴즈를 통하여 북한의 의식주 생활을 정리해 본다.	학 습 지 ③ 활용	

라. 학습지

학습지 ①

반    번    이름

1. 남한과 북한의 거리 사진을 참고하여, 남북 사람들의 옷차림을 묘사해 봅시다.

	거리 모습	옷차림의 묘사
남 한		
북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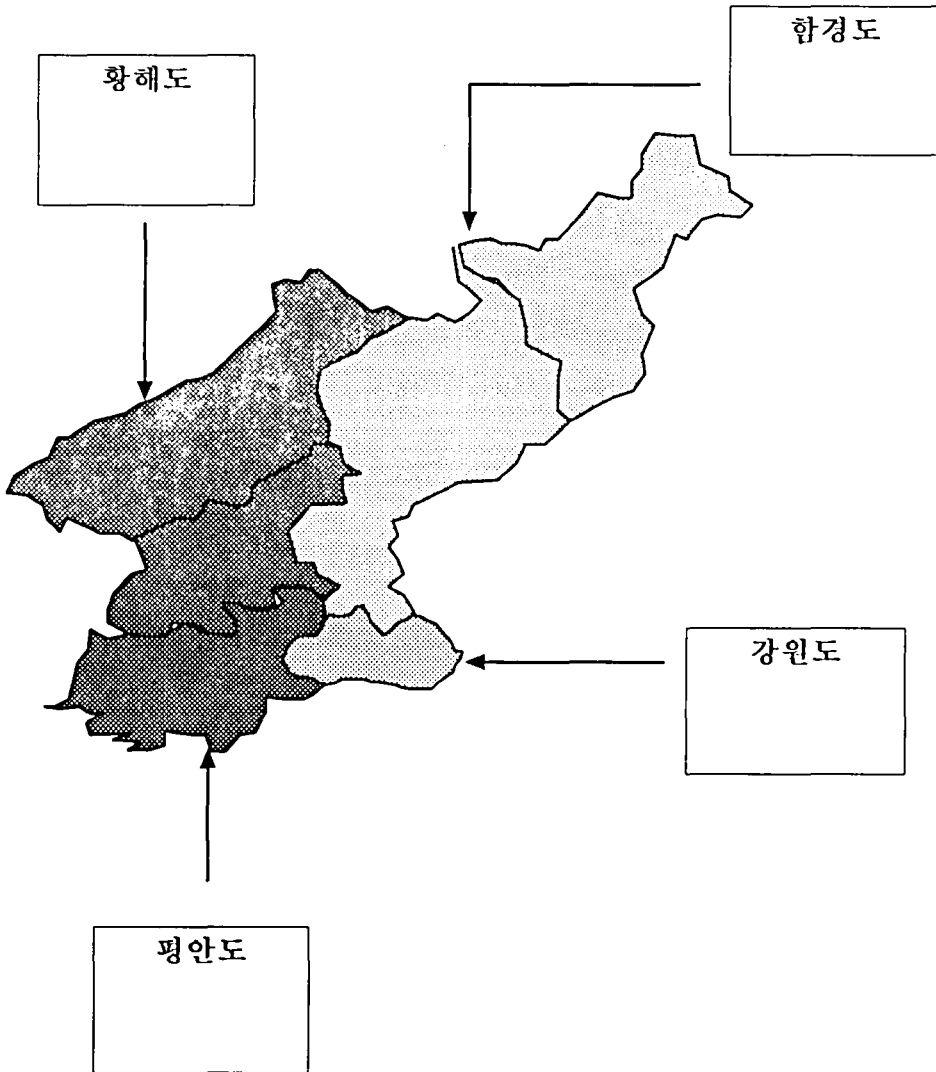
2.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을 기술해 봅시다.

시 기	옷 차 립
1970년대까지	
1979년 4월 이후	
1982년 4월 이후	
1989년 이후	

학습지②

반 번 이름

북한 지역의 음식은 대체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그림에 북한 각 지방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기록해 봅시다.



학습지 ③

반    번    이름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다음 ○, × 퀴즈를 풀어 봅시다.

1. 북한 사람들은 1980년대까지 남자는 ‘모택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었다. ( )
2. 현재 북한의 젊은 여성들도 미니 스커트를 입는다. ( )
3. 북한에서도 패션쇼가 열린다. ( )
4. 평양 이외 다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티셔츠에 청바지 같은 옷차림을 한다. ( )
5. 여성들은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 ( )
6. 북한 주민들의 주식은 쌀이다. ( )
7. 평안도 음식 중에는 냉면이 유명하다. ( )
8. 창란젓, 명란젓, 명태순대, 명태식혜 등 명태를 이용한 음식을 자랑하는 곳은 함경도이다. ( )
9.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배급카드는 각 직장에서 발급받는다. ( )
10. 연립주택이나 농촌 단독주택은 배정 받아 살 수 있지만 아파트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 ( )
11. 북한 주민들은 주택 사용료를 낸다. ( )
12. 북한 주민들은 공동주택을 ‘닭장’에 비유한다. ( )
13. 북한 주민들은 보통 5장(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 6기(TV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사진기, 선풍기)의 세간만을 가진다. ( )

## 마. 참고자료

### 참고자료①

통일 교육원에서 제작한 북한의 패션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iedu.go.kr/matters/info7.html?filename=북한의패션.asf>

### 참고자료② 북한 패션의 변화 과정

현실적으로 의류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행이나 패션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에서도 옷차림과 옷감의 색상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남자는 카키색 인민복을, 여자는 검은 통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복차림의 남자나 검정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은 여자들을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남성들의 경우 대체로 의출시 신사복을 착용하고 여성들은 비교적 밝은 색상의 양장이나 스웨터 차림을 주로 한다.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말부터이다.

1978년 10월 평양에서 사상처음으로 1백60여종의 남녀 성인복과 아동복 등을 진열해 놓은 「옷전시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듬해인 1979년 4월에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의 인민들에게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착용케 해야 한다」고 교시, 북한주민들의 옷차림의 변화를 유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 9월에는 평양에서 발행되는 여성전문지 <조선여성>은 의복에 대해 「사람들의 품격과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정의하고 옷차림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대감각과 개인의 기호 나이 체격 취미 등에 맞게 옷차림을 다양하게 할 것을 제시, 옷차림 변화의 구체적 방법을 밝혔다.

중앙일보, 북한백과([http://nk.joins.com/nk/nk\\_soci.asp](http://nk.joins.com/nk/nk_soci.asp))

### 참고자료③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현황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농경지의 부족에 따른 식량부족 현상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식량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1982년 김일성은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하고 1986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변경 사용하는 등 식량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 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해 ‘1,500만톤 알곡고지점령’, ‘30만정보 간척지 조성’, ‘20만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군 칭호쟁취운동’ 등의 각종 사업과 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1992년을 ‘대농의 해’로 지정하는 등 식량증산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이 실패로 종료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다시 원충기(1994~96)중점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앞세우고 농업생산력 제고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주민들에게 주로 쌀과 잡곡을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4에서 3:7 정도의 배합비율로 배급해 왔으며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 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양표'라 불리는 양권을 미리 발부받아 매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양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양표를 식당에 제시해도 매식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된장, 간장, 식용유, 소금 등 부식의 경우는 인민반을 통해 배급표가 나와 식료품 상점에서 유상공급을 받고 있으나 1995년 이후 배급이 중단되었고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조금씩 배급이 재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부식의 경우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 먹는다. 특히 고기류는 국가적 명절에 특별배급을 통하여 할당되는데, 이를테면 김일성부자 생일, 노동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등을 수급사정에 따라서 공급품목과 수량을 다소 달리하여 배급하고 있다.

중앙일보, 북한백과([http://nk.joins.com/nk/nk\\_soci.asp](http://nk.joins.com/nk/nk_soci.asp))

#### 참고자료④ 북한의 주택사정

북한은 평양시(약 3백40만명 거주)의 경우 15만세대, 강계시(약 30만명 거주)의 경우 2만 5천세대가 무주택 세대일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은 결혼한지 4~5년이 지나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방 한칸에서 3대가 동거하거나 장모 처남 처제 등과 동거하는 사례도 있다.

주택배정은 최초의 입주자에게 주는 입사권과 이후 입주자에게 방 한칸을 주는 「동거살이」 등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동거살이란 주택난으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주거확보를 위해 북한이 만들어 낸 특이한 주택배정 제도이다.

입사권배정 등 주택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각 시·군의 행정경제위원회의 도시경영과에서 관장하며 직장이동 등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입사권을 관할 도시경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입사권을 주택담당관리원의 묵인하에 동거자나 친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암거래하는 변칙적인 주택배정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입사권을 암거래하는 방법은 이사할 사유가 발생한 입사권 소유세대가 돈은 있으나 집이 없는 자를 물색하여 입사권 양도를 약속하고 동거살이 세대로 위장 입주시킨 뒤 해당 시·군 도시경영과에 가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000세대에게 입주권을 넘겼으면 좋겠다』 『친척 000에게 입주권을 넘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 일을 성사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입사권 암거래가 성사되면 주택관리담당원에게 입사권거래액의 10%를 뇌물로 상납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주택매매가격은 마당이 있는 재래식 단독주택(속칭 「땅집」이라고도 함)의 경우 13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한다. 주택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일반주민의 경우 방 1칸에 부엌 1칸의 2칸주택에 사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며 대부분 방 2칸에 부엌 1칸의 3칸주택에 2가구가 함께 동거살이를 한다.

주택사정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의 주택건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내각의 과장급 이상 각급 공장 및 기업소의 당비서급 이상 간부들에게 택지를 공급해주고 개인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건축자재 확보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당간부들은 직접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은 채 비교적 재력이 있는 일반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인계받고 그 대가로 택지를 양도해주고 있다. 택지를 양도받은 일반주민은 필요한 건축자재를 암거래로 구입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합법적인 입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 도시경영과 실무자에게 1천원 정도의 뇌물을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2세대 거주용 단층주택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은 대략 뇌물을 포함해서 북한돈 1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주민들이 임의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공건물사업소에서 국가에 헌납을 강요하고 만약 헌납치 않을 시 국토관리사업소에서 주택을 몰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을 건축한 일반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택 입사증을 발급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해외동포 실업가 및 귀국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조건으로 주택 건축과 이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정 액 이상(미화 5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현금했을 경우는 주택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의 수입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화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현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주택난이 심화되자 1980년대 이후 평양시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분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공급규정에 의거해 이들 신형아파트를 대부분 당·정고 위간부들이나 특수계층의 사람들 위주로 배정하는 데서 오는 특이한 현상이다.

평양의 경우를 보면 중구역 창광거리는 중앙당 및 내각 간부들이, 중구역안상택거리는 국가에 외화를 헌납한 재일동포가족들이, 만경대구역 광복거리는 인민군 고위 군관이나 출판보도부문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중앙일보, 북한백과([http://nk.joins.com/nk/nk\\_soci.asp](http://nk.joins.com/nk/nk_soci.asp))

#### 4. 북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떨까?

##### 가. 단원의 개관

북한의 경제 체제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 생활도 남한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직업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 주민들의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직업선택은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급 계획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진다.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배급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북한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국가에 의한 배급에 의해 충당한다. 그러나, 국가가 주민들의 수요를 완벽히 예측하여 배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급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북한의 사적 경제 영역의 확장을 알아본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기초 생필품조차 배급받기 어렵게 되자, 사적 경제 행위가 늘어나게 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 주민들의 직업 선택과 직장 생활에 대해 안다.
- (2) 북한의 배급제도를 이해한다.
- (3) 북한의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 영역의 확장을 설명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북한 경제 체제와 남한 경제 체제의 차이점을 질문하고, 학생들이 아는 대로 대답하게 한다.</li> </ul>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람들의 직업 선택과 직장 생활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li> <li>-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노동법에 명시하나, 현실적으로 남성 노동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근무(2시간은 정치학습)</li> </ul> </li> <li>○ 북한의 배급 제도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에 따라 차별화한 공급품 제공</li> <li>- 주민들의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gt; 배급량이 모자라는 경우 많음</li> </ul> </li> <li>○ 배급 제도의 불완전성과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적 경제 영역이 성장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배급을 통해 구할 수 없으면 장마당을 활용하거나 국가 소유의 상품을 훔침</li> <li>-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 기구의 마비로 암시장 확대</li> </ul> </li> <li>○ 북한의 장마당에서의 물건거래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li> </ul> </li> </ul>	<p>참고자료① 학습지①</p> <p>참고자료② 학습지②</p> <p>참고자료②</p> <p>참고자료③</p> <p>학습지③</p>	<p>형식적인 규정과 현실상의 차이를 설명한다.</p> <p>배급 제도의 붕괴와 연결해서 설명</p>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체제의 차이로 남북 주민들의 경제 생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반	번호	이름
---	----	----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은 남과 북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북한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표에 남한과 북한의 직업 선택의 특징과 기준을 적어 보고, 남북의 직업 선택 방식이 개인과 집단에 가지는 장 단점을 적어 봅시다.

구 분		남한	북한
직업 선택의 특징과 기준			
개 인	좋은 점		
	나쁜 점		
집 단	좋은 점		
	나쁜 점		

학습지②

반 번호 이름

다음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일과표입니다. 남한 주민들의 일과표를 만들어 비교해 봅시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일과표>

구 분	노동자 사무원	학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 독보회	06:50-07:00 07:00-07:3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정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수·목) 생략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점 심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침	13:00-14: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후작업(수업)	14:00-18:00	14:00-16:00	
작업총화	18:00-19:00	16:00-18: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남한 주민들의 기본 일과표>

구 분	근로자 사무원	학생	비 고

학습지③

반 번호 이름

다음 북한 농민 시장에서의 주요 품목 가격표를 보고, 일반 노동자의 한달 평균 임금(80-100원)에 해당하는 100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봅시다.

분류	품목	단위	국정 가격	2000가격
곡물류	쌀	kg	8전	47원
	강냉이알	kg	6전	27원
	밀가루	kg		43원
육어류	돼지고기	kg	3원40전	130원
	계란	개	17전	12원
	말린 명태	마리		39원
채소 및 과일류	배추	포기		8원
	미역	kg		67원
	사과	개	50전	23원
조미료	소금	kg		19원
	된장	kg		50원
	고추가루	kg		274원
간식 및 기호품	빵	개		12원
	꿀	500g		279원
	맥주	병		53원
기타 생필품	페니실린	병		25원
	세수비누	개	17전	64원
	셔츠	벌		614원

최근 농민시장(장마당)에서의 주요 품목 가격 (1원=100전)



우선 순위	필요한 물품	수량	가격
1			
2			
3			
4			
5			
6			
7			
8			

## 마. 참고자료

### 참고자료①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회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 소속을 두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로보장을 받은 노인이나 전업주부, 기타 질병을 앓는 환자 등 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학교·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15일 이상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을 통해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분주소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분주소 기능을 하는 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노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자는 원칙적으로 조선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여자와 60세 이상의 남자는 직장에서 물러나 연로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에 해당하는 가두여성이 될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형태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학력과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물론 직장배치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와 집단의 필요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직장배치를 할 때에는 간부사업의 대상자와 노동자를 구분한다. 간부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군 당 간부부에서 관장하며 노동자는 해당 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한다. 직장배치 대상자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대학 졸업생, 제대군인 등 3개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대학이나 군대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받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각 개인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청년동맹이동중과 군사이동중, 식량정지증명서<sup>1)</sup> 등 다른 서류와 함께 졸업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한다. 한편 노동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졸업생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간혹 이 과정에서 탄광이나 염전, 철도 및 도로 건설장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특정 지역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집단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간부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당 간부부와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지만 소위 중앙에 속한 대학 졸업생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 직접 관할한다. 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는 대학 당 위원회에 지도원을 보내 졸업생 각 개인을 만나 그 사람의 출신성분과 사상, 학업성

---

1) 북한주민들은 진학이나 직장배치 등으로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옮겨 갈 때에는 그 동안 소속해 있던 단위에서 받아 오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새로 소속하게 될 단위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을 식량정지증명서라고 하는데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직장배치를 받기 전에 그 동안 세대주의 직장을 통해 받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적, 재학 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을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업성적, 사상, 재학 중의 정치활동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직장배치를 받는다. 졸업생 개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해당 도에 가서 알게 된다고 한다. 한편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는 각 도와 직할시의 노동처에서 직장배치를 받게 된다.

제대군인의 경우 사병과 군관의 직장배치가 다르다. 사병의 경우 출신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소속부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 지도원이나 사무원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공장이나 탄광 등지로 '집단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위 이상의 군관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은 간부사업의 대상으로서 출신지역 시·군 당 간부과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주로 출신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직장을 배치 받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직장이동이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옮겨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부르는 사무원 등을 통칭하여 근로자라 부르는데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로동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로동수첩이란 근로자 개인의 직장경력을 연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법적 문건으로서 노동경력, 기술자격, 표창여부, 휴가관계 등을 적어 놓아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북한이해, pp. 234-237

**참고자료②**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다음의 표는 1980년대 말까지 배급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당시의 배급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당성분	공급량	공급처	비고
매일공급 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 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요원 등	쌀700g(백미: 잡곡,10:0) 잡곡 4가지, 육류 15~ 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공급 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원총리, 제1호 부고급장교, 장성급장교 등	식량 700g (3:3) 잡곡 3가지, 육류, 야채, 맥주, 담배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비슷)	당재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공급 대상자	정무원부장, 부부장,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정무원 각 부처, 항일투사유가족, 영웅칭호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7:3 또는 5:5), 육류 1kg~6kg, 생선 1kg~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카드 제시(1호~4호 공급소)	관직 소유자
인민반 공급대상자 (15일마다 배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g(2: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에 1kg(실제3~4개월), 육류 명절 특별배급(1~2kg), 기타는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 없는 일반 인민

※자료: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94, p.151 수정 정리.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북한이해, p. 219

## 참고자료③

## 농민시장(장마당)

농민시장은 농민들이 개인 밭이나 텃밭 등 집에서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매매하는 시장이다. 농민시장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암거래가 생겨나면서 활성화되었고, 1980년대 말부터 암거래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각종 생필품의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조달 및 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농민시장은 현재 북한의 농산물 유통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영상점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농민시장이 점차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제 농민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고용창출, 식량난 완화, 지역간 물자공급 불균형 완화 및 재분배 효과 등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998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126억달러의 약 27%에 해당하는 34억2000만 달러가 농민시장과 암시장 등 '시장경제부문'에서 달성됐다("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남성욱·문성민, 2000년 8월)는 분석도 나왔다.

1990년대 후반 극심한 경제난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시장과 암시장 등 시장경제요소를 지닌 이른바 '비공식 경제부문'이 북한 전체 경제활동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민시장(암시장 포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조선일보, NK데이터베이스(<http://nk.chosun.co.kr/glossary/glossary.html>)

##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은 어떨까?

### 가. 단원의 개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가 및 문화 생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의 여건과 북한 주민들이 즐겨하는 여가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의 여건을 설명한다. 북한 주민들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아울러 근로단체 활동을 병행해야 하고, 휴일에도 각종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또 설령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둘째, 제한된 여건 속에서의 북한 사람들이 즐겨하는 여가 생활을 다룬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보통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 수단은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영화 감상이다. 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주변의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다. 그밖에 마작 같은 것을 하거나, 가끔 야외에 나가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한편, 우리의 대중가요가 은밀히 들려지기도 한다.

이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북한 주민들의 즐겨하는 여가 및 문화 생활은 북한의 여가 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갖거나, 이것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 (2) 북한 주민들이 즐겨하는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 (3) 평양 및 대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화 생활의 차이를 이해한다.
- (4) 북한에서 우리의 대중가요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관심을 유발한다.</li> </ul>	참고자료①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사람들의 여가 시간 부족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생활과 조직 생활의 병행으로 여가 시간 부족</li> <li>- 휴일에서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li> <li>- 여건이 된다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함</li> </ul> </li> <li>○ 북한 주민들이 즐겨하는 여가 생활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영화</li> <li>- 야외에서의 노래나 춤</li> <li>- 공원이나 유원지 이용(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li> <li>- 직장이나 지역 단위의 문화회관의 체육 및 오락시설 이용(지방)</li> <li>- 볼링장, 골프장, 노래방 이용(평양에 거주하는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li> </ul> </li> <li>○ 그 외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생활을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 축구, 농구, 마라톤, 탁구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li> <li>- 한국 대중 가요도 은밀히 유행</li> </ul> </li> </ul>	학습지① 참고자료②          참고자료③ 학습지②	‘여가’의 의미를 먼저 간단히 설명          대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문화 격차를 염두에 두고 설명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려 하지만,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부족하다.</li> </ul>	학습지③	

라. 학습지

학습지①

반    번    이름

북한은 주민들이 즐겨하는 여가 생활인 영화를 교육과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다음 영화 줄거리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해운동의 두 가정(1996년 제작)



금속공장 기술준비실 실장 학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호에 주인공 류진이 이사를 와 이웃하여 살게 된다. 학영은 준박사가 된 후, 그 명예를 가지고 아내와 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을 우선으로 여기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류진은 용접봉의 원료인 니켈이 비싼 외화를 들여 사오기 때문에 무니켈 용접봉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정의 단란함보다 그 연구사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장의 배려도 없는 삭막한 가정생활을 고통스러워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정의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나라의 부강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열정을 바쳐 연구한 결과 니켈을 쓰지 않고도 효율을 2배로 높이는 무니켈 용접봉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전국 발명품 전시회에서 그의 아내는 그를 대신해 박수갈채를 받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1. ‘학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무엇입니까?
2. 북한이 이 영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지②

북한에서는 우리의 대중가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곡은 그대로 살리고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북한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통일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 봅시다.

원래 가사	바뀐 가사
노래명 :	노래명 :

학습지 ③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비교대상	남한 주민	북한 주민
여가 시간을 갖기 힘든 이유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하는 여가활동		
시골 지역에서 주로 하는 여가 활동		
일부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하는 여가 활동		
일반 주민들이 하는 여가 활동		
인기있는 스포츠		
기 타		



마. 참고자료

참고자료①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관한 사진을 볼 수 있는 곳

- 중앙일보 북한네트 사진  
([http://nk.joins.com/media/pic\\_list.asp?part=100&class1=400&class2=440](http://nk.joins.com/media/pic_list.asp?part=100&class1=400&class2=440))
- 조선일보 NKchosun.com 사진  
([http://nk.chosun.co.kr/photo/photo.html?ACT=thumb&cat\\_id=110](http://nk.chosun.co.kr/photo/photo.html?ACT=thumb&cat_id=110))

참고자료②

북한의 영화

북한영화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선전의 수단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 지도자를 위한 헌신적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다. 연간 20편 내외의 극영화를 제작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교육용 기록영화나 과학영화 등을 제작하는 기록과학영화 촬영소 같은 일체의 영화시설을 정부가 운영하며, 유능한 배우나 감독을 선정, 인민배우 또는 공훈배우로 대우하는 것은 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한 <내 고향>(1949)을 사실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북한 영화는 가부장적 권위에 바탕을 둔 스토리 중심의 멜로 드라마라는 기본 틀을 충실하게 지킨다. 지도자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배려, 인민의 절대적 존경과 충성은 자상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와 성실하며 의젓한 자식같은 관계를 만든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예외없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며 지도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한다.

또한 어떤 영화든 설명적이다.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만사가 순조롭게 되었더라'는 식이다. 상황이나 감정의 표현도 대부분 대사로 처리한다. 영화의 주제도 그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강조된다. 연출보다 시

나리오가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북한영화의 주조는 항일투쟁 역사나 이념선전, 권력기반 강화 등을 강조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청춘남녀의 사랑이나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무능한 무사 안일을 조장하는 관료주의적 타성 등의 문제점을 다루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춘향전> 전·후편(1980)이나 <사랑 사랑 내 사랑>(1984)같은 영화들이 고전에서 사랑을 끌어낸 경우이고 <내가 사랑하는 처녀>(1992)나 <자매들>(1994)은 계층적 신분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난 '건전한 사랑'의 현대적 모습을 제시한 경우에 든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예술영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의 경우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지는 기치 아래 1973년 초부터 각 생산단위에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전형으로 한 '〈피바다〉 근위대원'과 '〈꽃파는 처녀〉 근위대원'이 조직되었다. 예술작품 속에서 구현된 '주체형의 인간'을 현실로 연장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북한 문학예술의 중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당에서 지정한 영화는 직장,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감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화를 본 후에는 '영화실효투쟁'이라 하여 감상을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리며, 어떻게 하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의견을 교환한다. 영화 주제를 부르는 콩쿨이 열리며, 중요한 영화의 대사는 프린트해 학습자료로 사용하며, 유명한 것은 암기하도록 요구받는다.

북한이 영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화폐에 영화장면사진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1원권 지폐 뒷면에는 <꽃 파는 처녀>의 주인공 홍영희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피바다>의 주인공 양혜련이 빨치산에게 진입로를 터주는 장면이, 왼쪽에는 <어느 자위대원의 운명>의 주인공 엄길선이 오른손에 소총을 높이 들고 절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 NK.chosun.com

## 참고자료③

## 북한의 인기 스포츠

북한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는 농구와 축구, 탁구 등이다. 학교,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별로 체육에 취미를 가진 자들끼리 모여 구성한 「체육소조」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게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대표 여자축구는 아시아권에서 상위 수준에 있다.

관전 종목 중 인기 있는 것은 권투와 마라톤이다. 권투는 1992년 7월 프로권투협회를 결성하고 1993년 3월 「93년 공화국 프로권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프로선수는 60여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 프로종목은 남녀 레슬링이 있다. 이 레슬링은 예상외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기계체조도 외국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에 힘입어 인기 있는 편이다.

한편 과거 자본주의적 퇴폐로 비난했던 야구, 소프트볼, 볼링, 골프, 수상스키 등에 대해서도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1987년 4월 골프협회가 결성되는 등 다소 용인되는 분위기이다.

투구(럭비)도 1989년 도입되어 김책공대 및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체육단 등 3개 팀이 결성되었다. 김정일은 체육종목 가운데 권투와 사격, 레슬링, 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종목이 「인민의 투쟁정신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중앙일보 북한네트 북한백과(nk.joins.com)

## 6.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어떨까?

### 가. 단원의 개관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공식적 규범체계와 비공식적 규범체계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는 이점에 유의하면서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방송, 명절생활을 다룰 것이다.

첫째, 해방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들의 활동을 재개시키면서 종교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북한의 방송은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유력한 사상적 무기이자 가장 대중적인 선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곧 조선노동당이 방송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내용면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9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족 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 김부자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4대 민족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 단오, 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본 단원을 수업하면서 교사는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 방송, 명절생활의 모습과 실제적인 생활모습의 차이에 유의하면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 (1) 북한의 종교생활의 특징을 안다.
- (2) 북한방송의 상황을 남한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3) 남북한의 명절을 비교할 수 있다.



라. 학습지

학습지①

학번		이름	
----	--	----	--

제 목	<b>북한의 종교생활 퍼즐</b>																																																																																																				
학 습 안 내	☞ 교과서 내용과 인터넷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종교생활에 관한 퍼즐을 만들어 옆사람과 교환하여 풀어봅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20px;"> <span><input type="checkbox"/> 가로줄</span> <span><input type="checkbox"/> 세로줄</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 (            )가 만든 북한의 종교생활 퍼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5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학습지 ②

학번		이름	
----	--	----	--

제 목	<b>남북한 방송 비교 하기</b>
학 습 안 내	☞ 남북한 방송국의 하루 평균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찾아보자.

■ 남북한 방송 프로그램 비교

프로그램 내용	방송국	조선중앙TV			
		방송시간(분)	비율(%)	방송시간(분)	비율(%)
영화		91	30.8		
뉴스		54	18.3		
가극(음악)		51	17.3		
스포츠		40	13.6		
어린이		25	8.5		
교양		25	8.5		
해설		9	3.1		
여행		0	0		
전체		295	100		

(강현두, 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p.196)

1. 남북한 방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① 하루 평균 방송시간 : 남(            ), 북(            )
- ② 가장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 : 남(            ), 북(            )
- ③ 북한에도 광고가 있을까?

2.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작성해보자.





## 마. 참고 자료

### 참고자료①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전에 기독교, 천주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북한에서의 종교는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유일사상 체계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정적·상대적 가치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가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종교관은 김일성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sup>2)</sup>,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up>3)</sup>라고 발언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에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키면서 종교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정책의 변화는 남한 종교인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종교단체의 결성 및 활동에 관한 것이었지 순수한 종교활동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서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서 그 계기는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의 영향이었다.

2) 『김일성저작선집』 1권, p.173.

3) 『김일성저작선집』 5권, p.154.

북한은 이 시기에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 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 신설과 사찰복원·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종교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종교단체를 활용하여 서구권에 접근하거나 통일전선 전략에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주민생활에서의 종교활동의 자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종교단체들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노동당의 외곽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선전활동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내외 성명서 채택, 국제적인 종교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을 뿐 포교 등 순수 종교활동은 전무한 편이다.

종교단체 현황

단체명	시기	현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li> <li>○ 회장: 장재언(장재철)</li> </ul>
조선불교도 연맹	1945.12	○ 북조선 불교도연맹으로 발족('66년-'71년: 잠적)
	197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명칭으로 출현</li> <li>○ 위원장: 박태화(박태호)</li> <li>○ 사찰 60여개, 승려(대처승) 300여명, 신도 1만여명</li> <li>○ 교육기관: ('89년 양강도 중흥사 →'91년 평양 광법사)</li> </ul>
조선그리스도교연맹	1946.11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발족('64년-'73년: 잠적)
	1974년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현
	19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명칭으로 개명</li> <li>○ 위원장: 강영섭</li> <li>○ 교회 2개(봉수교회: '88년, 칠곡교회: '89년), 가정교회 520여개, 신·구약성서 및 찬송가 출판('83년-'84년), 성경진서 및 찬송가 출판('90년), 목사 20여명, 전도사 130여명, 신도 1만2천여명</li> <li>○ 교육기관: 평양신학원('72년-'95년)</li> </ul>

단체명	시기	현황
조선카톨릭교협회	1988.6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출현
	19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명칭으로 개명</li> <li>○ 회장: 장재언(장재철)</li> <li>○ 성당 1개(장충성당: '88년), 신도 3,000여명, 신부·수녀 없음.</li> </ul>
조선천도교회 중앙지 도위원회	1946.2	○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으로 발족 ('49년-'73년: 잠적)
	19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명칭으로 출현</li> <li>○ 위원장: 유미영</li> <li>○ 신도: 1만 5,000여명</li> </ul>

한편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종래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해석 및 개념을 순화내지 삭제하는 등 변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표와 같다

종교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 1981년판	조선말대사전 1992년판
기독교	낡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리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트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리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또한 북한은 1998년 개정헌법 제68조에서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만 삭제하였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관련 규정은 종래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소위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반동적 음모와 책동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sup>4)</sup>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sup>5)</sup>

북한개요(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pp.542 - 546

4)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 (평양: 노동당출판사, 1959년)

5) 미 국무부가 1999. 9. 9 발표한 『'99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도 북한에는 진정한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자료② 북한 방송 현황

먼저 TV방송은 VHF대에서 12개 채널과 UHF대에서 70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송신방식과 주파수 그리고 채널당 帶域幅이 서로 상이하다. 남한은 현재 NTSC-M 방식으로 6MHz 대역폭을 북한은 PAL-D 방식으로 8MHz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NTSC 방식은 한 화면에 525개의 走査線을 북한의 PAL 방식은 625개의 주사선을 쓰고 있다. 이러한 송신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남북한 TV방송은 상호수신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조선중앙TV, 만수대TV, 교육문화TV, 개성TV 등 4개 TV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성TV는 대남선전용이다. 개성TV는 남한의 송신방식인 NTSC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서울과 중부권을 잠재적 가시청권으로 상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의 기간방송으로서 하루 6시간씩 방송하며, 일요일에는 8시간, 월요일에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 만수대TV는 평양지역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5시간씩 방송을 하고 있다. 1997년에 신설한 교육문화TV는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10시간을 방송하고 있다(강현두, 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pp. 160~161). TV 수상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만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강현두, 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p.200)

북한은 라디오 방송으로 조선중앙라디오, 평양유선라디오, 평양라디오, 평양FM라디오, 구국의 소리 방송 등 5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중앙라디오는 중파 3개 단파 4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 22시간씩 방송하고 있다. 평양라디오는 국내방송과 대남방송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한 평양FM라디오는 평일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8시간 휴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대남선전용 방송의 성격이 강하다. 구국의 소리 방송(구 통일혁명당방송)은 남한내의 반체제 단체가 마치 남한 어딘가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월북자들의 서울식 발음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 비서국 대남사업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강현두, 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pp. 159~160). 이처럼 북한의 라디오 방송은 대부

분 대남 선전용이다.

라디오 수신기는 1995년을 기준으로 380만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무선방송보다 유선방송으로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널을 대부분 봉인하여 채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남한방송 청취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개인 청취보다는 교육목적의 집단청취가 일반적이다(김 용, 1996, 「체제 접근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남북한 방송의 개방과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2~13)

설비면에서도 남한의 라디오 방송망이 대부분 중·소출력인데 반해 북한의 라디오 방송망은 대남선전 목적을 고려해 대부분 고출력이다. 곧 남한이 ITU에 등록한 송신주파수 140여개 가운데 전파월경이 가능한 100KW이상의 송신출력을 가진 주파수는 14개에 불과한 반면, 북한이 ITU에 등록한 송신주파수 130여개 가운데에는 23개가 100KW 이상이다. 100KW 이상 중파 송신시설은 남한의 약 2.5배에 달한다(송재극, 1992, 「남북한 통신 연구」, 대한전자공학회, pp. 44~47)

북한의 방송은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유력한 사상적 무기이자 가장 대중적인 선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곧 조선노동당이 방송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내용면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방송 역시 이제까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자율성을 키워 온 점에 대비해 볼 때, 그리고 우리 언론의 상업적 성격에 대비해 볼 때 북한방송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방송이 방송기술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러한 방송의 성격과 내용상 차이라 말할 수 있다.

조선중앙TV와 만수대TV의 프로그램 중 영화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영화는 주로 기록영화, 선전영화, 영화뉴스로서 주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기, 노동당 건설사 등이다. 두 방송사간에 차이도 드러나는데 만수대 TV의 경우 예술, 영화전용 채널인 까닭에 교양이나 해설 프로그램의 비중이 적다. 새로운 채널인 교육문화TV의 경우 문화, 체육, 교육소식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최근 북한주민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사회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조선중앙라디오의 경우 교양이, 평양방송의 경우 뉴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양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 이론 소개, 자본주의 모순 선전, 주체사상 소개,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찬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양라디오는 대외(대남)방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주체사상 교육 프로그램과 선전방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한관련 내용을 포함한 해외 뉴스의 비중이 높다. 1989년부터 시작한 평양FM라디오의 경우 대남용의 성격이 강하며 서울까지도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다. 이 방송은 국내 가곡과 외국 고전음악을 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극의 형태로 김일성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교양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훈, 북한방송의 개방과 남북한 방송교류의 기본방향  
(<http://www.nanet.go.kr/nal/3/3-1-2/issu-157.htm>)

### 참고자료③ 북한의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을 총칭<sup>6)</sup>하고 있는데,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전통 민족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 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선전적 조치로 보인다.

6) 『조선말대사전』 1권(1992), p.1104.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9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족 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 김부자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4대 민족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 단오, 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국가 명절 및 민족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족명절	
설날		1.1	2일 연휴(1.2은 휴무일)
음력설날		1.1(음)	휴무일
김정일 생일	2. 16		2일 연휴(2.17일은 휴무일)
국제부녀절	3. 8		
한식		4. 6	휴무일
김일성 생일	4. 15		2일 연휴(4.16일은 휴무일)
국제노동자절	5. 1		
단오		5. 5(음)	휴무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 27		
해방기념일	8. 15		
추석		8.15(음)	2일 연휴(8.16은 휴무일)
정권창건일	9. 9		
노동당창건일	10. 10		
헌법절	12. 27		
계	9회	5회	총 14회, 18일

그러나 민족명절의 경우는 휴무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대신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휴’라고 일컫고 있다.

북한의 명절은 전래명절 부활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부자 우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일성부자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예술공



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생존자와 같이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0여 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해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거나 노력동원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개요(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pp. 164-467

#### 참고자료 ④ 북한의 민속놀이

① 북한은 경기놀이·겨루기놀이·가무놀이·어린이놀이 등 4가지로 분류

· 경기놀이

-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줄당기기, 활쏘기, 말타기, 격구) 등이 포함
- 북한은 1994년 처음으로 ‘텔레비전 민족씨름경기’ 를 개최하고 중앙 TV를 통해 녹화 중계하였다. 이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황소나 송아지 한 마리씩이 상품으로 수여되는 등 우리의 민속씨름 경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 겨루기 놀이

- (옷놀이, 장기, 바둑) 등
- (옷놀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놀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으로서 “조선 인민이 가장 즐겨 논 민속놀이의 하나” 라고 함
- (바둑)과 (장기)를 놀이과정에서 사람들의 사고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놀이라고 하여 마을회관이나 직장에 (바둑판과 장기판)을 준비
- 장기판은 우리 것에 비해 4배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말은 모두 한글

· 가무놀이

- (농악놀이, 탈놀이, 꼭두각시놀이, 불꽃놀이, 화전놀이, 강강수월래, 길쌈놀이) 등
- 농악무는 민간무용의 하나로서 균중성이 있고 낙천적이며 흥미있는 좋은 무

용이라고 평가

· 어린이 놀이

- (연떡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줄넘기, 바람개비놀이, 숨바꼭질, 공기놀이) 등
- 북한의 학생들은 방학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줄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을 함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의 실제(중학교용 2001)

민속놀이의 변형

시 기	내 용
6·25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민속놀이 존속</li> <li>- 그네, 씨름(단오)</li> <li>-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음력설)</li> <li>-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li> </ul>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li> <li>- 농악을 행사에 이용(5·1절, 8·15 등)</li> <li>-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달리기 장려</li> </ul>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형태로 변형</li> <li>-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li> <li>-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은 미군)</li> <li>-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li> </ul>

북한개요(2000), 통일부 정보분석국 pp. 468

## 7.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떨까?

### 가. 단원의 개관

중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통일 교육의 내용 중에서도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교육제도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 학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교육체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학교와 교육제도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육체계와 비슷하지만,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지 않고 고등중학교를 6년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북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13-18개의 과목을 배우며 총23개의 과목을 학습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이 높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유의점은 북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북한 학생의 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1.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남북한 교육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4. 남북한 학교 교육의 이질화 극복이 중요함을 실감하고 노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전개	<p>○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과 교육제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p> <p>○ 북한의 학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조사해 보자.                      -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7년                      - 실업계 중등교육이 없음</p> <p>○ 북한의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비교해서 조별로 발표해 보자.                      - 인민학교 12과목                      - 고등중학교 23과목                      (각 학년별로 13 - 18과목 수강)</p> <p>○ 북한의 개학과 방학은 언제인가?                      - 4월부터 상학기(1학기)                      - 9월부터 하학기(2학기)                      -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음</p>	<p>학습지①</p> <p>학습지 ②③ 참고자료⑨</p>	<p>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p> <p>다른 조의 발표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p> <p>인터넷을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지도한다.</p>
정리	○ 남북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다음 표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문제의 답을 쓰고, 남북한 교육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연령	남한	북한
27	대학원(석사, 박사)	박사원 □□□ (2년-4년)
26		
25	의과대학교(6년) 일반대학교(4년) 전문대학(2년)	대학(4-7년) 단과대학(3-4년) 고등전문학원(2-3년)
24		
23		
22		
21		
20	고등학교(3년)	□□□□□□(6년)
19		
18	중학교(3년)	□□□□□□(4년)
17		
16		
15		
14	초등학교(6년)	유치원 □□□ (1년)
13		
12		
11	유치원 낮은반 (1년)	유치원 낮은반 (1년)
10		
9		
8		
7		
6		
5		

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 퀴즈	
1. 북한 인민학교는 6년제이다.	( )
2. 북한의 의무교육은 11년이다.	( )
3. 북한의 고등중학교는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것이다.	( )
4. 북한에는 공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가 많다.	( )
5. 북한에서는 직업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
6. 북한의 기술교육은 주로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 )
7. 북한에서 기술교육은 중등교육(고등중학교)를 마친 후 이루어진다.	( )
8. 북한의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나뉘어지는데 높은 반만 의무교육이다.	( )

\* 남북 교육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하시오.

차 이 점	
공 통 점	

학습지②

\_\_학년 \_\_반 \_\_번 이름 : \_\_\_\_\_

다음은 북한 고등중학교 제2학년에서 배우는 「조선력사」 교과서의 11과에 나오는 이성계 관련 내용이다. 우리의 국사 교과서에서도 이성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다음의 질문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리성계는 정치적실권을 들어온 다음 왕까지도 제마음대로 때거나 올려앉히었으며 생트집을 걸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놈은 자기가 왕이 되는것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부에서 내쫓거나 죽여버리었습니다.

리성계일파는 자기 반대파들을 수많은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는데 여러차례에 걸쳐 남해바다의 외진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에 싣고가다가 깊은 바다에 처넣기도 하고 때밀에 구멍을 내어 바다물속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도 죽이었습니다.

전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개성지방에 살던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고려의 왕족후손이라고 하여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일부 살아남은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빠맞아 섬을 고쳐《옥》, 《전》가 등으로 변성을 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파들을 다 없애치운 리성계는 1392년 7월에 드디어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475년간 계속되어온 고려왕조는 끝장나고 리조봉건국가가 새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나라이름은《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리성계일파는 리조성립이후에도 계속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한편 명나라를 섬기는것을 나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큰 나라를 섬기고 굽신거리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성계의 배신적인 정권탈취를 반대하여 계속 싸우고있는 개성사람들의 반항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의 서울로 수도를 옮기였습니다.

모든 력사적사실들은 리성계가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적극 조장시킨 극단한 사대주의자이며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것처럼 갈망하던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료동원정을 말아먹은 장본인이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하기에 당시의 개성사람들은 리성계를 극도로 미워하던 나머지 돼지고기를 《성계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리성계를 돼지고기처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놈이라는 증오의 뜻에서 그렇게 말한것입니다.

1. 북한 조선력사 교과서에서는 이성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2. 북한의 교과서에서 이성계를 비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3.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은 무엇인가?

4.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이성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5. 이성계에 대한 서술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6. 이 교과서 내용을 읽은 후의 느낌은 어떠했으며, 통일 된 이후 국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학습지③**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목 23개의 과목 중 12개의 과목을 고르고, 그 과목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고, 자신이 그렇게 만든 이유를 써 보자. 단, 12개의 각 과목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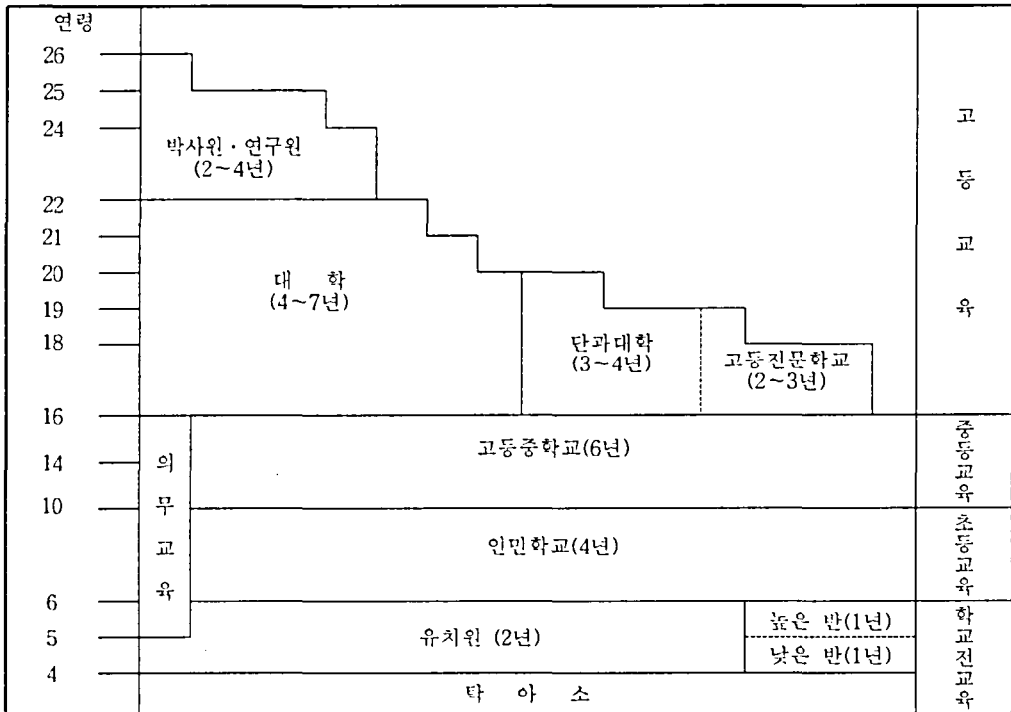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 민족통일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

1. 나는 어떤 기준으로 과목을 선정하였는가?
2.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배정하였는가?
3. 시간표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마. 참고 자료

참고자료 ① 북한의 교육체계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 165.

\* 북한은 2002년도 새 학기를 맞아 신문·방송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제변경 여부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중진의 고등중학교와 같이 6년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② 북한의 의무교육

남한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지만 북한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 현재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56년 8월 처음으로 인민(초등)학교(4년제)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인민학교 의무교육은 최고인민회의 제1기 4차회의(1949. 9)에서 법령으로 채택돼 당초 1950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연기됐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2기 4차회의(1958. 10)에서 4년제 인민(초등)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정, 지난 59년부터 중학교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됐다. 1966년 1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6차회의에서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인민학교(4년제)에서 중학교(5년제)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은 1972년 9월 9년제 기술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했고 1976년부터 유치원 상급반(1년)과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6년)까지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 확대는 '공산주의형의 새 인간 개조'라는 교육목표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종전의 소련식 모방교육에서 완전 탈피, 독자적인 교육체계를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 2001. 9. 5

### 참고자료 ③ 북한의 보통교육

북한은 현재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한다. 이 같은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 방침은 1972년 제5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9월부터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75년 9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고, 인민학교(4년)

와 고등중학교(6년)를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한 것은 '무료교육'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 사상교양을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탁아소나 유치원 교육을 '학교전 교육'이라고 이름짓고,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 교양을 향한 '첫 공정'으로 중시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p. 165-166.

**참고자료 ④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목 비교**

남한과 북한의 과목 비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국어	국어문학	위대한 수령	한문	한문	도덕	공산주의	물리,
외국어	외국어	김일성	기술·가	실습(남,	미술	도덕	화학,
수학	수학	원수남	정	여)	과학	미술,	생물,
체육	체육	혁명 활동			사회	제도,	지리
국사	력사				특별활동	공작	소조 활동

통일부, 북한 개요, 2000.

**참고자료 ⑤ 북한의 교육 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① 정치사상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체육교육으로 대별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역사와 혁명활동을, 과학기술교육으로는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체육교육으로는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인민학교 교과과정의 경우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2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는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으로 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의 구조상 특징은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

로 비중이 낮다.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상 교육을 우선시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성은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북한 교과서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참고자료 ⑥** 인민학교 교육과정

번호	구 분 교 과 명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1	1	1	1
12	공 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말 1주일간 봄방학)

동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p. 170-172.

참고자료 ⑦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 국 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20	미 술	1	1				
21	제 도				1	1	
22	컴 퓨 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1」, pp. 170-172.

## 참고자료 ⑧

## 북한에 학원이 있을까?

북한은 남한처럼 음악·미술 등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는 따로 배울 수가 없는 셈이다.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민학교는 7살이 되면 입학하는데 이들은 낮 12시 30분이면 수업이 끝난다. 오후에는 수업이 없지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인민학교 학생들은 우선 소년단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농촌지원·태권도 훈련 등 여러 가지 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한다.

소년단은 인민학교 2학년(8~9살)이면 누구나 입단하는데, 이때부터 13~14살 정도까지는 계속 소년단에 속해 있다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거의 사로청)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인민학교 학생들이 모두 가입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보이 스카우트'나 '걸 스카우트'와는 다르다. 학교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왕따(북한말로 모서리)를 당한다. 모서리는 인민학생들 사이에 통하는 말이며 어른들은 '빼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민학생들은 조직생활에 불참하면 불편할 정도로 조직생활에 몸매 배여 있다.

조직생활 외에 음악·미술소조 등 학교에서 음악·미술 교사가 운영하는 소조활동도 있다. 소조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된 작은 집단으로 남한의 '동아리'와 비슷하다. 매 학년별로 물리·수학소조도 있어 수업이 끝나면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아무나 참가할 수 없다. 교사들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조활동에 선발되는 학생은 교사가 판단하기에 각 분야에 소질이 있어 보이거나 교사 눈에 드는 학생들이 뽑힌다. 때에 따라서는 당 간부 등 힘있는 부모가 교사에 부탁해 소조에 가입하는 학생들도 있다.

중앙일보 2001. 07. 10

**참고자료 ⑨**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권력의 산실 김일성종합대학 : 북한에서는 ‘김일성대학을 나와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북한의 당·정 차관급 이상 간부 70% 이상이 이 대학 출신이다. 재학생의 주요 선발 기준은 출신 성분이다. 재학생 1만 2천명 가운데 특권층 자체가 50% 이상이다. 46년 개교한 이 대학은 현재 역사·법률·경제·조선어문학·철학·외국어문학·수학·역학·물리·화학·생물학·지리·지질·자동화원자력 등 1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대다수 대학들이 야간·통신 교육 과정을 개설했지만, 이 대학은 정규 과정만 됐다. 교육 기간은 예비 과정을 포함 사회과학 부문이 5년, 자연과학 부문은 6년이다.

기술 인력의 산실 김책공대 : 평양 중구역 영광거리에 있는 북한 최초의 기술대학이자 최대의 공업종합대학이다. 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에서 분리돼 평양공업대학으로 출발했다. 한국전쟁 중인 51년에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학생수는 1만여명, 교직원은 2천여명이다. 13개 학부 80여개 강좌를 열었고, 연구원·박사원·연구소 등도 있다. 연구원은 56년 설립했으며, 주요 학과로는 원자로 공학과·지구물리탐사학과·금속재료학과·정밀기계학과·핵전자공학과 등이 꼽힌다.

**참고자료 ⑩** 북한의 영재학교 ‘제1고등중학교’

북한의 제1고등중학교로는 지난 84년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됐으며 다음해 각 도와 직할시에 11개교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제1고등중학교는 이후 크게 확산돼 현재는 군(郡)·구역 단위까지 설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입학시험을 통해 과학과 수학분야 우수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곳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 최고의 명



문 대학 출신 교사들이 수재용 교과서를 별도로 제작,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는 북한의 집중적인 교육투자로 국제학생경시대회 수상자도 배출했다. 지난 96년 12월 평양방송은 ‘평양제1고등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수많은 국제·국내 수학올림픽(수학경기대회) 수상자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제1고등중학교 출신자들은 최근 북한이 관심을 쏟고 있는 정보산업분야에 진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 사례로 평양제1고등중학교 출신의 대학 졸업생들이 북한의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끌고 있는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 보통강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평양제1고등중학교에서 1천여명의 학생이, 나머지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400~600명이 각각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고등중학교 중에는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금성제2고등중학교 등과 같은 문화예술계통의 수재학교도 있다. 금성제1고등중학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부속학교이고 금성제2고등중학교는 평양학생소년궁전 부속학교이다. 지난해 이들 학교에는 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수재 양성반’이 설치되기도 했다.

연합 2001. 9. 20.

참고자료 ①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

(<http://nk.chosun.com/textbook/>에 수록된 내용임)

①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공산주의 도덕」, 교육도서출판사, 1995

『공산주의도덕』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1995)

제 1 장. 공산주의도덕의 본질과 특징

제 2 절. 공산주의도덕이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입니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다.

사회적행동규범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같이 지켜야 할 질서, 규칙을 말한다.

사회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살며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같이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없으면 사회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사람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질수 없다. 그래서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다. 《백스플 탈 때에는 차례를 지켜야 한다》, 《토동을 사랑해야 한다》 등 사람들이 생활하고 행동하는데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이런것이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바로 도덕은 이러한 사회적행동규범의 하나이다.

도덕이 사회적행동규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행동규범이 도덕인것은 아니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량심은 자기 행동이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리로운가 해로운가를 스스로 느끼는 마음이다.

이런 량심에 의하여 자기 행동이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리로운것이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것이 도덕이다. 만일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에게 리롭겠는지 해롭겠는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해로우리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리속을 위해 행동했다면 그것은 도둑을 지키는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순발이 마음을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순발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량심을 가진 사람은 사회와 집단, 다른 사람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적행동규범을 스스로 지켜나간다. 이런데로부터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라고 한다.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사회적행동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도덕이

② 고등중학교 제3학년용 「국어」, 교육도서출판사, 1997

여우는 마지막 한알마저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까치의 눈에서는 물이 일었습니다.

클락새에게서 힘을 얻은 까치는 여우를 쫓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뭐 알을 따져 달라구? 이 뻔뻔스러운놈애 어서 올라올태면 올라오래》

《뿡뿡 뿡라구? 내 네놈의 둥지를 당장 짓붕개버리고 네놈까지 잡아먹을테대》

여우는 당장 나무애 개바라오듯 밑등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반기장쯤 훌쩍 나무애 뛰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까치는 가슴이 섬적하고 떨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클락새가 새동산의 새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새들은 여우를 끌려주면서 모두 달려들어 부리로 세차게 조아렸습니다.

《아이쿠!》

여우는 대갈등을 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우를 쫓아버린 새들은 좋아서 마음껏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까치만은 웃지 못하고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의 눈물,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까치는 그후에도 어리석었던 자신의 지난날의 부끄러워 새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지금도 마을근처에서 나무우듬지에 둥지를 틀고 그냥 살고있다고 합니다.

**【속담】**

○ 공으로 매주들 쏜다 해도 끝이들지 않는다.

① 아무리 정곡한 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다는 말.

② 늘 거짓말을 하는자의 말은 어떤 말이나 믿음이 갈수 없다는 말.

○ 물장난을 즐기는자는 물에 타죽는다.

남에게 해를 주는 나쁜짓을 하는자는 반드시 그 피해를 받아 망하고야 만다는 말.

③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영어」, 교육도서출판사, 1995

prison." The Governor's ship was lying in the lake near by, ready to sail. Tell was put in chains and taken to the ship.

The ship set sail and started to cross the lake, but a storm broke out and blew it off its course. The Governor's party was in great danger.

Then they remembered that William Tell was the most skillful sailor in those parts and they spoke to Gessler.

"Take off his chains," replied the Governor, "and let him try to bring the ship back on its course."

William Tell quickly brought the ship under control; but instead of trying to cross the lake, he turned the ship round and sailed back towards the shore. Tell, who now thought only of freedom, brought the ship to rock that stuck out into the lake. The next moment, the Austrians saw him jump on to the rock and run out of sight.

"Let them save themselves if they can," said Tell to himself.

Tell hid himself by the roadside and waited.

"If the tyrant escapes with his life, he will come this way," he said to himself. Soon Gessler came that way, riding on his horse.

"I will destroy the whole family of this traitor called Tell," he was saying to himself. Tell, who was waiting for him, bent his bow and let fly the arrow. Gessler dropped dead from his horse.

William Tell fought for the freedom of the Swiss nation. He made the peasants rise against the Austrians. They defeated their oppressors and drove them out of their country. The Swiss nation was free again.

The people wanted to make William Tell king. He refused, and went back to his home among the mountains.

④ 고등중학교 제4학년용 「수학」, 교육도서출판사, 1989

13. 그림 1-36은 지름을 간단히 그린 것이다. 볼때가  $\alpha = 20^\circ$ 이고  $BD = 1879.4m$ 일 때  $AB$ 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림 1-37

14. 원기둥을 죽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직4각형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a$ 이고 그 대각선이 밑면과 이루는 각이  $\alpha$ 이다.  
 1) 원기둥의 밑면의 면적을 구하여라.  
 2) 그 원기둥의 체적을 구하여라.

복습문제(1)

1.  $\triangle ABC$ 에서  $AC$ 에 평행인 직선이 변  $AB$ 와 사귀는 점을  $D$ ,  $BC$ 와 사귀는 점을  $E$ 라고 할 때  $AB = 24cm$ ,  $BC = 32cm$ ,  $AC = 28cm$ ,  $AD + CE = 16cm$ 이면  $DE$ 의 길이는 얼마일 것인가?

2. 주어진 세 선분  $a, b, c$ 에 대하여 다음의 비례식들이 맞는 선분  $x$ 를 그려라.

- 1)  $a : b = x : c$
- 2)  $b : x = a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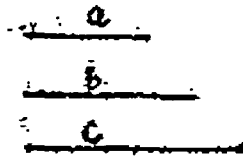


그림 1-38

3. 1) 제형  $ABCD$ ( $AD \parallel BC$ )에서 변  $AB$ 에  $AP : BP = m : n$ 으로 되어 점  $P$ 를 찍고  $P$ 를 지나 밑면에 평행인 직선을 그어 변  $CD$ 와 사귀는 점을  $Q$ 라고 하면

$$PQ = \frac{mBC + nAD}{m + n}$$

이다. 증명하여라.

2) 이 그림에서  $BC = x$ ,  $AD = y$ ,  $PQ = z$ 라고 놓으면

$$z = \frac{mx + ny}{m + n}$$

를 얻는다.

이 식에서  $m$ 과  $n$ 을 미리 정해놓은

면  $x, y$ 의 값에 따라서  $z$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림은 이 원리를 써서 만든 계산도표이다. (여기서  $AP : PB = 2 : 3$ )  $x, y$ 를 알고 도표에서  $z$ 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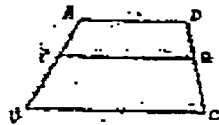


그림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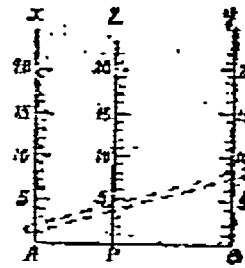


그림 1-40

- 4. 1) 제형의 한 옆변을  $m$ 등분하고 그 때 등분점을 지나 밑면에 평행인 직선을 다른 옆변과 사귀 때까지 그었다. 두 밑변이 각각  $50cm$  및  $30cm$ 일 때 옆변들사이여 있는 평행인 선분들의 길이를 구하여라.
- 2) 제형의 한 옆변을  $n$ 등분하고 그 때 등분점을 지나서 밑면에 평행인 직선을 다른 옆변과 사귀 때까지 그었다. 두 밑변이  $a, b(a < b)$ 일 때 두 옆변사이여 있는 평행선분들의 길이를 구하여라

④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조선력사」, 교육도서출판사, 1999

『조선력사』 고등중학교 제2학년용 (1999)

차 례

제1과. 첫 통일국가들 세운 왕건 .....	1
제2과. 강화담판으로 적들을 물러가게 한 서희장군 .....	5
제3과. 구주싸움과 강감찬장군 .....	8
제4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금속활자 .....	11
제5과. 천하의 보물 고려자기 .....	13
제6과.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농민폭동 .....	16
제7과. 몽골침략군을 물리친 구주성방어자들 .....	19
제8과. 애국적발명가 최무선 .....	22
제9과. 툇대속에 감추어온 목화씨 .....	25
제10과. 왜구의 소굴 쫓시마공격 .....	29
제11과. 군사들 돌려세운 리성계의 죄악 .....	32
제12과. 세계의 첫 즉위기 .....	34
제13과. 우리 글자《훈민정음》 .....	36
제14과. 함경도농민전쟁과 리시에 .....	38
제15과. 리순신장군과 거북선 .....	41
제16과. 홍의장군 객재우 .....	45
제17과. 계월향 .....	48
제18과. 해주산성싸움 .....	52
제19과. 뛰어난 화가 김홍도 .....	56
제20과. 풍경래농민폭동 .....	58
제21과. 김정호와《대동여지도》 .....	61
제22과. 대동강에 처박힌《사만》호 .....	64
제23과.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해적의 무리 .....	67
제24과. 《문양》호의 도발사건 .....	69
제25과. 임오년의 군인폭동 .....	72
제26과. 김옥균과 갑신정변 .....	75
제27과. 애국에 피를 바친 전봉준 .....	77
제28과. 《민비살해사건》 .....	80
제29과. 강제로 꾸며낸《을사5조약》 .....	83
제30과. 돌아오지 않는 밀사 .....	86
제31과. 애국렬사 안중근 .....	89

## 8.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 가. 단원의 개관

북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우리의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서로에 대한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북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다. 북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등학교 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생활총화시간 등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집체학습이라고 불리는 야간자율학습,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왕따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둘째, 북한에서는 학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학기말시험, 연말시험, 그리고 부정기 시험으로 측정되는 학력평가는 ‘무엇에 대하여 논하라.’는 주관식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논문, 사회정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적부에는 학력점수와 생활점수가 함께 기록되는데, 학력점수는 5단계로 기록하고, 생활점수는 2단계로 기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급과 퇴학 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남과 북의 학교 생활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있다.

### 나. 학습목표

- (1)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 (2) 남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여 발표할 수 있다.
- (3)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여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생활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li> </ul>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학교 모습과 수업을 하고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자료를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학교의 모습과 같은 점 찾기</li> <li>- 우리 학교의 모습과 다른 점 찾기</li> </ul> </li> <li>○ 북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조사한 후 우리의 중학교 학생들의 하루 일과와 비교하여 발표해 보자.</li> <li>○ 북한 고등중학교의 학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의 종류</li> <li>- 시험의 형식</li> <li>-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li> </ul> </li> <li>○ 남북 학생들이 교환학습을 실시한다면, 각 학생들은 어떤 점들을 느끼게 될지 생각해 본다.</li> <li>○ 남북 학생들이 함께 다닐 통일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고, 어떤 교칙들을 만들어야 할지 조별로 조사해 본다.</li> </ul>	비디오 또는 컴퓨터 동영상 파일 활용  역할극 참고자료①  학습지①  학습지②	학생들이 자료 화면을 주의 깊게 보도록 지도한다.  나머지 학생들이 발표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조별로 나누어서 각 과목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한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남한의 중학교와 북한의 고등중학교가 서로 교환학습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남북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생활을 어떻다고 생각할 지에 대해 다음의 표에 적어 보자.

	남한 학생이 북한 고등중학교에서 느끼는 점	북한 학생이 남한 중학교에서 느끼는 점
학교 모습		
수업 시간		
학급 친구		
학교 교사		
학교 생활		

**학습지 ②**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남북 학생들이 함께 다닐 통일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고,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 보자.

1. 통일 학교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1. 2. 3. 4.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2. 3. 4.	

2. 통일 학교의 교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현재 학교의 교칙들을 참고로 하여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교칙과 고쳐야 하는 교칙을 찾아보자.(장난스럽게 교칙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대로 따라야 할 교칙 1. 2. 3. 4.	이유 1. 2. 3. 4.
고쳐야 할 교칙 1. 2. 3. 4.	이유 1. 2. 3. 4.

**학습지③**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다음 노래의 가사를 보고 북한 학생들이 찬성할 부분은 무엇이며, 반대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교실이대아	서태지와 아이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이젠 족해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막힌 딱 막힌 모두가 막힌 널 그리곤 덩씩 우릴 먹어 삼킨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좀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애보다 더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메일까 왜 바꾸진 않고 남아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이젠 생각해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채 근엄한 칙한 시대가 지나버린건 좀 더 솔직해봐 넌 알 수 있어	

1. 북한 학생들이 공감할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북한 학생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 참고자료

**참고자료 ①** 남북한 중학생의 하루 일과표 비교

남북한 중학생의 하루 일과표 비교	
남한의 중학생의 하루 일과표	북한의 고등중학생의 하루 일과표
07 : 30 기상	07 : 00 ~ 07 : 30 기상 및 아침식사
07 : 30 ~ 08 : 00 아침식사	07 : 30 지정된 장소에 집합
08 : 00 ~ 08 : 30 등교	07 : 30 ~ 08 : 00 등교
08 : 30 ~ 09 : 00 자유시간	08 : 00 ~ 09 : 00 교양 (담임 시간)
09 : 00 ~ 12 : 30 오전 수업	09 : 00 ~ 12 : 30 오전 수업
12 : 30 ~ 13 : 20 점심 시간	12 : 30 ~ 13 : 20 점심 시간
13 : 20 ~ 15 : 00 오후 수업	13 : 20 ~ 15 : 00 오후 수업
15 : 00 ~ 15 : 30 하교	15 : 00 ~ 16 : 00 총화시간
15 : 30 ~ 16 : 00 간식 및 휴식	16 : 00 ~ 18 : 00 소년단이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활동
16 : 00 ~ 18 : 00 예체능 학원 수강	
18 : 00 ~ 19 : 00 저녁식사 및 TV 시청	18 : 00 ~ 19 : 00 저녁식사 및 TV 시청
19 : 00 ~ 21 : 00 자율학습, 학원 수강	19 : 00 ~ 21 : 00 휴식 및 자율학습
21 : 00 ~ 컴퓨터 통신 혹은 취침	21 : 00 ~ 취침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 중학생용」, 2001. p. 81.

**참고자료 ②** 인민학교에서의 학업 평가

학업 성적 평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주요 과제로 생각한다. 특히 교원들의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

을 개선·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 평가는 학습 과정·학습 성취·종합 평가로 나뉜다.

학습 과정 평가인 ‘생활 기록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의 교수 내용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적인 학습 활동 과정에서 학습 능력과 학습 태도를 본다. 평가 방법은 담화를 통한 검열·학습장을 통한 검열·창작품을 통한 검열과 학과 토론·실험 실습·연구 소조 활동·사회 정치 활동을 통한 검열 등이다.

학습 성취 평가는 학습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시험을 통한 평가’다. 시험 공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구답 시험과 필기 시험이 평가 방법이다. 구답 시험은 여러 문제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3~5분 동안 시험관 앞에서 구두로 답한 뒤 시험관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다. 필기 시험은 45분에 걸쳐 주·객관식 문제를 푼다. 이런 형태의 시험은 1~2학년은 제외하고 3~4학년만 치른다.

종합 평가는 시험을 포함해 학과 토론·실험 실습·사회 정치 활동 등과 학습 활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적 평정은 최우등·우등·보통·낙제로 구분한다. 구답 시험 평정 사례는

- ▷ 최우등 = 시험 문제와 시험관의 보충 질문에 완전히 답한 경우
- ▷ 우등 = 시험 문제에 완전히 답변했으나 시험관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못했을 경우
- ▷ 보통 = 시험 문제 중 35% 이상을 답변 못했을 경우
- ▷ 낙제 = 시험 문제 중 50% 이상을 답변 못했을 경우 등이다.

중앙일보, 2001. 4. 16.

**참고자료 ③** 생활 총화

학교수업은 빠지더라도 총화 시간은 꼭 참석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차례 학급별로 진행되는 ‘월생활총화’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총화는 학급회의랑 비슷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한 달 동안 생활을 스스로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총평하는데 잘한 학생은 칭찬하고, 잘못된 학생은 꾸짖기도 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부모님 직장에 편지를 보내 부모님이 다른 친구 부모님한테 비판받게 된다. 학생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 교육차원에서 그 학생이 속한 학급이나 동아리 전부에게 벌을 줍니다. 벌은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나 운동장을 달리게 하는 것 등이다.

중앙일보, 2001. 7. 3.

**참고자료 ④** 조선 소년단

인민학교 2학년 때부터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게 된다. 소년단은 학교의 전반적인 규율 통제를 맡고 있으며, 남한의 어린이회장단과 비슷하다. 간부는 매년 한 차례 선거로 뽑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담임선생님이 임명한다. 인민학교에는 남한과 같은 반장이나 주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겨울 불 당번(난로 당번)과 청소당번이 있다.

중앙일보, 2001. 7. 3.

**참고자료 ⑤** 북한 고등중학교 생활

6년제 고등중학교 학제는 72년 9월 개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66년까지 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제를 유지하다 67년 4월 중학교 5년·고등학교 2년제로

다시 변경했다. 학교는 도시 지역 1~2개 동당 한 곳, 농촌 지역은 리 단위에 한 곳씩 개설해 만 10~15세의 학생이 재학한다.

6년 동안 당 정책·김일성 부자 혁명 활동·혁명역사·국어·공산주의 도덕·한문·외국어·조선역사·세계사·조선지리·세계지리·수학·물리·화학·생물·음악·미술·체육·공작·전자기계실습·제도 등 23개 과목을 배운다. 최근에는 심리학·논리학을 신설하고 컴퓨터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실천 노동을 통한 계급 의식 고취와 학습과 생산 노동의 완전 결합이라는 취지로 1~4학년은 연간 4주, 5~6학년은 8주를 농번기에 농촌 지원과 건설 현장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면 시·군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시·군으로 전학 때는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성분과 성적이 좋은 30% 정도의 학생만 대학에 진학하고, 대다수가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 배치된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제대 후 대학이나 입당이 비교적 쉬운 입대를 택한다.

한편 80년대 중반부터 각 도마다 특수학교인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해 영재 교육을 강화했는데, 별도 제작한 교과서를 지급하고 외국어와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농촌 지원이 면제되고 운전 면허 취득 등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다. 졸업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류대학 진학이 보장된다.

중앙일보, 2001. 04. 16.

**참고자료 ⑥** 북한 청소년의 학교 생활

북한에서는 엄격한 조직이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활동들도 조직화·집단화되어 있다. 성별, 연령, 사회계층,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하루생활은 일반적으로 당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집을 떠난다. 도시에서 학교가 먼 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걸어간다.

학생들은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인원확인과 복장검사를 한 후에 함께 등교한다. 개인행동을 했을 때는 상급생이나 담임교원에게 벌을 받는다. 학급장이나 학생조직장의 지휘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줄을 서서 합창을 하면서 학교로 간다.

학교정문에 도착하면 소년단이나 사로청위원회 간부들로 구성된 규찰대가 공부할 준비상태, 머리와 복장검사, 특히 김일성뺨지 착용여부에 대한 검열을 한다. 모임장소에 모이지 않고 혼자서 학교에 온 학생은 규찰대에게 벌을 받느라고 학교 정문에 서 있게 된다.

학교의 일과는 아침모임시간에서 시작된다. 전교 학생들이 학급별로 줄을 서서 하루에 5리씩 ‘배움의 천리길’ 달리기를 한다. 달릴 때는 두 패로 나누어져, ‘배움의 길’, ‘천리길’이라는 합성을 번갈아 지르면서 학교운동장까지 달린다. 그 다음에는 인민보 건체조를 하고, 학교장이 전날에 일어난 비판 대상거리를 발표하고 훈계한다. 이 때 잘못된 학생들은 강당앞에 나가 비판과 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번씩 청결위생검열도 하게 된다. 학급장이 인원점검을 한 후, 줄을 서서 교실로 들어간다.

학교수업은 인민학교가 하루에 4-5시간,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6-7시간, 고등반은 6-8시간 정도 한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45분 수업에 15분 휴식하며, 고등반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다. 오전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집에서 준비해 온 곱밥(도시락)을 먹는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에는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기도 하나, 대부분 학급반장이나 줄반장들이 적은 것을 발표하여 비판한다.



생활총화가 끝난 후, 자유헌습 또는 과외학습이 시작되어 집체복습과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들에 대한 집중학습이 이루어진다. 복습끝에는 시험 총화가 있어 그 총화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1995, pp. 50-52.

### 참고자료 ⑦ 북한 교원의 생활

북한에서 교원(교사)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 중의 하나다. 미래의 공산주의 자를 양성하는 ‘직업적 혁명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주택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교원양복점 ▶교원상점 ▶교원 식량공급소 등이 따로 있어 생활 용품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 가격도 일반 가게보다 싸다.

교원이 되는 길에는 정규·비정규 과정이 있다. 교원대·사범대를 졸업해 교원이 되는 것이 정규과정이며, 비정규 과정이란 통신대나 교원대·사범대 야간학부 출신들이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교원으로 충원되는 것을 말한다. 교원대 출신은 인민학교(3년제)와 유치원(2년제)에서, 사범대 출신은 고등중학교에서 각각 교편을 잡는다.

교원대는 각 도·직할시에 1개씩 모두 13개, 사범대는 북한 전역에 19개가 있다. 북한의 교육체계는 유치원(2년)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4~7년)으로 이뤄진다. 학교는 ▶유치원 3만7천여개 ▶인민학교 4천8백13개 ▶고등중학교 4천8백42개가 있다.

교원들의 등교시간은 보통 오전 7시40분까지. 북한 학생들은 우리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 모여 단체로 등교한다. 이때 교사는 집합장소에 먼저 도착해 대열을 정돈시킨 다음 학생들을 인솔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인민학교가 40여명, 고등중학교가 50여명 정도다.

수업은 고등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에 시작해 45분 수업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30분에 끝난다. 점심시간과 오후 일정은 과외체육·생활총화로 진행된다.

퇴근은 보통 오후 5시30분이지만 그 후에도 할 일이 많다. 교수안(수업 진도표와 강의요강)과 교편물(수업에 이용하는 기구·도표 등)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또 인민반(20~40세대로 묶은 최말단 조직) 회의 및 위생사업(생활환경 바꾸기) 에도 참가해야 한다.

교원의 월급은 ▶유치원·인민학교 1백20~1백25원 ▶고등중학교 1백25~1백40원 정도로 노동자(1백원) 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다.

중앙일보 2001. 02. 27

#### 참고자료 ⑧ 북한의 교원들의 권위

북한에 '스승의 날'은 없다. 대신 김일성이 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9월5일을 '교육절'로 정해 놓았는데 이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루 쉬고 학생들로부터 선물과 꽃다발을 받는다.

북한에서 교원(교사)의 권위는 남한에 비해 압도적이다.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사의 권한과 권위 자체도 대단하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다. 누구도 교사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첫 학년 때의 학급과 담당교원(담임교사)이 졸업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인민학교는 4년간, 고등중학교는 6년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해 모든 걸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사제간의 정도 두텁다. 선생님의 헌신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선도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흔하다.

'사랑의 매'는 북한의 학교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원칙상 학생을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처벌은 흔하다.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조직규율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사정없이 지시봉으로 맞는다. 교사에게 별명을 붙여 부르다가 걸리면 생활총화 때 비판받는다. 고등중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젊은 여선생님들은 남학생들의 짓궂은 놀림에 시달리기도 한다.

북한에서 교사들의 지위는 높은 편이다. 교사선발 기준도 까다롭고 대우도 괜찮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교사의 권위도 많이 약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2001. 5. 10.

**참고자료 ⑨** 북한에도 재수생이 있을까?

북한에 우리 사회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수생은 없습니다. 물론 입시학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독특한 대학입학 절차 및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고등중학교를 마친 뒤 대학입시를 보고 입학하는 경우가 있지요. 머리 좋은 수재나 재능꾼이 군대·직장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곧바로 들어갔다는 뜻에서 '직통생(直通生)' 이라 부릅니다. 대개는 이공·의과계열·예술부문에 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중학교 졸업 후 군대나 직장으로 진출한 젊은이들이 자기 소속 단위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군대복무나 직장생활을 2, 3년 한 뒤 소속단위에 배정된 '폰트'(대학입학 추천권)를 받아야 합니다.

당간부·정부관리 등으로 진출하는 인문사회계열은 제대군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직통생과 서너살 이상 나이차가 나는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면 예비과에서 1년간 기초과목 공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7, 8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제대군인' 으로 불립니다. 군복무 도중 들어온 학생은 '현역', 직장생활을 하다가 입학하면 '사회출신' 등으로 불리죠. 학업성적이 좋고 똑똑한 직통생과 나이 많은 제대군인 출신의 소대장(학과 대표)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북한에도 우리와 비슷한 대입 수능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시험'은 보통 10~11월께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과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와 문학·수학·화학·물리·영어 등 6개 과목이며 주관식입니다.

교육성은 예비시험이 끝난 뒤 각 대학·전문학교에 본시험 대상 수험생 숫자를 통보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민위원회의 대학모집과가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하며 성적순에 따라 시험을 치를 대학을 지정해 줍니다.

중앙일보, 2001. 1. 9.

### 참고자료 ⑩ 북한의 운동회와 학예회

전국 또는 도 단위 운동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생일)에 개최한다. 종목은 집단 체조 등이다. 학교별 운동회는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과 9월 5일(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기념일)에 한다. 이어달리기·병 끼고 달리기·다리 묶어 달리기·물동이 이고 달리기·꼬리 잡기·공 빼앗기·축구·무릎 싸움·뱃줄 당기기·장애물 극복 등으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다.

학예회(예능 발표회)는 합창·무용·악기 연주 등 전국 경연대회를 매년 7월 22일 개최한다. 운동회나 예능 발표회를 위해 한두달 전부터 방과 후 하루 한두 시간 연습한다. 북한은 예능 교육을 강조, 학교에서 예술 소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악기는 손풍금(아코디언)·하모니카·기타·피리 등이 대부분이다. 평양 등 대도시 일부 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피아노·바이올린·플룻·섹스폰 등을 다룰 수 있게 교육한다.

중앙일보, 2001. 4. 16.

### 참고자료 ⑪ 북한의 소풍과 현장학습

북한은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위해 현장 경험과 생산 실습을 중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지며, 응용력을 기르고 노동에 대한 숙

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학습은 정치사상 교양 실습과 생산 현장 실습이 있다. 정치사상 교양 실습은 김일성 부자의 혁명 전적지 등을 견학하는 것이다. 생산 현장 실습은 인민학교 3학년 부터 하는데, 일터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는 명분으로 협동농장·공장기업소 등을 찾아 노동한다.

한편 소풍을 ‘들놀이’ 또는 ‘등산’이라고 하며, 1년에 봄·가을 두 차례 도시락을 준비하여 간다.

중앙일보, 2001. 4. 16.

**참고자료 ⑫** 북한에도 왕따가 있을까?

남한처럼 조직적 왕따는 없으나 부분적으로 따돌림 현상이 있다. 따돌림당하는 학생은 구석으로 몰린다는 뜻에서 ‘모서리’라고 부른다.(조선일보 2001-7-17 김혜영씨와의 인터뷰에서는 왕따를 북한에서 ‘묵은 돼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모서리를 당하는 학생은 주로 공부를 못하거나 힘이 약한 학생과 잘난 척하는 학생들로 함께 다니지 않거나 무안을 줘 따돌린다. 교사들은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1주일에 한번 열리는 생활 총화(자아·상호 비판) 시간에 대책을 세운다.

중앙일보, 2001. 4. 16.

**참고자료 ⑬** 북한에서의 대학 입시

북한도 입시철이면 전국이 들썩거린다.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남한 못지 않다. 자녀를 대학 보내는 데 모든 걸 건다. 대학,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와야 출세길이 쉬운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은 남한보다 훨씬 힘들다.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10% 정도만 대

학에 갈 수 있다.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수록 명문 고등중학교로 통한다. 졸업반이 되면 공부 잘 하고 집안 배경 좋은 학생들로 따로 1~2개 특수반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입시 공부를 시킨다. 개인과외나 학원은 물론 없다. 특수층에서 개인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예다. 특수반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 응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북한 전역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11~12월에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치르고 2월에 본고사를 본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9월이 신학기였으나 96년부터 4월로 바꿨다. 예비시험은 중앙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무원(현재는 내각) 시험'이라고도 부른다. 남한의 수능시험과 비슷하지만 주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시-군-구역(남한의 구에 해당) 단위로 시험을 관리하고 성적을 매긴다. 대개 한 구역에서 3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응시자의 성적 순위가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되기도 한다. 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상위 10%에는 들어야 한다.

대학 본고사의 선발 과정은 좀 복잡하다. 노동당 과학교육부에서 우선 각 대학별 모집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두 배 정도에 해당하는 응시자 수를 시 군 구역별로 안배해 내려보낸다. 시 군에서는 이를 다시 학교별로 나눈다. 가령 김일성종합대학의 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지면 응시자격은 4000명 정도에게 주어지며, 시 군별로 또 학교별로 응시자 수가 정해지는 것이다. 평양 시내의 고등중학교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의 응시자격을 얻는 학생은 대개 10명 이내이다. 평양외국어대학 김책공과대학 리과대학 등 평양 소재 대학들의 정원은 중앙당에서 정하고, 함흥경공업대학 등 도 소재 대학은 도당에서, 각종 전문대학 같은 시군 소재 대학은 해당 시-군당에서 정원과 응시자 수를 정한다.

대학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에서 일정 순위 이내에 드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어느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는 성적 못지 않게 집안 배경과 '뇌물 고이기'가 중요하다. 특히 평양의 명문대학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학부모들은 사력을 다 한다. 한 학교에 김일성종합대학의 응시자 수가 5명으로 내려왔다면, 수십 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대개 부모들의 지위와 열성에 따라 판가름나게 된다. 대학 본고사 시험과목은 '김일성-김정일 혁명력사' '수학' '물리' '화학' '영어' '국어' '체

육' 등 7개 과목이다. 시험은 대학별로 출제되고 대부분 주관식이다. 면접과 체육시험도 치른다. 철봉, 수류탄 던지기, 1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등의 체육시험에 낙제하면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탈락된다.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시비도 많다.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밝혀져 재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응시자의 절반 정도는 본고사에서 떨어진다. 이들은 바로 군대로 가거나 직장을 배치 받아야 한다. 대학 입시 재수란 생각할 수 없다. 5년 이상 사회생활이나 군대생활을 하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공부는 잘하지만 출신성분이 안 좋거나 도시로 나가 공부할 여력이 없는 학생들은 지방의 2년제 전문대학이나 통신대학에 입학한다. 어촌 지역은 어장전문대학, 공업지대에는 공장대학, 농장이 많은 곳은 농업전문대학 등 거의 모든 군에 전문대학이 있다. 여기는 비교적 입학이 쉽다. 통신대학은 북한의 유명대학에 등록하여 학습 교재를 통신으로 받아 공부하고 시험은 대학에 직접 가서 본다. 우리의 방송통신대학과는 다르다.

조선일보, 2000. 11. 19.

## 9.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어떻게?

### 가. 단원의 개관

북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혁명인재의 양성과 노력동원을 위한 조직활동인 북한의 과외 활동들을 다루고 있다. 사상학습, 과외체육, 소조활동, 소년단·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날, 대청소, 주생활총화 등 과외활동은 모두 집단활동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입단한 청소년들은 혁명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김일성 일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혁명사적지와 전적지를 찾아 답사하고 있다.

둘째, 북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중예술인들 중 누가 인기 있으며,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가, 북한의 노래방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는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생활들을 다루면서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우리 학생들이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북한 사회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나. 학습목표

- (1) 북한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2) 북한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를 나열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을 가상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전개	<p>○ 북한 청소년들의 과외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명 인재의 양성과 노력 동원</li> <li>- 소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 2학년부터 고등중 4학년까지</li> </ul> </li> <li>-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중 5학년부터 가입</li> </ul> </li> </ul> <p>○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에 대하여 알아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래 동화나 우리 역사, 동물을 주제</li> <li>- 교육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다룸</li> </ul> <p>○ 북한의 대중예술인들과 작품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영희 : 꽃파는 처녀</li> <li>- 오미란 : 도라지꽃</li> <li>- 김운홍 : 민족과 운명</li> <li>- 전해영 : 휘파람 등</li> </ul> <p>○ 북한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컴퓨터 교육 강조</li> <li>- 소프트웨어 개발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별 : 바둑프로그램</li> <li>· 청개구리시리즈, 드래곤 : 오락게임</li> </ul> </li> <li>- 보급률 낮고 인터넷 사용 안됨</li> </ul>	<p>학습지①</p> <p>학습지②</p> <p>학습지③</p>	<p>· 학습지②를 미리 작성해 오도록 과제로 제시한다.</p> <p>· 조별로 나누어서 각 과목별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p>
정리	○ 남북 학생들의 문화 교류와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북한의 아동만화 두 편을 자세히 본 후,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은 후, 우리의 만화 영화와 비교해 보시오.

(www.tongilnet.net / www.uniedu.go.kr / nk.chosun.com 등을 참고)

제 목		
주 인 공		
소 재		
줄 거 리		
두 만화 영화의 공통점		
한국 만화 영화와의 차이점		

**학습지②**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북한에서 인기있는 대중예술인을 서로 비교하여 보자.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을 비교한다. 예, 가수 : 가수, 또는 연기자 : 연기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질 문	북한의 대중예술인
	이 름	
	주요하는 활동은? (노래, 영화, 드라마 등)	
	대표적인 작품	
	그 작품의 특징 또는 설명	
	인기 있는 이유는?	
	한국 연예인이 북한에서 활동한다면, 북한의 대중예술인이 한국에서 활동한다면?	
남북 연예인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세계 연예인 대회에 나간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지 ③**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최근 북한에서는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컴퓨터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신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는 북한의 언론 내용 요약 (출처를 밝힐 것)	
조선컴퓨터센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북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컴퓨터가 북한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컴퓨터의 사용이 남북 동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참고자료 ①** 북한 인기가요 베스트 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호(2001. 7. 17)에서 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인기를 모았던 가요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북한가요를 크게 정치적인 노래와 생활가요로 구분한 뒤 이 분류에 따라 해당 인기가요들을 각각 10곡씩 소개했다.

정치적인 노래로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김정일 장군의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 “높이들자 붉은 기”, “승리의 길”, “강성대국에서 우리 살리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김정일 장군님께 영광드리네”, “천리방선 초병들은 아침인사 드리네” 등이 인기가요 베스트 10에 꼽혔다. 민주조선은 이들 노래에 대해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세찬 불길을 지펴 주었다”고 평가했다.

생활가요에서는 “휘파람”을 비롯해 “우등불”, “내이름 묻지마세요”, “준마치녀”, “녀성은 꽃이라네”, “우리 집은 군인가정”, “통일아리랑”,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치녀시절 꽃시절” 등이 90년대 가장 인기를 누렸던 노래로 선정됐다. 이 밖에 “도시치녀 시집와요”, “축배를 들자” 등도 90년대 북한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가요로 꼽혔다. 신문은 이들 노래에 대해 “인민들과 땀해야 땀 수 없는 친근한 생활의 길 동무”라고 평했다. 이 생활가요들은 대부분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에서 창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01. 8. 22.

**참고자료 ②** ‘대통령’으로 불리는 북한 배우 김윤홍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2001. 8. 1)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이 최대 걸작으로 자랑하는 다부작 극영화 「민족과 운명」 제1~2부, 6~10부

(1992~1993년)에서 북한 영화사상 처음으로 남쪽의 박 전 대통령 역을 맡아하면서 인기스타로 급부상했다.

20여년간의 영화배우 생활에서 별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연으로만 출연했 던 김씨는 현재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유명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됐으며 공훈배우에 이어 인민배우 칭호도 받았다.

그는 「민족과 운명」 이후에도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사건’(1945. 8)으로 불리는 일제 징용자 수장사건을 극화시킨 「살아있는 영혼들」 등 여러 영화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줬다. ‘북한판 타이타닉’으로 불리는 이 영화는 지난 4월 북한에서 처음 개봉됐다.

연합, 2001. 8. 8.

#### 참고자료 ③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

북한이 지난 92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현재 56부까지 개봉된 영화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모두 11개편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화보 ‘조선’최근호(2001, 9)에 따르면 이 ‘민족과 운명’시리즈의 제1~4는 최현덕편, 5~8부는 윤상민편, 9~10부는 차홍기편, 11~13부는 홍영자편, 14~16부는 이정모편, 17~19는 허정순편, 20~25부는 귀화한 일본인여성편이다. 이어 26~36부까지는 노동계급편, 37~45부는 카프작가편, 46~51부는 최현편, 52~56부는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편’으로 돼 있다.

이 영화는 실존인물들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최현덕은 최덕신(전 천도교 교령),윤상민은 윤이상(재독 작곡가), 차홍기는 최홍희(국제태권도연맹총재), 이정모는 이인모(북송 비전향장기수), 허정순은 허정숙( 허현의 딸,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영화속 이름이다. 최현은 실명을 그대로 사용했고 홍영자는 남한의 전 중앙정보부 요원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 ‘민족과 운명’시리즈는 초기에는 20부작으로, 이후 50부작으로 기획됐다가 최근

다시 제작편수를 더 늘려 잡았다.

북한은 지난 6월 하순 개봉된 제48부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1부’로 소개,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53부가 48부보다 먼저 제작돼 개봉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북한영화계에서는 당초 54부부터는 ‘청년영웅 편’을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최현편이 늘어나 57부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01. 9. 27.

**참고자료 ④** 북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악기 - 기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악기는 기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등중학교 음악시간에 기타연주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손풍금(아코디언) 피리 등도 유행하지만 기타에 비하지는 못한다. 특히 손풍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 개인이 소지하기는 힘들다.

기타 곡으로는 북한 노래보다 세계명곡들이 인기가 좋다. 초보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곡은 대개 ‘로망스’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곡의 이름도 모르고 선율을 배운다. 다음 단계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제가, ‘아드리노를 위한 발라드’, ‘라팔로마’ 등으로 나아간다. 이런 곡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치는가에 따라서 기타실력이 인정된다. 누가 이런 곡들을 하나 배워오기 바쁘게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된다. 세계 명곡들은 음악전문가에게만 배포됐던 ‘세계명곡선집’ 악보가 은밀히 유통되면서 퍼지게 됐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남한 노래들이 기타 반주곡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평양의 한 젊은이는 남한 노래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기타 곡으로 편곡해 친구들에게 유포시키다가 적발돼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기타 곡으로 유행했던 노래들은 ‘행복의 나라로 갈테야’ ‘사랑해’ ‘새벽기차’ ‘노란셔츠 입은 사나이’ ‘사랑의 미로’ 등이다. 북한노래로는 ‘이름 없는 영웅들’에 나오는 주제가가 그 중 인기가 있었다.

오락이 거의 없는 북한에서 기타는 젊은이들의 최고 취미생활이다.

조선일보, 2001. 2. 11.

**참고자료 ⑤** 북한 1인당 영화관람 세계최고의 수준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력소다. 마땅한 오락거리나 데이트 장소가 없는 마당에 적은 돈을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가 많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가 많기 때문에 영화관으로 몰려간다.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북한 주민은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국민에 속한다.

‘이름 없는 영웅들’ ‘홍길동’ ‘명령 027호’ ‘민족과 운명’ 등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다. 이런 영화가 방영되면 영화관 출입구는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영화가 제작되면 전국의 영화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게 한다.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아예 영화 표값을 공제하기도 하고 출석을 점검하기도 한다. 또 김일성 항일운동을 다룬 ‘조선의 별’과 같은 다부작 우상화 영화가 나오면 직장별로 영화를 보고 감상문 등을 발표하기도 한다.



북한 영화 관련 통계

영화관수	1000여개
연평균 영화제작 건수	25~35건
영화관 하루평균 상영횟수	3회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	80년대 3회 / 90년대 4회
영화관람료	40전~1월 50전
총 상영횟수	355,916,000회
관람자 합계	98,647,300명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

한국	아이슬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
0.9	4.5	3.9	2.2	1.1

(서울 마케팅 리서치, 1999. 8)

근무시간에는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지만 의무적으로 보아야 할 영화인 경우 점심 시간이나 오후시간에 영화관 가는 것은 사실상 묵인된다. 혁명영화나 기록영화 관람은 학습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 학습시간보다 이를 즐긴다.

어린이들은 학교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집체(단체) 관람한다. '소년장수'와 같은 재미있는 만화영화가 나오면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줄을 서서 영화관을 찾는다. 아이들에겐 마냥 즐거운 날이다.

조선일보, 2001. 5. 17.

참고자료 ⑥ 조선소년단

조선소년단은 '붉은 넥타이'로 상징되는 어린이 단체로 1946년 6월 6일 발족됐으며 독자적인 기구없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소속돼 있다. 인민(초등)학

교 2학년이면 자동 가입되며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출단돼 청년동맹에 가입된다.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2001년 6월 6일 '조선소년단' 창립절 기념사설을 통해 '학생소년들에게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밑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또 항상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과 윗사람을 존경하며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키크기 운동 등 여러가지 과외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년단원들은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일념으로 김 총비서를 목숨으로 옹위하는 '소년근위대', '충성동아'가 돼야하며 '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 등 계급적 원수를 끝없이 미워하는 애국투사가 돼야 한다'고 신문은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소년단원들이 씩씩하고 생기발랄하게 자라고 예술선전대·소년취주악대활동 등을 활발히 벌이며 토끼사육·인민군 지원사업 등 '좋은일하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 2001. 6. 6.

#### 참고자료 ⑦ 북한의 만화

북한 중앙TV는 오후 5시30분 어린이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간만 되면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는다. 역대 가장 인기가 좋았던 만화영화는 '다람이와 고슴도치' '소년장수'다. 특히 소년장수는 고구려시대를 그린 50부작(82~97년)으로 된 대작이다. 고구려의 소년장수 쇄매와 그의 라이벌인 적 장수

호비와의 대결은 흥미진진하다. 초창기에는 10부작 이내로 하려고 했던 것을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워낙 좋아해서 계속 편수를 늘렸다는 소문도 있다. 소년장수를 방영할 때에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TV앞에 모여 앉는다. 이밖에도 ‘영리한 너구리’, ‘방울소리 도적을 쳐부신 소년’ 등이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화영화다.

만화책도 마찬가지다. 책방에 만화책이 새로 나오면 먼저 구하기 위해 줄을 선다. 워낙 적은 수량이 판매되기 때문에 웬만한 행운이 아니고서는 책방에서 만화책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만화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학급에서 인기가 좋다. 1970년대에 최고의 히트를 쳤고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다람이와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와 다람쥐, 오리가 아군이고 족제비, 쥐, 독수리 등을 적으로 설정해 놓고 벌이는 전쟁만화다. 또다른 인기작 ‘만덕산의 검은 그림자’는 북한 내부에 침투한 지주출신의 간첩을 잡는 소년단원들과 보안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북한의 만화영화 제작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서방권으로부터 작품을 수주받고 있다. 북한 만화영화의 산실은 4·26 아동영화촬영소다. 연출가 손종권, 시나리오 김용권, 미술 김택전·김종철, 음악 김명희 등이 실력꾼으로 꼽힌다.

조선일보, 2001. 7. 13.

#### 참고자료 ⑧ 북한 학생들의 방학 생활

북한 청소년들도 방학이 오면 마음이 들뜬다. 시험을 마치고 한겨울동안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겨울방학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는 한달 보름정도, 고등중학교 3학년 이상은 한달이다. 대학생은 방학이 보름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방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노는 것은 아니다. 1 주일에 한번은 학

교에 들어서 생활총화도 하고 방학숙제와 좋은일하기운동 과제물 진행상황 등을 검열 받는다. 방학생활은 대개 비슷하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침 6~7시 사이에 동네별로 학생들이 전부 모여 아침달리기를 한다. 여기서 반장이나 임시책임자가 출석을 부른다. 학생들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구호를 부르며 달리기를 하는데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을 앞뒤줄로 나누어 번갈아 소리치며 달린다. 그래서 방학이라고 해도 늦잠 잘 수는 없다.

구역(남한의 구에 해당)이나 동별로 학습반이 조직되는데 보통 6~7명이 한 반이 돼 매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전에 모여 방학숙제를 한다. 숙제는 과제물이 나오기도 하고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복습할 것을 선생님이 지적해 준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로 달려가 눈을 치워야 한다. 방학숙제 이외의 과제로는 파지와 파철 줍기가 있다. 지방에서는 토끼 기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끼 먹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런 과제물을 끝내고 나면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의 마음은 들뜬다. 스케이트나 외발기(외날 썰매) 타기는 북한 청소년들의 가장 인기 있는 겨울 놀이이다. 외발기는 몇 명씩 짝을 지어 폴 문을 만들어 하는 아이스하키 비슷한 게임인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신나하는 놀이이다. 동네얼음판에는 이른 아침부터 남녀 학생들이 가득 몰려와 스케이트를 즐긴다.

지방학생들에 비해 잡다한 과제가 없는 평양 학생들은 더욱 놀 시간이 많다. 대동강이나 보통강이 얼어붙으면 학생들은 신바람이 난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눈싸움을 즐기고 얼음판에서 팽이를 돌리는 학생들도 눈에 많이 띈다.

방학기간에는 평소에 갈 수 없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방학기간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일지라도 학교담임선생이나 사로청지도원에게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안나와 여행을 못 가는 학생도 있다.

식량난으로 어려워진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은 놀기보다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거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돕는데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유시간이 많은 방학이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다.

조선일보, 2001. 1. 7.

**참고자료 ⑨** 자유주의에 대한 경계

북한의 학교에서 “넌 자유주의가 너무 심해” “너 또 자유주의 하니?”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조직의 규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성”을 배격하는 북한 문화에서 조금만 튀어도 “자유주의분자”로 찍히기 일쑤다. 지각, 조퇴, 결석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례다. 당장 불이익을 안 주더라도 조직생활에 낙제점을 주어 “조직적으로” 되갚아 준다.

대학생들의 “자유주의”로 가장 자주 비판무대에 오르는 것은 연애사건이다. 생활총화에서 연애당사자들이 나란히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호상비판” 장면은 비애스럽지만 웃음바다가 돼버리기도 한다. 무단결석자들도 지독한 자유주의분자다. 최근 몇 년사이에는 생활총화 자체에 불참하는 자유주의분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 노동신문까지 나서서 경계하는 분위기다.

북한 사전에 “자유”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규정되지만 “자유주의”에 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함께 자본주의 산물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겨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라고 요란스레 떠드는, 교활하고 반동적으로 변색된 부르조아민주주의 최신 변종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2001. 9. 5.



## 제 Ⅲ 장

# 하나됨을 위하여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III. 하나됨을 위하여

#### 1. 왜 통일을 해야 할까?

##### 가. 단원의 개관

분단 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 층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해야만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단원에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고, 국제평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군사적 대결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 이산가족들의 이산의 고통, 남북 주민들의 전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의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남북통일은 남북한의 문화적 장점을 합치게 하여 미래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넓혀주기 위해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목표

(1) 통일을 해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 (2)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
- (3) 통일을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부정적 생각을 조사하고, 발표하게 한다.</li> </ul>	참고자료① 학습지①	자유롭게 생각 표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li> <li>- 통일은 6·25전쟁의 고통을 치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게 함</li> </ul> </li> <li>○ 통일은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는 정치, 이념, 체제를 초월한 지극히 인도적인 문제</li> <li>- 혈육상봉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이산 1세대가 자꾸만 늘어남</li> </ul> </li> <li>○ 통일은 남북의 분단 비용을 줄여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이 지속되면 분단비용은 증가</li> <li>- 통일이 되면 '통일로 인한 이익'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므로 통일 비용은 '투자비용'</li> </ul> </li> <li>○ 통일은 민족의 역량을 키워 복지선진국이 되게 하여, 우리를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로 남북한의 문화적 장점이 합쳐지면 우리 민족의 문화경쟁력은 배가</li> <li>- 통일은 우리의 생활무대와 활동영역, 의식과 안목까지 넓혀 줄 것임</li> </ul> </li> </ul>	참고자료② 참고자료③  학습지②  학습지③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한다.  분단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유 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반    번    이름

남북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다. 다음 표에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적고, 그 좋고 나쁨의 정도를 표시해 보자(최대로 좋은 정도는 +10으로, 최대로 나쁜 정도는 -10으로 표시).

통일이 되어서 좋은 점, 혹은 나쁜 점	좋거나 나쁜 정도
합    계	

학습지②

반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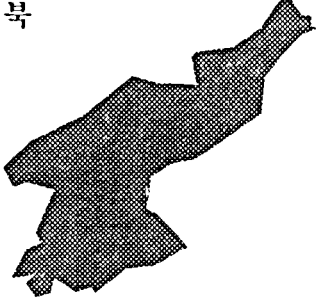


통일이 된다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다음 학생의 주장에 '분단비용'의 감소라는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해 봅시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	'분단비용의 감소'라는 입장에서의 반론
<p>나는 통일에 반대한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통일비용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잘 살던 독일도 통일 후 통일비용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950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남한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서독주민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울 것이라고 한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동서독 보다 남북한이 더 크며, 서독대비 동독의 비중보다 남한대비 북한 인구의 비중도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도 잘 못 살고 있는데, 통일해서 경제가 더 많이 나빠지는 것이 싫다. 통일하지 말고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p>	

학습지③

반 변 이름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남북한의 장점을 합치게 하여 미래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 문화의 장점을 각각 적어보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기대되는 장점만을 모은 새로운 문화를 적어 보자.

<p>북</p> 	<p>북한 문화의 우수한 점</p>
<p>남</p> 	<p>남한 문화의 우수한 점</p>
<p>통일 한국</p> 	<p>남·북의 문화적 장점이 합쳐졌을 경우의 우수한 점</p>

## 마. 참고자료

### 참고자료① 중고생의 통일관 조사

중고생 통일관도 '南南격차', 전국 2천명 조사

어른들의 '지역갈등'이 청소년들의 통일관에까지 그대로 나타나 남북통일에 앞서 지역갈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이나 서민층의 통일관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0~15일 전국 중·고교생 2,000명을 상대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간, 계층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호남권 학생의 35.6%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도권은 22.4%, 영남권은 24.1%에 그쳤다.

통일 후 바뀔 우리 사회상에 대해 호남권은 32.6%가 “매우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영남권은 17.9%에 머물렀다.

'남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이 호남권은 51.3%에 달했으나 영남권은 32%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청소년 돕기에 대해 호남권 학생의 29%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18.6%에 그친 영남권과 비교됐다.

계층간 차이도 뚜렷했다. “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는 지적에 중산층 학생들은 1.7%만이 동의했으나 부유층은 8.6%, 서민층은 8.2%에 달했다. 통일 후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해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이 중산층은 4%에 그쳤으나 부유층은 14.7%, 서민층은 15.6%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2000. 7. 21(45판) 18면

**참고자료② 이산가족 규모**

\*\*\* 실향민의 전체적 규모는 조사방법과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자료에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1996년 말 현재 남한 거주 이산가족은 이산 1세대 123만명, 2·3세대 포함 약 767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70년 가호적 신고자 546만 3천명을 기준으로 71-96년 기간의 인구증가율(40.34%)을 감안한 추정치임)

\*\*\* 최근 통일부 자료

<표> 이산 1세대 연령별 인구 (단위 명)	
60세미만 : 54만	69~74세 : 12만1,301
60~64세 : 28만8,440	75~79세 : 7만9,830
65~69세 : 17만6,702	80세이상 : 6만3,727
(계) 100만5,142명	(계) 26만4,858명
	(총계) 126만명

<http://www.iloveminority.com/>

**참고자료③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싸다**

독일통일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남북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통일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진 것도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통일비용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독일 통일 이후부터다. 독일의 통일과 함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의 주먹구구식 연구에서 탈피, 본격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통일비용문제가 포

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 그리고 통일이 가져다 줄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평가할 지, 등등의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이 엄청난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으로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분단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자. 게다가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각종의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주저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적·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의 위기관리 비용·경제재건 비용·제도통합 비용·사회보장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에 모두 미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정서적 차원에서의 유형·무형의 모든 비용으로 소모적·대립적·갈등적 비용이다. 즉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은 남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투여하는 엄청난 군비지출과 안보비용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전시체제형인 병영국가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경제구조의 파행과 주민생활의 피폐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분단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고, 남북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나름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그 자체가 국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분단은 민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였다.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가슴 아픈 전쟁의 상흔은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를 뿌리깊게 심어놓았다.

그밖에 전쟁위협,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루고 있는 비용이다.

통일의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미래재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통일의 편익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적·민족적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하면서 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은 엄청난 유형·무형의 가치를 낳는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의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적·무형적 비용이 명백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여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가 덧붙여진다. 특히 미래재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통일은 또한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보완성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의 무형적 가치도 크다. 우선 통일국가의 북한 주민의 생조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민주공동체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된다.

통일한국에서 우리 민족이 골고루 분산되어 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대륙을 향해 무한한 상상력의 나라를 펼치고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유형·무형의 통일편익은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창의력에 따라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문답, 2002

## 2.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 가. 단원의 개관

통일의 성취는 우리 민족 전체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이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반세기도 넘게 각각 발전시킨 남북의 체제 차이는 어느날 갑자기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삶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남북은 여전히 남북의 오랜 정치·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제도통일 이전에 남북한 주민들간 마음의 통합부터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한 상호 분신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통합’을 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의 보다 적극적인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변화를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이 주변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도 얻어내지 않으면 안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나. 학습 목표

- (1)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함을 안다.
- (2) 남북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 (3)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미치는 중요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독일의 통일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발표한다.</li> </ul>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의 통일후유증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학습지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통일보다 마음의 통합이 더 중요함</li> <li>- 마음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li> <li>-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li> </ul> </li> <li>○ 경의선 철도를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발전 및 격차해소</li> <li>- 교류증대로 인한 남북한 주민 상호 이해 증대</li> </ul> </li> <li>○ 남북통일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임으로 주변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지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한반도의 분단과정을 통해 설명한다.</li> <li>- 남북의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 4대강국의 입장을 신문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li> <li>- 6모둠으로 나누워 4모둠은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지도자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일을 작성해 본다.</li> <li>- 2개 모둠은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남북통일 선언문을 작성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지①</li> <li>학습지②</li> <li>모둠공통 읽기자료</li> <li>학습지③</li> <li>학습지④</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 후 유증중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보다, 심리적인 측면에 주목</li> <li>학생의 발달 수준에 비춰 경의선 철도복원에서 발생하는 난관도 언급한다.</li> <li>지정학적 위치가 지나는 가능성도 언급한다.</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한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 ①

학번		이름	
----	--	----	--

제 목	<b>마음의 장벽부터</b>
<p><b>오시(Ossi)와 베시(Wessi)</b></p> <p>통일 10년이 흐른 지금, 옛 동·서독 사이의 물리적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시(서독 주민)는 못사는 오시(동독 주민)를 알아보고, 오시는 거들먹거리는 베시를 흘겨본다. 오시(Ossi)와 베시(Wessi)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각각 동쪽사람·서쪽사람이라는 뜻의 독일어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다. 우리 나라에서 껍쟁이·문둥이·햇바지라는 말에 사진적인 뜻 외에 감정이 녹아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한 마디로 오시는 '동독놈', 베시는 '서독놈'이다. 오시에는 게으르다·촌티 난다·무능하다는 느낌이, 베시에는 거만하다·역겹다·위선적이라는 감정이 녹아 있다.</p> <p>통일후 서쪽은 동쪽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서독인은 세금은 늘어나는데 복지는 줄어든다고 불평했다. 이 원망의 화살은 동독인을 향했다. 동독인은 서독인의 거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2등 인간 취급을 받아 기분이 상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 이질감 때문에 독일은 통일 10주년을 맞았으면서도 그다지 들뜬 분위기가 아니었다. (한겨레 2000.10.02 &amp; Newsweek한국어판 425호 편집)</p>	
1.통일후 구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2.위의 통일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서독정부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요?	
3.독일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남북한이 해야할 일을 적어봅시다.	

학습지 ② - 1

학번	이름
----	----

제 목	<b>경의선에 통일신고</b>
-----	------------------

※ 읽기 자료 : ‘경의선 연결, 민족의 통합, 그리고 21세기 실크로드’ 중에서

남북한의 인구·산업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경의선은 현재 서울 서부역에서 문산까지 남측 구간 46km,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북측 구간 412km가 환용 중이며, 단절구간은 남측의 문산-장단간 12km와 북측의 장단-봉동간 8km 및 봉동-개성간 8km 등 모두 28km이다. 일 년 후 경의선의 복원 다음으로 개시될 경원선(신탄리-월정-평양간 31km)의 연결 또한 현재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할 거리가 두 노선 합쳐 60km가 채 못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이지만 연결 이후 그 다양한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이처럼 북한경제의 정상화 및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낳고 동시에 남한경제와의 상호 보완성을 현저하게 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유라시아 횡단 국제선의 일부로서 경의선 복원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를 세움으로써 중계수송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 바, 북한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그

리고 남한도 부산 광양항 등을 통한 해외 물동량 확보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2005년에 남북의 운송수입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의선 연결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정치·군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비무장지대 철로 주변에 매설된 100만 발이 넘는 대인·대전차지뢰의 제거 작업과 선로 부설 작업은 직접적으로 군부대의 동원을 통해 이루지는 사업으로서 남북한 군사분야의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이 문제의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해 준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경의선의 연결작업은 남북한간 평화의 가교를 놓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양쪽 군부지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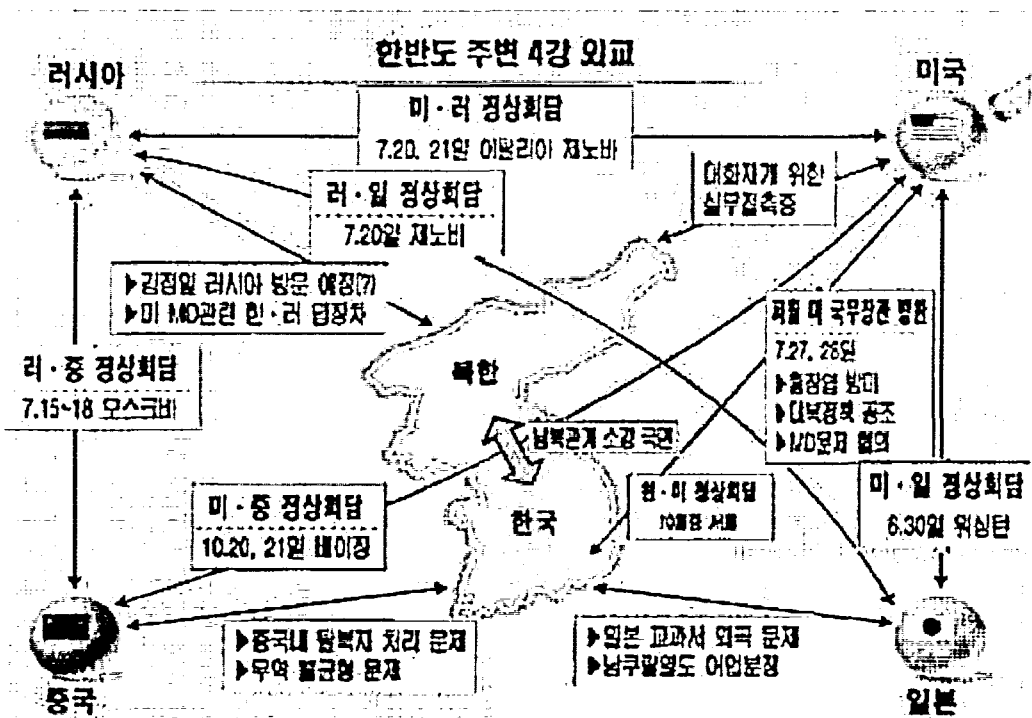
개성을 비롯하여 북한의 여러 관광지와 또 다른 동포들을 수시로 접하게 될 남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물리적 거리가 좁아지는 만큼 마음의 거리도 좁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체제가 형성되는 날이 그만큼 다가오게 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평화포럼 2000년 10월호(통권 42호)>

제 목	<b>경의선에 통일 신고</b>	
내가 만든 경의선 철도 이름/이유		
경의선철도가 한민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보자.		
경의선 철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경제적인 면과 사회문화적인 면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모듬별 공동읽기자료**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남북한을 아우른 정상 외교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구의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기류로 옮겨가면서 동북아 정세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데 대한 주변 4강의 이해조정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 2001. 07. 24 중앙일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 동북아지역에서의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원조를 통해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남한과는 경제

협력 및 정치, 안보관계 형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환영, 속으로는 다소 우려'하는 입장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와 함께 일본의 경제력을 위협할 통일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혼합된 축복'에 해당된다. 평양의 개방조짐과 남북 대화 재개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100%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미국으로선 매항리 사격훈련과 주둔군지위협정을 계기로 분출되는 남한의 민족주의 감정도 주의 깊게 관리 할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줄어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4강의 이해관계는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이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 모두 지역안정을 바라고 있다”며 “이들이 특히 북한과 많이 접촉할수록 이들의 뜻이 북한에 잘 전달될 것이므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과 관련해 북한과 이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남한과 가지고 있는 통상규모를 볼 때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북한편들기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한·중 간에는 무역규모가 연 230억 달러, 한·러간에는 23억 달러 수준이나 북·중, 북·러 간에는 각각 5억 달러와 1억 달러를 넘지 못한다. 러시아 쪽도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과 옛 소련 지원 북한 공장의 가동 지원 등 실리확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주변국들에게도 이익이 됨을 이해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주변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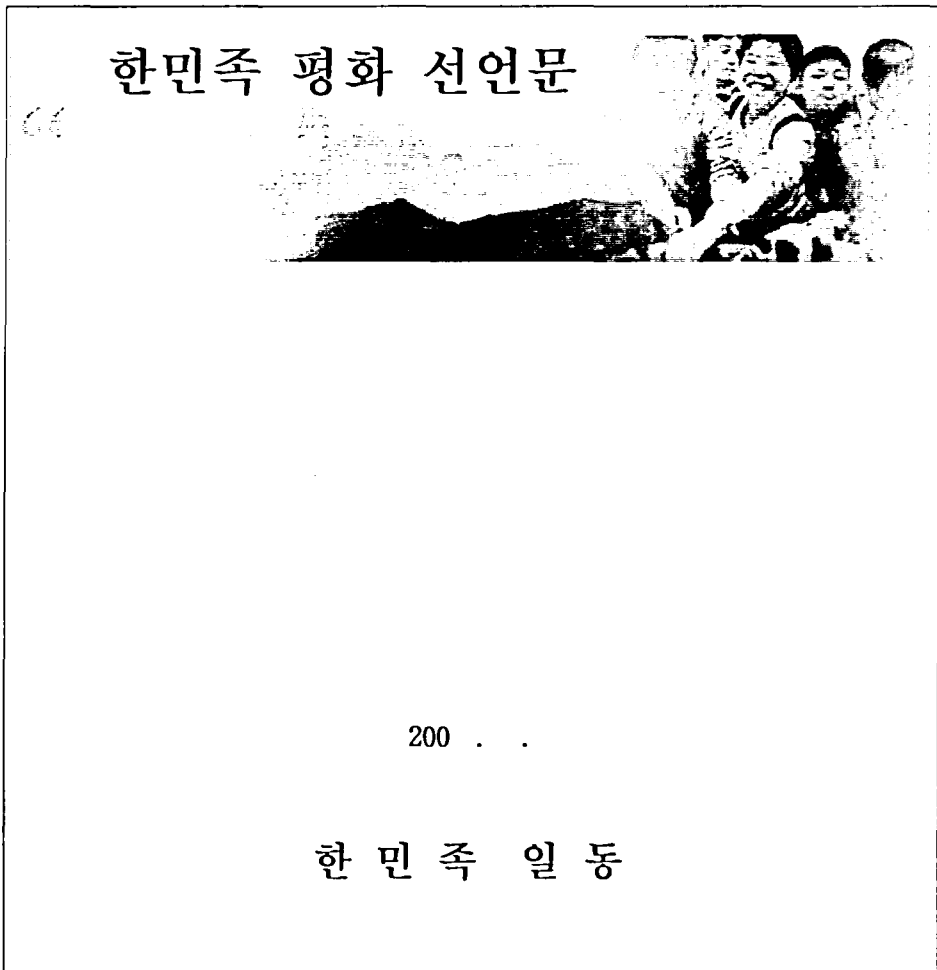


학습지 ③

제 목	<b>통일 메일 보내기</b>		
모 둠	반	모둠	모둠원번호 :
받는 사람 [추가]	<input type="text"/>	~간편 주소록~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신자가 여러 명일 때는 ; 기호로 구분하세요.			
참 조 [추가]	<input type="text"/>	~간편 주소록~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숨은 참조 [추가]	<input type="text"/>	~간편 주소록~	<input type="button" value="설정"/>
제 목	<input type="tex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div>			
문 시 형 식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TEXT 형식 <input type="radio"/> HTML 형식 <input type="button" value="미리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복수분자"/> <input type="button" value="이모티콘"/>		
첨 부 파 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미리 보기"/>
<p>※유의점 : 여러분 모둠에서 작성한 메일 내용에는 남북의 통일이 대상 국가에도 도움이 됨을 설득시켜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p>			

학습지 ④

제 목	우리가 쓰는 남북 평화 선언문
모 둠	반       모둠       모둠원번호 :
학 습 안 내	☞ 남북의 통일을 세계의 평화 및 인류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세계 각국에서 홍보할 남북공동평화선언문을 만들어봅시다.



## 마. 참고 자료

### 참고자료①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89년, 40여년 독일분단을 상징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과 한반도 분단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 소련(러시아) 등 전승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때문에 독일인들은 민족갈등 보다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룬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영토적 분단뿐 아니라 민족적 분단이라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의 통일국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분단이전의 근대적 민족국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통일은 새로운 민족국가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통일문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십년 간의 일관된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통일 당시 이미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서독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며 동서독간의 교류 및 방문을 추진하는 등 차근차근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왔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독일 통일은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당시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독일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이러한 서독 통일외교의 밑바탕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는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주변국의 이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주변국에 한국 통일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설득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이룬지 10년이 흐른 지금 독일은 아직도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가 통일에 앞서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통일 후의 몸살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새천년통일문제바로보기(2000), p. 7

## 참고자료 ② 통일의 의미와 성격

통일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을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작업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우리 민족의 문화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제도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

일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사실 통일상태를 ‘실현’,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일을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몇 % 달성되었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적·평화적·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군비통제를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두터운 연계에 의해 민족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설령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달성한 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부 편,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p. 11-12

### 참고자료 ③ 경의선 철도의 의의 및 파급효과

#### 1. 경의선 연결의 민족사적 의의

##### ■ 한반도 중심시대의 개막

○경의선 연결은 남한이 반도국 위치에서 탈피,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속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경의선 연결에 따른 환황해(광양서울신의주심양북경·상해 배후지역) 경제권 가시화에 이어, 경원선 및 동해북부선이 복원될 경우 환동해(부산·동해·홍남·청진·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경제권이 탄생하게 됨.

-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 북한, 중국, 러시아 지역의 자연자원 및 노동력의 결합이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권 창출에 기여할 것임.

■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 경의선 연결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실천적 수단임.

- 육상 철도 연결로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경제통합 기틀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임.

- 교통로 연결을 통한 북한지방 공업지역과의 산업적 연계를 통해 원료 공급지로서의 북한과 제품 생산지로서의 남한이라는 분업생산의 효과 창출이 가능함.

-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남한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것임.

2. 경의선 연결의 파급효과

■ 우리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정치적 차원 >

- 기존의 公海와 제3국을 거쳐 연결됐던 남북관계가 비무장지대를 관통, 직접 연결되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분단을 물리적으로 극복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를, 남북한간에는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선린관계의 구축을 의미

- 신호연결, 공동역사 등의 논의를 통해 현안별 실무 대화가 정례화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 군사적 차원 >

- DMZ의 평화지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제공
  -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평화협정 등의 논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뢰제거 과정에서 남북한 군사적 협력의 계기가 마련
  - 철도연결을 위해서는 DMZ 지뢰 제거가 필요하며, 남북한 군은 이 과정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 < 사회·심리적 차원 >

- 남북한간의 철도연결과 이의 효율적 사용은 정치·군사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심리적 안정 및 화해에 기여할 것임.
-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케 하고,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우리사회 내부에 상존하는 북한에 대한 의구심과 포용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경의선 연결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감소될 것임.

#### ■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효과

- 육상교통로 연결은 새로운 경제협력시대의 개막을 의미함.
  - 공적협력사업의 시작이며, 직접투자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이자, 구체적으로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남북경협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계기
- 경의선 철도 운송수입 증대효과 추정(2005년 기준)

- 남한과 북한의 철도운송수입 증가 기대액

(단위: 만불)

물동량	총 계	남한수입	북한수입
총 계	24,850	9,970	14,880
- 남북간 · 컨테이너 · 일 반	6,218 3,109 3,109	2,234 1,117 1,117	3,984 1,992 1,992
- 한국~중국간 환적화물 (친진,대련)	7,396	3,700	3,696
- 한·일~유럽간	11,236	4,036	7,200

※산정방법:철도수입증가액=(물동량×거리×단가), 환율은 1\$=1,100원적용

■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사실상의 통일'에의 접근 >

○경의선 연결에 따른 인적·물적교류 활성화가 남북관계개선 및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사실상의 통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임.

<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화 >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확대는 상호보완적 남북경제관계를 유지시켜 전체 남북관계를 안정시킬 것임.

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2000. 9)

참고자료 ③ : 한반도 주변 강국의 한반도 인식

1.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2001년 1월 20일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외교를 강조하고,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안보전략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지상과 해상 및 공중 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하였고 부시 행정부는 2004년까지 초보적인 MD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은 그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한국·호주 등 우방국과 기존의 쌍무 안보 협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인도·러시아 가운데 어느 나라도 패권국이 되지 않도록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특히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을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상정하여 수립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여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등 안보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 및 군사활동 범위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며, 대북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협상동결을 선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확실히 보장하는 검증장치가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향후 대북정책은 투명성·검증가능성·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1년 3월 7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6월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공화당 행정부 출범 4개월 동안 진행한 대정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착수하도록 국가안보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협의할 의제로 ①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②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③ 재래식 군비 태세 문제 등을 예시하였다. 그

는 이어 “이런 논의를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기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점차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참사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테러범은 물론 배후 국가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보복을 선언하였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10월 8일부터 테러사건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비호하는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테러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러시아에까지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반테러 국제연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국제질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중국·러시아는 테러리즘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반테러 전쟁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테러 발생 직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우너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11월 3일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인질억류 방지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로 아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테러 반대 선언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체류 중인 일본항공기 요도호 납치범들의 국외추방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 2.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일본은 21세기 정치대국을 지향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대국화 노선은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 성향속에서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대국화 노선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로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하여 변화를 겪게 될 때, 일본정치 또한 자유민주당(자민당) 장기정권의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 등에 한계를 노출하면서 지각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일본정치는 1993년 7·18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장기 집권의 붕괴와 더불어 이합집산의 연립정권의 시대를 겪은 뒤, 1996년의 10·20 총선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대연합의 구도로 재편되었다.

자민당 정권의 붕괴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의 연립정권의 등장까지 일본정치는 다양한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의 정당이 연립정권에 참여함으로써 여당의 일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집권경험은 사회당의 정책노선을 현실주의적 정책노선으로 전환토록 하였고, 보·혁 및 보·보 정당간의 제휴나 연합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나아가 정치공간을 보수·우경화로 변모시켰다.

둘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변동 속에서 정치공간의 보수화와 더불어 쇼와세대가 일본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변동의 과정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의 공론화와 더불어 일본의 안보역할의 확대가 추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안보역할의 증대론은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 성향이 한층 가속화 되도록 하였다.

미·일 동맹은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의 동경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 발표됨에 따라 '재정의' 되었다.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미·일 양국의 협력 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

다. 즉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신보수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21세기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국가체제의 개혁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즉 신보수세력은 보수 대연합으로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1999년 5월에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에는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법」을 성립시켰다. 나아가 방위청의 방위성으로 승격, PKO법안(1992. 6 제정)의 개정, 유사법제의 입법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개정 등 정치대국화를 지향한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와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는 동북아 전략환경과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일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조성될 경우 북·중 및 북·중·러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남북관계 또한 그와 같은 대립구도의 틀 내에서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정치의 보수·우경화와 정치대국화 추구는 북·일 관계의 개선 및 수교문제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고도 보수성향의 정책 추진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01년 9월 3일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장주석의 방북은 1992년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으로 단절되었던 북·중간 정사외교가 회복되고 동시에 양국관계가 전면 복원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의 변화는 1999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 방문과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2001. 5, 2001. 1)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 관계 정상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장주석의 방북은 상호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이

해의 공유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주석의 방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역할이었다. 장주석은 북한측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중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하이·푸둥 방문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적어도 노선상으로 승인한 효과를 갖는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장주석의 방북에서 북·중 양국은 상당한 규모의 식량·원유·화학비료 등의 대북 무상원조를 비롯, 과학기술·에너지 부문 및 북한내 산업설비 현대화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추구하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그들의 개혁·발전 모델을 적극 이식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제·사회적 동질성을 확보해 가는 동시에,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영향력을 구축해가는 정책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한 산업화 과정에 적극 진출, 북한과 중국 동북경제구와의 횡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경제력 통합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러 관계의 급진적 발전에 비해 북한의 대미·일 관계발전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균형성으로 결과적으로 북한의 고립이 초래되고, 이것이 한반도 불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이해를 갖는 주변 4강의 남북한에 대해 교차승인의 실현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가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은 북·미 관계 발전이 북한에 있어서 그들의 특수지위를 손상시키는 수준이나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

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관계를 대처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 모색과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나 정책조율 등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조율이나 협상도 과거의 특수관계하에서 나타났던 북한입장의 기계론적 지지와 같은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합리적 판단과 입장을 북한에 설득해 가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과 특수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곧 남북간의 극단적 적대관계의 개선에 따라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의 상호관계가 넌 제로-섬(Non Zero-sum)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방영하는 것이다.

장주석의 방북으로 북·중간의 정상교류가 완전 복원되고 다양한 협력 채널들이 복구됨에 따라 양국관계가 한·중수교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었으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복원이 한·중 수교 이전의 상태로의 기계적 환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북 관계는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이 부각될 것이며, 국가이익상의 대립·갈등과 조화가 그대로 투영되는 다양한 현안들이 수면위로 표출되어 갈 것이다. 양국은 국가이익상의 대립·갈등을 둘러싸고 합리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타협과 협력점을 모색해 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라는 것이다.

#### 4. 최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추이와 특징은 무엇인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와 경제지원을 기대하고 남한중심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정책을 재평가하고 남한중심 정책으로부터 남북한 관계에서 균형적 입장

을 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푸틴 대통령도 이러한 엘친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대러 투자와 경제지원 중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소외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 영향력 증대 가능성, 러시아 연방하원의 국가두마에서 공산 극우민족주의파인 득세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99년 12월 말 엘친 대통령이 조기 사임할 때까지 한·러 및 북·러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다. 1996년 4월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4자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외되어 있었고, 한·러 간에는 1998년 여름 외교관 맞 추방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러 간에는 1998년 8월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경협관계도 부진하였다.

북·러관계에서는 1961년 북·소간 체결되었던 군사동맹조약이 1996년 9월 폐기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NATO의 동구확대와 코스보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유럽중심 정책, 북한의 미국중심 외교정책 등으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러시아의 남북한 관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정립되었다.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수행하면서, 경제실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는 한반도를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삼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동등히 참여하는 것, 남북한과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러시아는 2000년 2월 과거의 군사동맹 조약을 대체하는 신 조약인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북한과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시 '조·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대북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로 재정립하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01년 2월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공동성명'을 통해 '건설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은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계기로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

앞서 언급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조·러 공동선언', '한·러 공동성명' 및 북·러간 '모스크바 선언'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최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 및 북한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비사일방어(MD)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의 세계 및 동북아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둘째, 북한 안보의 후견인 역할, 남북대화에 대한 중개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발언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이르쿠츠크 가스관 연결과 같은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 경험과 남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 등을 통한 경제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반도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정이다.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는 러시아가 경제난 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내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경제난도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선호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문답」, 2001



### 3.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가. 단원의 개관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채 남아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로써 남과 북의 통일이 우리민족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동구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 등 내외의 여건이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통일의 시대는 눈앞에 닥친 우리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일과 통일 후에 그 동안 이질화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강인한 2세 국민을 어떻게 길러 내느냐하는 문제이다.

첫째, 통일에 대한 대비는 청소년들은 통일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인정신을 지녀야 한다. 이는 나보다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나아가 민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둘째, 남북의 이질화된 상황속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국가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사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민주사회의 가치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인권존중 정신,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정신을 지녀야 할 것이다.

#### 나. 학습 목표

- (1)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 및 마음가짐을 이해한다.
- (2) 통일을 위한 자신의 각오와 자세를 공언할 수 있다.
- (3) 통일을 위한 청소년 홍보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지닌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제시한다.</li> <li>○ 통일관련 노래를 함께 듣고 부른다.(이 작은 문방울 모이고 모여)</li> </ul>	노래테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통일 으뜸지기’라는 과제를 발표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 및 자세를 찾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공언(公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li> <li>- 발표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다.</li> <li>- 주인공심을 갖는다. 서로 다름을 이해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북한주민과 나누려는 자세를 지닌다. 나보다 민족과 사회를 생각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등.</li> </ul> </li> <li>○ 청소년 대상 홍보 뮤직비디오(노가바뮤직슬라이드)를 만들고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통일을 위한 청소년의 자세’를 주제로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계획하고 준비한다.</li> <li>- 주제에 맞게 노래가사를 바꿔본다.</li> <li>- 바꾼 노래가사에 맞는 장면을 생각한다.</li> <li>- 사진이나 그림, 또는 캠코더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발표한다.</li> </ul> </li> </ul>	학습지① 노래테입  실물화상기, 사진기 카세트,캠코더 학습지② 학습지③	잔잔한 배경 음악을 틀어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모둠별 작업 결과가 겹치지 않도록 다른 모듬의 구상 내용을 중계한다.  다음 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정리하고 구체적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li> </ul>		

라. 학습지

학습지①

학번		이름	
----	--	----	--

제 목	<b>나는 통일 으뜸지기!</b>
학 습 안 내	☞ '나는 통일을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라는 주제로 10가지의 자세 및 마음가짐을 작성해보자.
1. 나는	.....
2. 나는	.....
3. 나는	.....
4. 나는	.....
5. 나는	.....
6. 나는	.....
7. 나는	.....
8. 나는	.....
9. 나는	.....
10. 나는	.....

**학습지 ②**

제 목	<b>노래가사 바꿔부르기</b>
모둠 소개	(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번호( )
학 습 안 내	☞ 누구나 아는 노래를 정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집'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래 가사를 바꿔봅시다.
<p>노래 제목 :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원 곡 :</p> <p>♪ 노래가사</p>	
☞ 노래가사를 영상화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사진기, 그림그리기 도구, 캠코더, 색펜, 사진, 그림 등)을 적어봅시다.	

**학습지 ③**

제 목	뮤직비디오 콘티	
모둠 소개	(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번호( )	
학습 안내	☞ 바꾼 가사에 맞는 장면을 그려보고 영상물 제작 준비를 합니다.	
	장면 번호 및 컷 장면	(내용) 노래가사
	①	
	②	
	③	
	④	
	⑤	

마. 참고 자료

**참고자료①**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서울대 방송연구회 작사/변계원 작곡/최영섭 편곡)

1. 너와 나 달려가자 저 백두산으로  
 바위 언덕 산모퉁이 돌아 별판을 지나  
 너와 나 달려가자 저 한라산으로  
 세찬 돌개바람 헤치고 거친 파도 넘어  
 이제 맨발되어 성큼성큼 손모아 쥐고 하나되어  
 자 철망 걷고 올라가자 이 통일의 땅에  
 백두산 한라산 우람찬 산들도  
 이어져 뻗어나 솟고 솟구쳐  
 남으로 북으로 마침내 하나듯  
 이 한 몸 겨레의 산맥이 되리라.

2. 너와 나 달려가자 저 백두산으로  
 바위 언덕 산모퉁이 돌아 별판을 지나  
 너와 나 달려가자 저 한라산으로  
 세찬 돌개바람 헤치고 거친 파도 넘어  
 이제 맨 가슴에 설레어라 자 어깨 걸고 하나되어  
 저 푸른 물결 헤쳐가자 이 겨레의 터에  
 압록강 한강 커다란 강물도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개울로 너울로 마침내 이루듯  
 이 한 몸 겨레의 물줄기 되리라.

노래로 배우는 통일교실(<http://210.119.114.5/union>)

### 참고자료② 자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자성예언’이란 영어의 self-fulfilling prophecy에서 나온 말로서, 이를 직역하여 자기충족적 예언(自己充足的 豫言)이라고도 한다.

이는 어떤 우연한 근거에서 하나의 예언이 형성되면 그 예언이 바로 예언 자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행동이나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보이는 학습 수준이 주변에서 특히 교사가 가지는 기대수준에 부합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로젠탈과 제이컵슨이란 두 교육심리학자가 1964년에 영국에 있는 오크학교(Oak school)를 대상으로 수업장면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성예언’이 학습 결과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이들은 1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형식적인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실제로는 어린이들을 아무렇게나 선정한 뒤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두었는데, 8개월 동안의 연구가 끝났을 때에는 이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보다 더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큰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리라고 교사에 의하여 미리 예측된 아동은 비슷한 능력의 다른 아동들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자료③ 안익태 선생의 자성예언

‘자성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언어화하여 마음속에 반복하여 심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은 어려서부터 이런 자성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지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음악가가 많아졌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06년 평양 근교에서 출생한 선생은 평양 숭실학교 2학년 때, 항일운동 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동경의 국립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는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단돈 100달러와 첼로 하나를 들고 미국에 도착한 선생은 신시내티 음악대학, 필라델피아 음악대학,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독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적어 두었던 가사에 곡을 붙여 애국가를 지어,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베를린 올림픽 때는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선생은 계속 비엔나 등지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을 무려 230여 회나 지휘하였습니다. 자성예언이 이루어 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마음 깊숙이 심어주면, 그것이 잠재의식이 되어 알게 모르게 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부추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에 꿈의 씨앗을 심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진로정보센터(<http://ns.sesri.re.kr/jinro>)

#### 참고자료 ④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 형성

1989년 6월 12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시행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접촉은 신청 41,711명, 승인 40,088명, 성사 15,3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접촉은 1996년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이산가족 분야,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등 경제 분야에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인적 교류 증대는 통일 한국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시되고 있습니다. 유흥준 교수도 “북한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 ‘그들은 어떻게 살디?’ , 내가 북한에 다녀온 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도 이 점일 것입니



다.” 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관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한 받은 것이긴 하겠지만, 유교수가 나름대로 보고 느낀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사는 방식이 남한과 너무도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유동 인구가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거리엔 자동차도, 사람도 아주 적었습니다.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면 더했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두 시간을 가도록 10대의 자동차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이 점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오히려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의 자유가 오히려 망탕(망종)이며, 그러니까 불량배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평양에서 원산으로 갈 때 마식령이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때는 여름 한철. 산촌 산비탈엔 옥수수 농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옥수수가 잘 자라지 못해 허리춤도 못 올라오는 다락밭의 옥수수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청솔가지로 엮어 올린 울타리 안의 옥수수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크고 앞에는 윤기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였습니다. 농장의 옥수수야 누구 것인 줄 알 수 없지만 울타리 안의 옥수수는 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정성을 들인 결과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경쟁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용납하지 않았던 이런 가치들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한의 상품 경쟁을 ‘과소비 조장’ 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장발족이나 머리를 물들인 사람들에게 ‘망탕’이라고 야단만 쳐서도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살게 됩니다.

통일 이후의 남한 주민들 역시, 북한 주민들이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나 경쟁 대열에서 약삭빠르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본주의 척도(尺度)’로만 재려고 해서는 안 되며, 더더욱 그들을 업신여기는 몸짓이나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단군의 같은 자손이라는 동포애에 입각해서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로 미래로(2000), 고등학생용, p. 90

※북한주민접촉 통계는 통일부 최근 자료로 수정

### 참고자료 ⑤ 민족통일에 대비한 청소년 교육의 방향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 맞서 남한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시대에 따라 명칭은 달리 하면서 다루어져 왔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일이 곧 민족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다.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러한 제도와 법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장치에 그치고 만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과 인권존중 정신 : 모든 인간은 개인적 행복과 사회에의 공헌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존중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 2) 공익을 위한 협동과 봉사정신 : 개인과 사회는 공동운명체로서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를 위한 개인봉사는 보다 큰 자기에의 봉사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 3) 자유와 책임 강조 : 개개인의 자유보장은 그것이 사회복지에 통합될 때 개인과 사회의 보다 건전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 4) 준법정신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은 각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고 옹호하며 이러한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개인적·사회적으로 보다 큰 복지가 보장됨을 이해시켜야 한다.

- 5)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지도 : 자신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널리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처리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문제사태에 직면하여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판단도 보류할 수 있는 인내심과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6) 자치생활에의 적극적인 참여 : 지도자의 자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관계·지연·혈연·학연 등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태도와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선출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시키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민족통일에 대비한 청소년교육의 방향(1997 신극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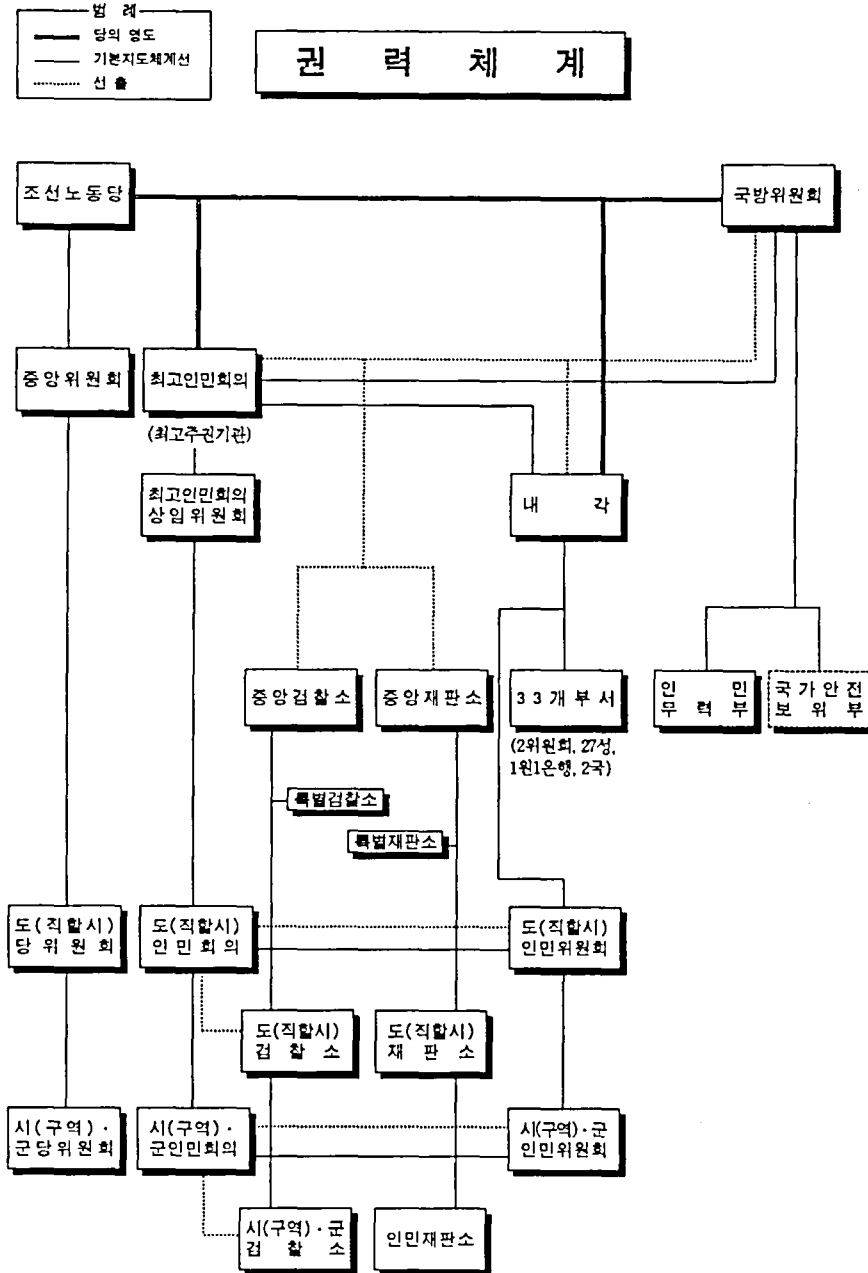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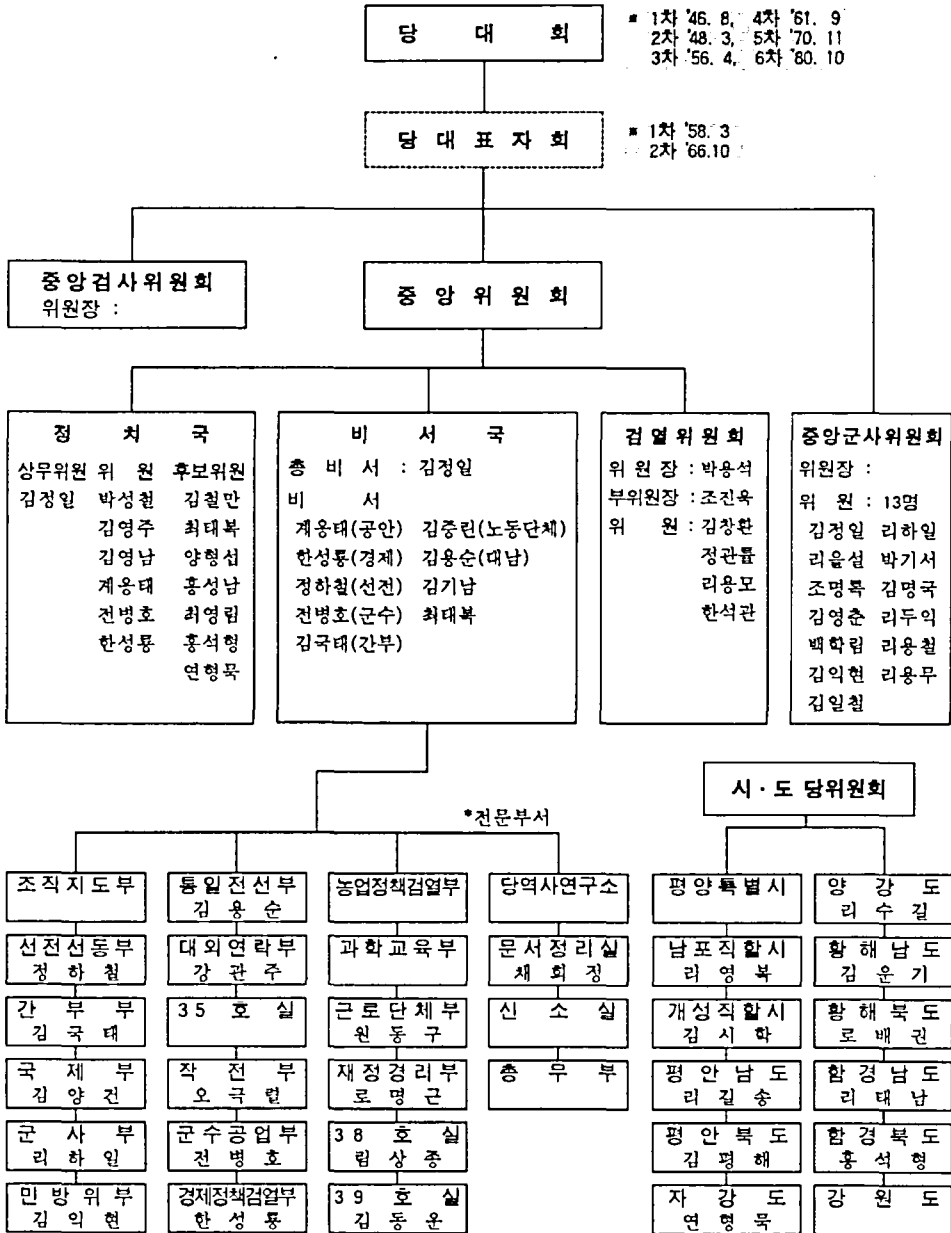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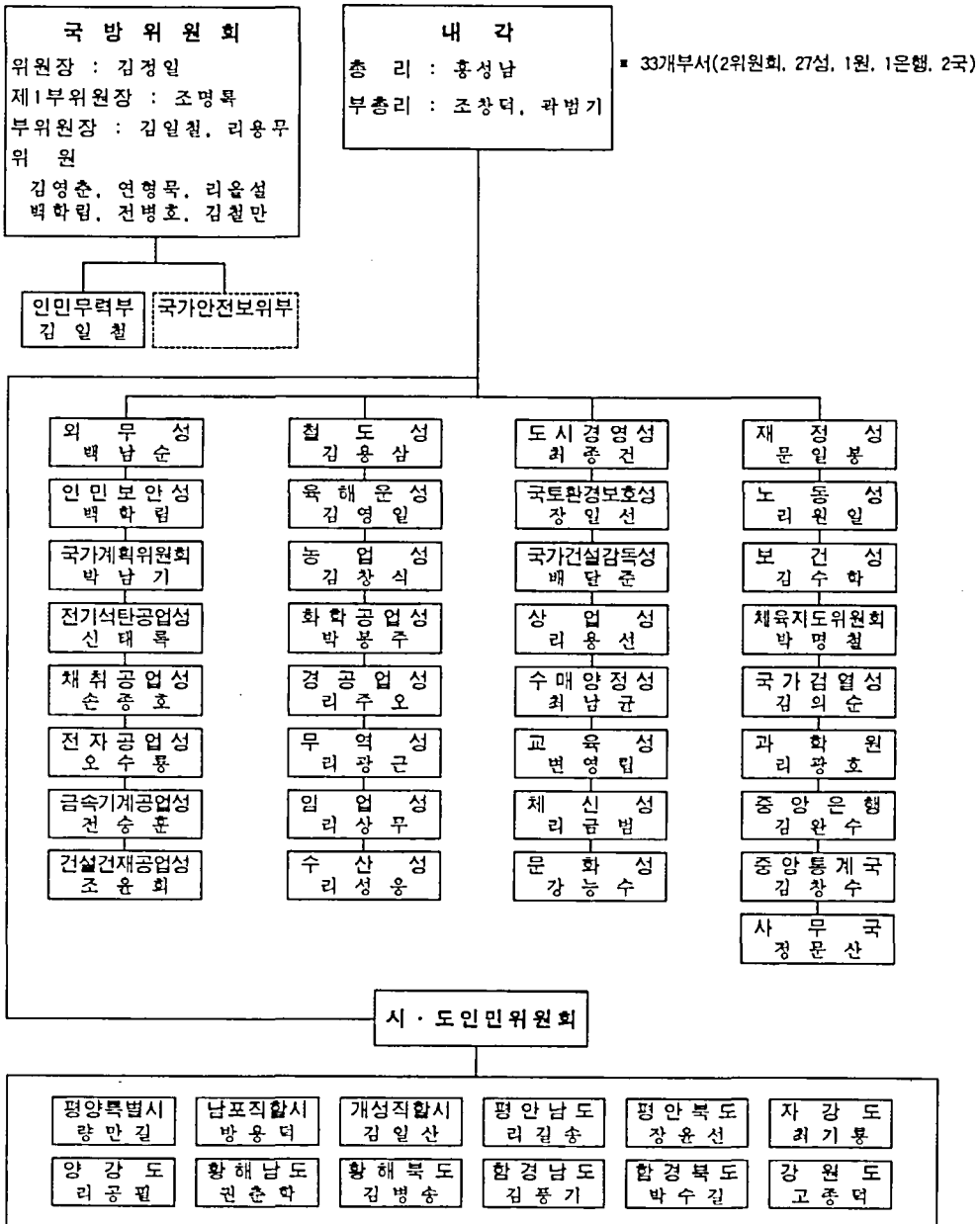


# 조 선 노 동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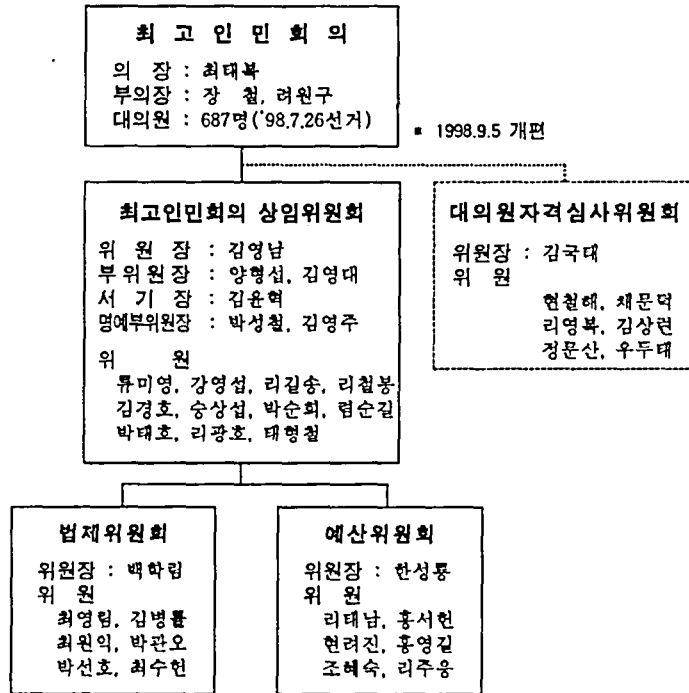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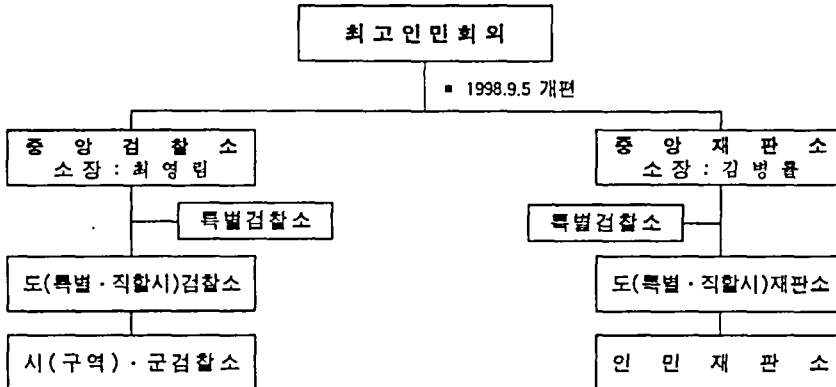
# 행정 기관



## 입 법 기 관



## 사 법 기 관



정 당 · 단 체

정당·대남	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위원장 박성철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 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 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 장 김영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 장 류미영	남조선의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남조선의 국가보안 법집행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재북평화통일촉진 협의회 서기국장 강태우		
대외단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의교회회 회장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리동호	중군위안부 및 태 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 회 장 주성운	아시아여성들과 연대 하는 조선여성 협회 회 장 리창희
	조선유네스코민족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식량 및 농 업기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국장 리태관	유엔기금조선조정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민족경제제도반대 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 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린순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승상섭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박순희	조선직십자회 위원장 장재연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리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국권
경제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 장 정은업	조선아시아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리성복	조선국제합영촉진 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김봉문
	조선카톨릭교회회 위원장 장재연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 장 장재연
종교단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철	조선과학기술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광호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용상	국제문제연구소 소 장 김광우
	조선역사협회 회 장 전영훈	조선김정일화연맹 위원장 장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 장 박명철

##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48. 3.25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소집 제의(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 4.30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제의(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49. 6.28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등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
- '50. 6. 7 남북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집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6.19 전조선 입법기관 구성 제의(최고인민회의)
- '54. 4.27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3개항의 통일방안 제의(외무상 남일)
- 6.15 남북조선군축 및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 체결 제의(외무상 남일)
- 10.30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와 국회 합동회의 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 '55. 8.14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공동회의 소집 제의('8. 15'경축대회 김일성)
- '56. 4.28 남북조선의 정권당국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의(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 7. 3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제의(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
- 11. 7 남북당국간 군비축소 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 '57. 1.31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단간의 정기 서신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홍명희)
- 6.10 국제체육대회 단일한 조선민족팀 구성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 9.20 남북조선대표참가 유관국 회의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김일성)
- 12.18 제17차 국제올림픽대회에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59.10.26 평화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부수상 남일)
- 10.27 '남북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 설치 제의(최고인민회의)
- '60. 4.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소집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 8.14 남북 「연방제」 제의(김일성)
- 11.22 남북 경제·문화교류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 '62. 6.21 남북조선 정권 당국자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 7.28 제18차 동경올림픽대회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 11.28 남북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로잔느에서 개최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63. 3.29 남북조선올림픽위원회회의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 9. 8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 '64. 3.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소집 또는 남북조선 각계대표의 집속 제의(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 회의)
- '67. 1. 4 남조선당국자와 통일문제 조건부 협상 제의(김일성)
- 8.21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 회의 소집 제의(정부)
- '71. 4.12 평화통일 8개 방안 제의(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외무상 허담)
- '72.12. 4 남북간 다방면적 합작 제의(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대리 박성철)
- '73. 4. 5 남북평화협정체결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총리 김일)
- 6.23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김일성)
- '74. 3.20 조·미 평화협정 체결위한 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 '77. 1.25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 소집 제의(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2. 8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익현)
- '79. 1.23 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31 남북상호비방·중상 중지조치 제의(조선중앙통신사)
- 2. 5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연락대표 접촉 제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2.20 제22차 올림픽대회 남북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인대표회담 제의(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 '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 '81. 1.1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82. 210 남과 북, 해외의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 '83. 1.18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9. 9 연방국가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에 남북공동의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 윤번제 운영 제의(김일성)
- '84. 1.10 남·북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 3.30 제23차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유일팀 공동출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9. 8 남조선수재민구호봉사제공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85. 1. 9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정무원 부총리 김환)
- 4. 9 남북국회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
- 5.28 남북적십자예술단 상호방문 제의(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86. 1.11 남북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외교부)
- 6. 9 남·북·미국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인민무력부장 오진우)
- 6.23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장설 협상 제의(정부)
- 12.30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 '87. 7.23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축감협상 제의(정부)
- 11.11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의)
- '88. 1. 1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20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11. 7 조선반도 평화보장 4원칙 제시(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12.21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북경) 유일팀 출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89. 1. 1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김일성)
- 5.31 남북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7. 9 남·북·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 소집(90. 8. 15)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 9.28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 11.30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3개항 실천조치 제의(외교부)
- '90. 1. 1 남북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실현 위한 남북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1.17 IPU총회(제84차)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제의(의회 그루퉁위 위원장 양형섭)
- 5.24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 5.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제시(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6. 4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8.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제의(범민족대회)
- 9.14 UN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총리 연행록)
- '91. 1. 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30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외교부)
- '93. 4.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 5.25 남북최고위급의 복사교환 제의(정무원총리 강성산)
- '94. 4.11 전민족대단결 방도 모색을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
- 6.17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김일성, 「카터」 전 미대통령에게 의사전달)
- '95. 3.29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접촉 제의(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 5.25 남한의 쌀제공 검토용의 표명(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성득)
- '98. 4.18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발표(김정일 「서한」형식)
- '99. 2. 3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 '01. 1.10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것」 등 제의(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1월	1	○ 설(신년) ○ 「전반적 무상치료제」 시행일(49주년) ○ 「협동농민사회보장제」 시행일(17주년)	'46. 2. 24 제정 '53. 1. 1 시행 '85. 10. 4 채택	
	8	○ 건재공업절	'83. 12. 9 제정	
	12	○ 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66주기)	'05. 11. 4~ '36. 1. 12	
	14	○ 「노농적위대」 창설일(43주년)	'59. 1. 14 창설	
	15	○ 훈민정음 창제일(558주년)	1444. 1. 15 창제	
	17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17 결성 ( '96. 1. 19개칭)	
	2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결성일(11주년)	'91. 1. 25 결성	
	28	○ 무역절	'97. 1. 23 제정	
	30	○ 「대안전업정」 서명일	'92. 1. 30 서명	
	31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31 농민동맹 결성 ( '65. 3. 25 개칭)	
	* 1~2월 : 동계체육 월드컵('80. 1 실정)			
	2월	1	○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결성일(56주년)	'46. 2. 1 결성
		6	○ 「일당백」 구호 제시일(39주년)	'63. 2. 6 김일성 제시
		8	○ 「조선천도교청우당」 창당일(56주년)	'46. 2. 8 창당
10		○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29주년)	'73. 2. 10 발기	
12		○ 음력 설(민속명절)	'89년 부터	
16		○ 김정일 생일(44회)	'42. 2. 16 출생	
19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일(10주년)	'92. 2. 19 발효 ( '91. 12. 13 채택)	
20		○ 기계절	'72. 1. 13 제정	
3월	1	○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 발표일(38주년)	'64. 2. 25 발표	
	28	○ 「세계공산당선언」 발표일(154주년)	1848. 2. 28 선언	
	1	○ 「반일 3·1 인민봉기」 기념일(83주년)	'19. 3. 1 발생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3월	2	○ 식수절	4월 6일 ('71. 3. 25) 이었으나 '99년부터 3월 2일로 변경
	5	○ 「토지개혁법령」 공포일(56주년) ○ 농업근로자절	'46. 3. 5 공포 '71. 3. 5 제정
	8	○ 국제부녀절	'61. 3. 8 채택 ( '09. 3. 8 시카고 여성시위 기념)
	11	○ 「항재산회의」 기념일(69주년)	'33. 3. 11 개최
	19	○ 이인모 송환일	'93. 3. 19 송환
	22	○ 어부절	'62. 5. 23 제정
	23	○ 「조선국민화」 결성일(85주년)	'17. 3. 23 김형직 결성
	24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결성일(53주년)	'49. 3. 24 결성
	25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일(56주년)	'46. 3. 25 결성
	1	○ 새금제도 폐지의 날(28주년)	'74. 3. 25 제정
	3	○ 「4·3 제주도 인민봉기」 기념일(54주년)	'48. 4. 3 발생
4월	5	○ 한식(민속명절) ○ 보린절 ○ 친도교 창도일(142주년)	'89년 부터 '80. 4. 5 제정 1860. 4. 5 창도
	7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일	'93. 4. 7 제의
	8	○ 체신절	'72. 1. 13 제정
	9	○ 「환경보호법」 채택일(16주년)	'86. 4. 9 채택
	15	○ 태양절(김일성출생일)	12. 4. 15 ~ '94. 7. 8 '97. 7. 9 개칭
	19	○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4·19 의거)(42주년)	'60. 4. 19 발생
	20	○ 김정일 「원수」 추대일	'92. 4. 20 추대
	21	○ 강반석(김일성 모) 출생일	1892. 4. 21 ~ '32. 7. 31
	24	○ 탐부절(12주년)	'90. 10. 31 제정
	25	○ 「조선인민군」 창건일(70주년)	'32. 4. 25 「조선 인민혁명군」 조직 '96. 4. 23 국가력 명걸로 제정
	28	○ 「어린이 보육교양법」 채택일(26주년)	'76. 4. 28 채택

월	일	주요행사	비고	
4월	29	○「농업협동조합법 폐지법령」 공포일(36주년) ○ 토지법 채택일(25주년)	'66. 4. 29 공포 '77. 4. 29 채택	
	* 4월중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82. 4 최초 개최) * 4월중 : 제15기 전국과학기술축전(85. 4 최초 개최) * 4월 : 문화유적에호 월간			
5월	1	○ 국제노동자절(5·1절, 112주년)  ○ 「사회의 노동법」 시행일	1886. 5. 1 미국 「시카고」노동자 파업기념 '78. 4. 18 채택	
	5	○ 「조국광복회」 결성일(66주년)	'36. 5. 5 김일성 조직	
	11	○ 철도절	'63. 3. 18 제정	
	13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일(41주년)	'61. 5. 13 결성	
	15	○ 지질탐사절	'70. 2. 3 제정	
	18	○ 「광주인민봉기」 기념일(22주년)	'80. 5. 18 ~5. 27 발생	
	20	○ 「조선학생위원회」 결성일(42주년)	'60. 5. 20 결성	
	21	○ 건설자절	'71. 4. 30 제정	
	23	○ 「무산치구전투승리」 기념일(63주년)	'39. 5. 23 전투	
	24	○ 「조국통일 5대방침」 발표일	'90. 5. 24 발표	
	25	○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47주년)	'55. 5. 25 결성	
	30	○ 「조선종교인협의회」 결성일	'89. 5. 30 결성	
	6월	1	○ 국제아동절(6·1절)	'49. 11 국제민주 여성동맹 결정, '50. 4 제정
		3	○ 「남조선청년학생 봉기」 기념일(6.3사태)(38주년)	'64. 6. 3 발생
4		○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일(65주년) ○ 「민주조선」 창간일(56주년)	'37. 6. 4 전투 '46. 6. 4 창간	
5		○ 김형직(김일성 부) 사망일(76주기) ○ 「세계환경의 날」 기념일 ○ 해군절	1891. 7. 10 ~1926. 6. 5 '72. 12. 15 UN 제27차총회 제정 '72. 6. 3 제정	
6		○ 「조선소년단」 창단일(56주년)	'46. 6. 6 창단	
7		○ 지방공업절	'70. 4. 6 제정	

월	일	주요행사	비고
6월	10	○ 「반일 6·10 만세시위투쟁」 기념일(76주년) ○ 「6월민중항쟁」 기념일(15주년)	'26. 6. 10 발생 '87. 6. 10 발생
	15	○ 단오(민속명절) ○ 「남북공동선언」 발표일	'89년 부터 '00. 6. 13~15 남북정상회담
7월	19	○ 김정일 당사업 개시일	'64. 6. 19 개시
	20	○ 포병절	'82. 10. 28 제정
	23	○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일 ○ 선박공업절	'73. 6. 23 발표 '88. 4. 21 제정 ('48. 6. 23 소급 설정)
	25	○ 「조국해방전투」 발발일(미제반대투쟁의 날)(52주년)	'50. 6. 25 발발
	28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채택일	'94. 6. 28 채택
	30	○ 조선카톨릭교협회 결성일	'88. 6. 30 결성
	* 6월 25일~7월 27일 : 「반미공동투쟁」 월간(70. 7 국제민주연맹가협회 결성)		
	1	○ 광부절	'57. 7. 5 제정
2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일(46주년)	'56. 7. 2 결성	
4	○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30주년)	'72. 7. 4 발표	
7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청년학생공동 선언문」 채택일(13주년)	'89. 7. 7 채택	
7월	8	○ 김일성 사망일(8주기)	'12. 4. 15 ~'94. 7. 8
	9	○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발기일(20주년)	'82. 7. 9 발기
	10	○ 「김형직(김일성 부)」 출생일	1894. 7. 10 ~1926. 6. 5
	11	○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일	'61. 7. 11 체결
	12	○ 해양의 날	
	22	○ 「조국통일민주주의의 전선」 결성일(56주년)	'46. 7. 22 결성
	24	○ 육·해운절	'72. 2. 26 제정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7월	27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49주년) ○ 「농촌기술혁명」 기념일 (29주년)	'53. 7. 27 휴전협정 체결 '96. 7. 26 국가적 명절로 제정 '73. 7. 27 제정	
	30	○ 「남녀평등권법령」 공포일 (56주년)	'46. 7. 30 공포	
	31	○ 강반석(김일성 모) 사망일 (70주기)	1892. 4. 21 ~ 1932. 7. 31	
* 7~8월 : 새기준·새기록창조 월간('81년 설정) * 7~8월 : 해양체육 월간('64년 설정)				
8월	1	○ 200해리 경제수역 발표일	'77. 8. 1 발표 ('77. 6. 21 채택)	
	10	○ 「주요산업 국유화법령」 공포일(56주년) ○ 입업노동자결	'46. 8. 9 제정 '63. 8. 10 제정	
	14	○ 「남북 연방제」 제외일	'60. 8. 14 제외	
	15	○ 해방기념일(57주년) ○ 「제11차 범민족대회」 ○ 「제10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 연합」 결성일(10주년)	'45. 8. 15 해방 '90. 8. 15. 1차대회 '91. 8. 15. 1차대회 '92. 8. 15 결성	
	20	○ 공군절	'72. 5. 20 제정	
	25	○ 「한국민족민주전선」 결성일 (33주년)	'69. 8. 25 「통혁당」 창당 ('85. 7. 27 개칭)	
	28	○ 청년절 ○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일(75주년)	'91. 2. 1 제정 '27. 8. 28 결성	
	* 8~9월 : 인민체력검정 기간('48년 설정) * 8월15일~9월15일 : 남북해의동포청년학생공동평화 월간('91년 설정)			
	9월	1	○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일 (27주년) ○ 「불턱불가담의 날」 (비동명의 날) ○ 「평화의 날」	'75. 9. 1 시행 '81. 2 인도 비동맹 외상회의 결정 '82. 6 쿠바 제10차 세계적명대회 결정
		5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일(25주년)	'77. 9. 5 발표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7월	5	○ 교육절 ○ 도시경영절 ○ 김정일「국방위원장」 재추대일 (4주년)	'77. 9. 19 제정 '82. 8. 2 제정 '98. 9. 5 (98. 4. 9최추대)	
	8	○ 「합영법」 채택일	'84. 9. 8 채택	
	9	○ 장권 장건일(9·9절)(54주년) ○ 「주체」연호 시행일(5주년)	'48. 9. 9 수립 '97. 7. 8 제정	
	12	○ 「붉은 청년근위대」 창건일 (32주년)	'70. 9. 12 창건	
	15	○ 상업절	'71. 11. 6 제정	
9월	17	○ UN 가입일(11주년)	'91. 9. 17 가입 (UN제46차총회)	
	20	○ 피복공업절(4주년)	'98. 2. 4 제정	
	21	○ 추석(민속명절)	'88년 부터	
	22	○ 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 (53주기)	'17. 12. 24 ~ '49. 9. 22	
	24	○ 전기절 ○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발족일	'71. 9. 15 제정 '97. 9. 24 발족	
	28	○ 「조·일 국교정상화추진 공동선언」 발표일	'90. 9. 28 발표 (노동당, 일본 자민당·사회당)	
	* 9월8일~14일 : 주한미군철거투쟁 주간('45. 9. 8 미군의 남한군정실시 선포)'('78년 설정)			
	10월	1	○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일 (56주년)	'46. 10. 1 설립
3		○ 민족의 날	'98. 10. 3 선포	
4		○ 「대자연개조사업」 제시일 (21주년)	'81. 10. 4 제시	
8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일 (5주년)	'97. 10. 8 추대	
9		○ 「국격법」 공포일(39주년) ○ 금속노동자결	'63. 10. 9 공포 '70. 4. 17 제정	
10		○ 「조선노동당」 창당일(57주년)	'45. 10. 10 창당	
11		○ 「단군릉」 개건기념일(8주년)	'94. 10. 11 준공	
12		○ 「만경대학명학원」 설립일 (55주년)	'47. 10. 12 설립	
13		○ 체육절(10월 두번째 일요일)	'49. 8. 2 제정	
14		○ 방송절	'70. 10. 14 제정	
10월	15	○ 방직공업절	'73. 10. 15 제정	
	17	○ 「타도제국주의동맹」(트·ㄷ) 결성일(76주년)	'26. 10. 17 김일성 결성	



월	주요행사	비고	
10월	18 ○「조선적십자회」창립일 (56주년)	'46. 10. 18 창립	
	19 ○「10월민주항쟁」기념일 (부·마사태)(23주년)	'79. 10. 16 ~10. 23 발생	
	20 ○ 민족면역의 날	'97. 9. 26 제정	
	23 ○ 국토환경보호절	'96. 11. 27 제정	
	25 ○「중국인민지원군참전」기념일 (52주년) ○「근로자」지 창간일 (56주년)	'50. 10. 25 참전 '46. 10. 25 창간	
	28 ○ 과학기술연구사업 결산 및 대책수립의 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창립일	'92. 1. 결정 '52. 10. 28 창립	
	29 ○「조선중앙은행」설립일 (56주년)	'46. 10. 29 설립	
	30 ○「지방예산제」실시일 (29주년)	'73. 10. 30 실시	
	31 ○「조선올림픽위원회」결성일 (32주년)	'70. 10. 31 결성	
	* 10월중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 원간 ('89. 11. 25 설정, 파리) * 10~11월중 : 「공화국선수권체육대회」개최		
11월	1 ○「노동신문」창간일(57주년)	黨기관지「정로」(45. 11. 1 창간)와 신민당기관지「전진」을 합쳐 '46. 9. 1 발간 '70. 12. 20 제정	
	3 ○「광주학생사건」기념일 (73주년) ○「조선사회민주당」창당일 (57주년)	'29. 11. 3 발생 '45. 11. 3 창당	
	11 ○「조선기자동맹」결성일(56주년)	'46. 11. 11 결성	
	18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결성일(57주년)	'45. 11. 18 결성	
	19 ○「사법·검찰기관」창립일 (57주년) ○「사회안전기관」창립일 (57주년)	'45. 11. 19 창립 '45. 11. 19 창립	
	* 11월중 : 제12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 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체육의 날 ('92. 3. 8 김정일 지시)		

월	주요행사	비고	
11월	20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일(12주년)	'90. 11. 20 결성	
	28 ○「조선그리스도교연맹」결성일 (56주년)	'46. 11. 28 결성 ('99. 2 개칭)	
	30 ○「조선민주법률가협회」결성일(48주년) ○「조선직업총동맹」결성일 (57주년)	'54. 11. 30 결성 '45. 11. 30 결성	
	* 11월18일~23일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86. 11 리츠 개최) * 11월중 : 문화유적애호 월간		
	1 ○「과학원」창립일(50주년)	'52. 12. 1 창립	
	5 ○「조선중앙통신사」창립일 (56주년)	'46. 12. 5 창립	
	6 ○ 과학공업절 ○ 조선비대평파위원회 결성일 (16주년)	'76. 10. 16 제정 '86. 12. 6 결성	
	10 ○「4대군사노선」채택일 (40주년)	'62. 12. 10 채택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일 ('92. 2. 19 발효)	'91. 12. 13 채택	
	15 ○「새날소년동맹」결성일 (76주년) ○「대안의 사업체계」수립일 (41주년) ○「KEDO·북한간 경수로협정」체결일	'26. 12. 15 결성 '61. 12. 15 수립 '95. 12. 15 체결	
12월	24 ○ 김정숙(김정일 생모) 출생일 ○ 김정일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일(11주년)	'17. 12. 24 ~ '49. 9. 22 '91. 12. 24 추대	
	26 ○「조선불교도연맹」결성일 (57주년) ○「反日부녀회」결성일(76주년)	'45. 12. 26 결성 '26. 12. 26 결성	
	27 ○ 헌법절 (사회주의헌법 채택일)	'73. 12. 24 제정 '72. 12. 27 채택	
	2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설립일	'91. 12. 28 설정 정무원결정70호	
	* 12월중 : 제12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 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체육의 날 ('92. 3. 8 김정일 지시)		
	年中		

####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 I. 정부 및 공공기관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인터넷 평화학교)
-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http://www.sesri.re.kr>
- 6.25 전쟁 기념 사업단 <http://www.mnd.go.kr:8778/>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arirang>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nk>
- 이북 5도 위원회 <http://www.ibuk5do.go.kr>
-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

##### II. 교육기관·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ifes-kor>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http://ifes.kyungnam.ac.kr/gsnks-kor>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http://welove.korea.ac.kr/~noko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ttp://asiacenter.or.kr>
-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kwandong.ac.kr/~unikorea/main.html>
- 마산창원 통일자료실 <http://www.atongil.com>
-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unikorea.net/myongji>
- 문화통합 <http://www.multicorea.org>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 서울대학교 지식 및 정보넷 연구실 <http://kins.snu.ac.kr/unikorea>
- 북한연구소 <http://nkorea.or.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nk-infobank.com>
-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http://riku.sookmyung.ac.kr>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http://suny.yonsei.ac.kr/~ikus>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http://home.ewha.ac.kr/~nk21>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 통일학연구소 <http://www.onekorea.org>
-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ipa.re.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http://www.kris.or.kr>
- 한반도통일연구소 <http://www.hankorea21.com>
- 통일시대연구소 <http://www.rink.or.kr>

### III. 언론기관

- 한국방송공사 <http://news.kbs.co.kr/hana>
- 미주통일신문사 <http://www.unitypress.com>
- 민족 21 <http://minjog21.com>
- 민족통신 <http://www.minjok.com>
- 대한매일 뉴스넷 [http://www.kdaily.com/features/koreanet/north\\_korea.html](http://www.kdaily.com/features/koreanet/north_korea.html)
- 세계일보 [http://210.91.16.5/northpeople\\_research/index.html](http://210.91.16.5/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html/kmlist/13121800.html>

- 중앙일보 - 북한네트 <http://nk.joins.com>
- YTN-북한리포트 [http://ytn.co.kr/new\\_httpd/special/nkreport/nkreport\\_index.asp](http://ytn.co.kr/new_httpd/special/nkreport/nkreport_index.asp)
- 연합뉴스-북한리포트 <http://www.yonhapnews.co.kr/services/22000000000.html>
- 오도신문 <http://www.ibukodo.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special/n\\_korea](http://www.joins.com/special/n_korea)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politics/nk.html>
- 문화일보 - 통일시대 [http://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http://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
- 통일정보신문 <http://www.unityinfo.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politics/northkorea.htm>
- 야후! 북한동정 [http://kr.fullcoverage.yahoo.com/Full\\_Coverage/World/North\\_Korea](http://kr.fullcoverage.yahoo.com/Full_Coverage/World/North_Korea)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 IV. 민간단체 · 종교단체

- 경실련 통일협회 <http://tongil.ccej.or.kr>
- 국제 옥수수 재단 <http://www.icf.or.kr>
- 기독교 북한 선교회 CMNK <http://www.cmnk.org>
- 남북농발협 <http://www.potato.or.kr>
- 남북자가족협의회 <http://www.rehome.or.kr>
- 남북자 가족모임 <http://www.comebackhome.or.kr>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edongmu.or.kr>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www.kcrc.or.kr>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nknet.org/index\\_ko.html](http://www.nknet.org/index_ko.html)
-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북한선교 두리하나 <http://www.durihana.com>
- 북한선교연구소 <http://www.imm4n.org/Main.htm>

- 사이버 통일 운동 Unipia <http://www.unipia.org>
- 남북 나눔 운동본부 <http://haja.sharing.or.kr>
-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http://www.ksm.or.kr>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http://www.bubtanet.or.kr>
- 통일대축전 서울대 사범대 준비위원회 <http://my.dreamwiz.com/tongil77>
- 통일연대 <http://www.615tongilyoundai.org>
-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http://www.tihanguk.net>
- 평안북도 중앙청년회 <http://www.pyongbuk.co.kr>
- 평안북도중앙청년회 신문 <http://inews.org/pyongbuk>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http://www.spark946.org>
- 평화의 숲 <http://www.peaceforest.or.kr>
-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 운동 <http://sharing.or.kr>
- 운영주체 평화 예술인 국제연대 <http://www.artdmz.org>
- 한겨레 통일문화 재단 <http://www.durihani.or.kr>
- 한국자유총연맹 <http://www.kfl.or.kr>
- 한국평화정책 연구소 <http://www.leechangho.org>
- 한민족 복지재단 <http://www.kwfw.or.kr>
- 한민족선교네트워크-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http://hanminjok.peacenet.or.kr>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 황해도 중앙 도민회 <http://www.hwanghaedo.or.kr>
- Ton-a-Month Club(한글 페이지) <http://ton-a-month.tripod.com>
- 아태평화재단 <http://www.kdjpf.or.kr>

## V. 민간기업

- 10대 가 보는 북한의 모습 <http://www.cybertongil.net/>
- 21C 철마가 달린다 <http://zzna.com.ne.kr/>

- 전안이의 통일이야기 방 <http://totter.hihome.com/>
- 겨레화합연구학회 <http://club.dreamwiz.com/unikorea>
- 경남대 북한대학 동우회 <http://www.knsns.com/>
- 고국, 조선족, 그리고... <http://user.chollian.net/~rbtmbby/>
- 안해연·이주연 선생님의 통일 배움터 <http://www.tongilnara.org>
- 국화의 방 <http://www.fancy12.pe.ly/>
- 김동진의 통일과 영어교육 <http://myhome.bbi.co.kr/kdddjj20>
- 김성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anseo.dankook.ac.kr~ksy11>
- 김용의 북한과 요리 이야기 <http://www.kimyong.co.kr/>
- 김정일 안티 <http://www.kimjungilanti.com/>
- 남누리 북누리 <http://tongilnuri.wo.to/>
- 남북이야기 <http://www.okready.com/>
- 남북한통일교육정보 <http://www.ipcp.edunet4u.net/~teacher16>
- 남북통일문제연구소 <http://www.user.chollian.net/~yeoinsub>
- 노래로 배우는 통일교실 <http://210.119.114.5/union>
- 북한이야기 <http://my.dreamwiz.com/jisun8402>
- 권오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kongguk.ac.kr/~oyoon>
- 등푸른 자유의 온누리 세상 <http://www.iwantolk.wo.to/>
- 내가보는 북한 <http://www.unikorea.net/>
- 민족통일정치연구회 <http://myhome.shinbiro.com/~uk4299>
- 백두산 가는 길 <http://www.baikdusan.net/>
- 백두 한라회 <http://www.baikhan.com/>
- 변재성의 사진과 비디오 보고서 <http://nhctv.net/>
- 북한 건축 <http://www.mwus.mokwon.ac.kr/~leewk>
- 북한 교육정보 <http://www.bk21.pe.kr/>
- 북한구호정보 <http://myhome.shinbiro.com/~residue>

- 북한문화자료실 <http://myhome.hanmail.net/~chltjtdtn>
- 북한 통일 <http://www.bifa.pe.kr>
- 북한문학 연구 <http://nkmunhak.jinju.or.kr/>
- 뿌리넷 <http://www.poori.net>
- 사이버 금강산 관광 <http://web.edunet4.net/~75802580>
- 서울사람, 평양사람 <http://210.96.72.193/seoul>
- 안티김정일 <http://www.kimjungilanti.com/>
- 오영실의 홈 <http://www.oysil.ce.ro/>
- 유수강국시대 준비 <http://www.21kl.org/>
- 윤여상의 I LOVE minority <http://www.kiloveminority.com/>
- 이기영교수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klee388/>
- 조의성의 한국어연구실 <http://www.nicol.ac.jp/~choes/>
- 조희제의 통일교육 <http://www.edu.co.kr/chOhj>
- 천치와 천재 <http://www.twinpapa.com/>
- 통일과 북한문제의 새로운 접근 <http://club.dreamwiz.com/nkunify/>
- 통일 세상 <http://www.onekorea21.net/>
- 통일 엔진 <http://www.home.ntime.net/tongil>
- 통일이리 길라잡이 <http://www.northfood.co.kr/>
- 통일 이루기 <http://210.95.92.1/hg/shjj>
- 투어엔 코리아 <http://www.tourkorea.co.kr/>
- 통일 LIS <http://www.user.userchollian.net/~tongil100/>
- 평화통일의 길 [www.users.unitel.co.kr/~syrumkuk](http://www.users.unitel.co.kr/~syrumkuk)
- 하나된 한국 <http://user.chollian.net/~prokhr/korea>
- 하늘다솜 <http://poschool.or.kr/sky>
- 한국전쟁에서 통일까지 <http://user.chollian.net/~prokhr/war>
- 한반도 둘러보기 <http://mydreamwiz.com/ksks77>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카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http://cafe.daum.net/613>
- Daum 카페, 북한사람 <http://cafe.daum.net/a1223n>
- Freechal동호회, 남북한 관계론 <http://www.freechal.com/nsktown>
- pemuto O의 홈페이지 <http://my.netian.com/~pemuto0>
- Wonny's Homepage <http://myhome.dreamx.net.hiwonny>

## VI. 해외기관

- U N(United Nations) [www.un.org](http://www.un.org)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http://www.odci.gov)
- 미국 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http://www.house.gov)
- 미국 국방성(Defence LINK) [www.defenselink.mil](http://www.defenselink.mil)
-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http://www.state.gov)
- 노틸러스(NAPSNet) [www.nautilus.org/napsnet](http://www.nautilus.org/napsnet)
- CSIS(국제전략연구소) [www.csis.org](http://www.csis.org)
- CCFR [www.ccf.org](http://www.ccf.org)
- HOOVER연구소(Hoover Institution) [www-hoover.stanford.edu](http://www-hoover.stanford.edu)
- RAND연구소(RAND) [www.rand.org](http://www.rand.org)
- HERITAGE재단(Heritage Foundation) [www.heritage.org](http://www.heritage.org)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http://www.sipri.se)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 [www.fas.harvard.edu/~korea](http://www.fas.harvard.edu/~korea)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2002년 9월 인쇄

2002년 9월 발행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142-7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020

Fax : 02)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Tel : 02) 2266-5277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

〈비매품〉

